

로마서 강해 제1과

강해 노트 자료: www.KeepBible.com, 다운로드 자료실, 로마서 강해노트

교재: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그리스도 예수안에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 총판)

A. 로마서

1. 성경의 책 중에서 교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책, 믿음 강해서, 기독교의 진리를 가장 잘 드러내는 책, 마르틴 루터(롬1:17), 요한 웨슬레: 루터의 로마서 서문, 존 번연의 천로역정 로마서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가?
2. 교리: 죄, 칭의, 성화, 양자 삼음(공동 상속자),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
3.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스라엘과 교회의 차이를 보여 줌(9-11장)
4. 육신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 그리스도인의 의무, 정부와의 관계 등 실질적인 진리를 가르침

B. 배경

1. 바울이 고린도를 세 달 방문했을 때 기록함(행20:1-3, 3차 여행). 56-57년, 네로 황제
 - a. 바울은 자신이 가이오와 에라스도와 함께 있다고 함(롬16:23; 고전1:14; 딤후4:20)
 - b. 겐그레아에 있던 교회의 중 뵈베(롬16:1; 행18:18)가 전달함
 - c. 바울의 친구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원래 로마에서 옴(행18:2). 다시 로마에 돌아감(롬16:3)
2. 어떻게 로마에 성도들이 생겼을까?
 - a. 로마의 교회에게 보내지 않고 로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보냄(1:7).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롬16에는 여러 그룹의 사람들이 나옴. 아직 지역 교회가 없거나 여러 개 있었을 가능성
 - b. 다른 서신들과 달리 이것은 바울이 직접 가 보지 않은 교회에 보낸 편지
 - c. 어떤 이들은 베드로가 25년 동안 사역하며 로마 교회를 세웠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근거가 전혀 없다. 롬16에는 베드로가 없다. 바울은 AD 60년경에 로마에 감. 그의 옥중서신(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딤후)에서도 베드로는 언급되지 않음.
 - d. 가장 중요한 증거(롬15:20):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는 세우려 하지 않음.
 - e. 행2:10, 오순절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 개종자, 사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로마의 유대인들이었다. 롬16에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다. 아마도 이들은 바울의 회심자들. 이들이 세계의 수도인 로마로 몰려들어 복음을 온 세상으로 가져감.
 - f. 사도가 직접 세우지 않은 교회, g. 믿음이 강한 교회로 알려짐(롬1:8)
 - h. 박해 속에서 승리하는 교회

C. 기록의 이유

1.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자기의 일을 멈추려 하였다(롬15:19). 그리고 소아시아 교회들이 준 선물을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려 하였다(롬15:25-26).
 - a. 그는 스페인의 복음화를 원했고(롬15:24) 이를 위해 가까운 교회를 전초 기지로 삼고자 하였다.
 - b. 또한 가장 큰 도시 로마의 복음화를 원했다. 그래서 항상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였고 이 편지는 그의 방문을 준비하게 하려 함이었다.
 - c. 예루살렘에서 죽을지 모르므로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원함.
 - d. 갈라디아서 역시 비슷한 시기에 로마에서 기록됨. 문제: 유대인 그리스도인 가운데 유대주의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이 생김.
2. 로마 성도들이 자기의 방문을 준비하게 함

3. 거짓 교사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초 교리를 그들에게 가르치려 함
4. 하나님의 경륜에서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려 함
5. 성도들의 의무를 가르치려 함
6. 바울에 대한 중상모략에 대해 답변하려 함(롬3:8)

D. 위치

1.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함2:4)
 - a. 로마서(1:17, 의인), 갈라디아서(3:11, 어떻게 사는가?), 히브리서(10:38, 믿음으로)
 - b. 신약성경에서 첫째 서신, 역사서(복음서와 사도행전), 사도 바울의 유언
 - c. 모든 성경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딤후3:16)
 - 1) 교리: 로마서
 - 2) 책망: 고전 고후
 - 3) 바로잡음: 갈라디아서
 - 4) 의로 교육함: 에베소서 등

E. 주제

하나님의 의(義): 의라는 말은 이런 저런 형태로 40회 나옴.

1-3장: 의의 필요성, 3-8장: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의를 제공함, 9-11장: 이스라엘이 그 의를 배척함, 12-16장: 의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F. 핵심 절, 단어

1. 핵심 절: 롬1:16
2. 핵심 단어: 의(66회), 믿음(62회), 칭의(17회), 인정(19회), 그리스도 안에(33회), 율법(78회), 죄(60회)

로마서 간단 요약

I. 도입 (1:1-17)

A. 인사 (1:1-7), B. 설명 (1:8-17)

II. 죄 (1:18-3:20 - 의가 필요함)

A. 이방인들 죄 아래 있음 (1:18-32), B. 유대인들 - 도덕주의자, 종교인 - 죄 아래 있음 (2:1-3:8), C. 온 세상이 죄 아래 있음 (3:9-20)

III. 구원 (3:21-5:21 - 의가 전가됨)

A. 칭의 설명 (3:21-31), B. 칭의의 예 (4), C. 칭의의 경험 (5)

IV. 성화 (6-8 - 의가 분배됨)

A.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새 위치 (6), B. 육체 안에서 우리의 새 문제 (7)
C.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새 능력 (8)

V. 하나님의 경륜 주권 (9-11 - 의를 거부함)

A. 이스라엘의 과거: 선택 (9), B. 이스라엘의 현재: 거부 (10)
C. 이스라엘의 미래: 구속 (11)

VI. 섬김 (12:1-15:13 - 의를 실천함)

A. 하나님께 구별됨 (12), B. 권위에 순종함 (13), C. 약한 자를 고려함 (14:1-15:13)

VII. 결론 (15:14-16:27)

A. 사역에서 바울이 신실함 (15:14-21), B. 사역에서 바울의 미래 (15:22-33)
C. 사역에 동참한 바울의 친구들 (16:1-23), D. 축복 기도 (16:24-27)

로마서 상세 요약

- I. 인사와 주제: 복음과 하나님의 의, 1:1-17
 - A. 바울의 자기소개: 그리스도의 종, 1:1-7
 - B. 로마 교회에 대한 바울의 관심, 1:8-15
 - C. 그리스도를 위한 바울의 담대함: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음, 1:16-17
- II. 죄와 정죄: 세상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함, 1:18-3:20
 - A. 사람들의 불경건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이유, 1:18-23
 - B. 사람들의 불경건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방법, 1:24-32
 - C. 도덕주의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2:1-16
 - D. 종교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특히 유대인), 2:17-29
 - E. 종교인들의 주장, 3:1-8(2:23-29 비교)
 - F.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3:9-20
- III. 믿음과 칭의: 세상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방법, 3:21-5:21
 - A. 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길, 3:21-26
 - B. 믿음: 사람의 자랑과 교만, 자기 의와 행위를 종결시키는 길, 3:27-31
 - C. 논리: 사람이 믿음만으로 의롭게 되는 증거, 4:1-8
 - D. 의식, 규범, 규제: 칭의를 잘못 구하는 방법, 4:9-12
 - E. 율법: 칭의를 잘못 구하는 방법, 4:13-16
 - F. 아브라함: 믿음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의 예, 4:17-25
 - G.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1부): 칭의의 결과, 5:1-5
 - H.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2부): 칭의의 위대함, 5:6-11
 - I. 아담과 그리스도: 인류 역사의 두 구심점, 5:12-21
- IV. 성화: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방법, 6:1-23
 - A. 성도는 죄 가운데 머무르면 안 됨(1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아야 함, 6:1-10
 - B. 성도는 죄 가운데 머무르면 안 됨(2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위치대로 살아야 함, 6:11-13
 - C. 성도는 죄 가운데 머무르면 안 됨(3부): 성도에게는 죄를 지어도 될 자유가 없음, 6:14-23
- V. 갈등과 고백: 성도는 죄에서 자유로워야 함, 7:1-25
 - A. 사람에 대한 율법의 두 위치, 7:1-6
 - B. 율법의 목적, 7:7-13
 - C. 갈등을 겪는 혼의 고백, 7:14-25
- VI. 구출과 구속: 성도는 성령님에 의해 갈등과 고통에서 자유를 얻을 것임, 8:1-39
 - A.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가 없음: 성령님의 권능, 8:1-17
 - B. 온 창조 세계가 갈등과 고통에서 자유를 얻을 것임, 8:18-27
 - C. 하나님께서 갈등과 고통에서 구출하실 것을 약속함, 8:28-39
- VII. 이스라엘과 의의 복음, 9:1-11:36
 - A. 이스라엘의 특권과 그들의 실패, 9:1-5
 - B. 참 이스라엘, 9:6-13
 - C. 이스라엘의 거부: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긍휼과 공의를 보일 수 있음, 9:14-33
 - D. 이스라엘의 실수: 하나님의 의를 놓침, 10:1-11
 - E.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을 가르치는 복음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님, 10:12-21

- F. 이스라엘의 완악함은 모두에게 있지 않음: 남은 자가 있음, 11:1-10
- G. 이스라엘의 완악함은 끝이 아님: 회복이 남아 있음, 11:11-16
- H. 이스라엘의 완악함은 다른 민족들을 향한 경고임, 11:17-24
- I.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 확실성, 11:25-36

VIII. 성도의 생활, 12:1-15:13

- A.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 12:1-2
- B. 성도 자신과의 관계, 12:3-8
- C. 성도와 성도의 관계, 12:9-13
- D. 성도와 불신자의 관계, 12:14-21
- E. 성도와 국가 관계, 13:1-7
- F. 성도와 이웃과의 관계, 13:8-10
- G. 성도의 시간 관리, 13:11-14
- H. 강한 성도와 약한 성도: 그리스도인의 자유, 14:1-23
- I. 교회에서 좋은 교제의 모습, 15:1-13

IX. 하나님의 사역자와 그의 계획, 15:14-16:27

- A. 하나님의 사역자, 15:14-21
- B. 사역자의 사역, 15:22-33
- C. 사역자의 칭찬, 16:1-16
- D. 사역자의 경고: 분란을 일으키는 자들을 주목하라, 16:17-20
- E. 사역자의 동료들, 16:21-24
- F. 사역자의 축복 기도, 16:25-27

로마서 강해 제2과

I. 인사와 주제: 복음과 하나님의 의, 1:1-17

A. 바울의 자기소개: 그리스도의 종, 1:1-7

1.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1).

예수: 천사가 정해 준 이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신다(마1:21).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신약에만 555회, 히브리말 메시아에 해당하는 그리스말.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나 왕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리스도는 보통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 구약의 초점: 메시아의 오심. 그리스도께서 공식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기록된 바가 없지만 대언자나 사도들이 말하는 기름 부음은 성령님의 내적/영적 기름 부음이다. 그리스도는 우리 구속자의 공식 호칭이다. 베드로가 “주님,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은 그분이 구약의 대언자들이 말한 그 메시아라고 말한 것이다(마16:16). 이 점에서 마귀들도 마찬가지이다(눅4:41). 신약성경의 후반부로 갈수록 예수라는 이름은 덜 쓰이고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더 많이 사용되었다.

종: 주인에게 전적으로 매여 있는 자, 로마 시대의 종: (1) 주인이 값을 치르고 산 소유, (2) 주인을 위해서만 존재함, (3) 주인을 섬기는 일만 함, (4) 주인의 뜻만 따름, (5) 그리스도의 종,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존귀한 호칭

모세, 여호수아, 다윗, 대언자들, 야고보, 베드로, 유다, 모든 그리스도인(고전7:22; 엡6:6; 골4:12; 딤후2:24)

다소의 사울은 교회의 원수였다(행7:58; 8:1-3; 9:1-2; 고전15:9; 딤후전1:13-15; 빌 3:6).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가?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전9:1; 행 9:3-6). 우리 역시 그분을 만났는가?

2. 바울은 사도이다(1). 사도 = 파송 받은 자, 대표, 대사(고후5:20-21)

a. 사도의 특징: (1) 보낸 분에게 속한다, (2) 명령받은 일이 있다, (3) 보낸 이의 권위와 권능을 소유한다.

b.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1) 자기가 원한 것이 아니다, (2)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다, (3) 다른 사람이 하라고 한 것이 아니다, (4) 일하는 것이 좋아서 한 것이 아니다 (갈1:1; 딤후전1:12).

c.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응답했다: 그의 자유 의지(행9:3-6)

d.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섬기는 일을 하였다: 권세 No, 마20:27-28; 요13:14

e.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열매를 맺었다: 요15:16; 골1:10

f. 특히 그는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었다(행9:15).

g. 사도들은 교회 시대의 기초가 되었다(엡2:19-20).

h. 사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다(고전9:1; 15:8-9; 행1:22).

i. 사도의 표적(고후12:12)

j. 현 시대에는 사도가 없다. 사도들의 교리와 가르침만 있을 뿐이다.

3.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분되었다(1-4). separated

구분되는 일: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죄와 세상으로부터 구분되는 일, 하나님께로 구분되는 일(행20:21)

복음: 로마서에서 중요한 말 중 하나(총101회, 13회 로마서), 좋은 소식, 기쁜 소식

하나님의 복음(1), 그분의 아들의 복음(9), 그리스도의 복음(16)

a. 복음은 오래 전에 약속된 것이다(2): 창세 전부터, 구약시대부터 약속된 것이다(계13:8; 창3:15). 히1:1-2, 막1:1-3; 행26:22; 벧전1:10-11

복음의 주제와 저자는 우리 주(Lord) 예수님이다.

거룩한 성경 기록들: 구약성경을 가리킴, 요5:39, 딤후3:14-17

b.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된 것에 관한 것이다(3): 성육신(인성) 다윗의 씨, 다윗의 자손, 사람의 아들, 여자의 씨(갈4:4),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당함, 우리를 구조할 수 있음(히2:17-18), 궁극적으로 죽을 수 있음(히2:14-16).

c.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 드러낸다(4): 그분의 신성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요5:17-18; 눅23:70-71), 즉 그분은 하나님이다.

1) 그분 안에 거하는 거룩함의 영에 의해(4): 거룩함의 영으로는(영적으로는), 그분은 거룩함, 순결함, 공의와 정의 그 자체이다(고후5:21; 히4:15).

2) 부활에 의해(4): 유일무이한 분, 사도들의 복음 선포의 핵심 주제(행2:24, 36; 고전 15:12-19; 롬14:8-9)

3) 권능 있게(4): 구약시대 하나님의 권능: 열 가지 재앙, 홍해, 요르단, 신약시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하나님의 권능: 빈 무덤, 부활과 휴거

4.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교 사역을 받았다(5): 우리가 은혜와 사역을 받았음

a. 은혜를 받음: 은혜(총 170회), 호의, 사랑, 공휼, 구원(딤후2:11-15)

1)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심(엡1:3-4)

2) 값없이 거저 구원하심(롬3:24)

3) 날마다 우리를 돌보심(빌4:19)

4)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하심(롬8:17; 벧후1:4)

b. 사도직의 사명을 받음(7), 복음 선포의 사명

사명의 대상: 모든 민족들(마28:18-20)

사명의 목적: 믿음에 순종하게 하는 것, 행17:30-31

c.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사도직을 받음(5)

5. 모든 성도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다(6-7).

a. 모든 성도들도 바울처럼 부르심을 받음(롬8:29-30).

b. 그들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7). 롬5:8

c. 그들도 성도들이다(7). saints, 거룩히 구분된 자들(위치), 구약 성도들(단7:18, 21, 22, 25, 27 등), 신약 성도들(엡1:1; 골1:2 등), 환난기 성도들(계13:7, 10 등)

d. 그들도 은혜와 평강(peace)을 받았다(7). 요20:19, 21, 26

로마서 강해 제3과

I. 인사와 주제: 복음과 하나님의 의, 1:1-17

B. 로마 교회에 대한 바울의 관심, 1:8-15

1. 좋은 교회(8): 바울이 항상 감사 기도할 정도로 좋은 교회(9절)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는데 늘 칭찬할 정도면 얼마나 좋은 교회일까?
 - a. 깨끗한 삶, 당시의 로마는 비도덕, 불공정, 더러움으로 가득한 도시(1:29-31), 롬12:2; 고후6:17-18
 - b. 어디서나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섬김, 이름이 다른 곳에 알려짐(롬16:19)
 - c. 성도들은 좋은 간증을 가져야 한다(행16:2; 히11:2).
2. 사도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영으로 하나님을 섬김(9; 1절의 중)
 - a. 복음으로 인해, 복음을 위해 자기 영을 하나님께 복종시켰다: 영적인 섬김
3. 사도는 복음으로 인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함(9)
기도의 중요성(눅18:1-7; 빌4:6-7), 바울의 기도 레슨
 - a. 감사와 더불어 기도함(8)
 - b.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도함(8)
 - c. 항상 기도함(9)
 - d. 참되게 기도함(9): 하나님이 증인임
 - e. 중보가 있어야 함(9)
 - f. 구체적으로 기도함(10)
 - g. 복종하며 기도함(10): 하나님의 뜻에 따라
 - h. 바른 동기에서 기도함(11-12)
 - i. 기도의 응답: 응답이 되었지만 바울의 생각과는 다른 방법으로 되었다. 그는 순탄한 여정을 갖기를 원했지만(10) 죄수로서 가장 힘든 여행을 하며 로마에 이르게 되었다(행27장).
4. 사도는 복음으로 인해 성도들을 찾아보려 함(10-13)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기 원함
 - a. 성도들을 확고히 세우기 위해 영적 선물들을 나누고자 함
영적 선물(카리스마)에는 특정한 선물이 있다(12:6-8). 여기서는 은혜의 진리들
바울은 이런 진리들을 가르치고자 했다(딤후2:2, 24).
 - b. 자신도 가르침을 받고 간증을 통해 격려와 위로를 받기 원했다(11-12).
 - c. 열매를 맺고자 하였다(13, 요15:1).
회심자들의 열매(1:13)
의의 열매(6:21-23)
성령의 열매(갈5:22-23)
5. 복음으로 인해 자신이 빛 진 자임을 알게 되고 모든 사람을 인도하려는 마음을 갖게 됨(14-15)
 - a. 빛진 자: 모든 사람에게(막16:15)
이방인의 두 부류: 그리스인과 바바리인
 - 1) 그리스인: 로마 제국의 공통어인 그리스 말과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
 - 2) 바바리인: 그렇지 않은 사람
 - b. 준비되어 있다: 언제라도 온 힘을 다해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복음을 전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전9:16).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내 능력에 따라

- o 나는 빚진 자다(14). I am a debtor.
- o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15). I am ready.
- o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16). I am not ashamed.

C. 그리스도를 위한 바울의 담대함: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음, 1:16-17
16,17절은 복음을 가장 명확하게 기술한 것이다.

1.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음: 복음은 하나님에게서 온 좋은 소식이다(16).

(* 개역성경 '그리스도' 삭제)

부끄러워해야 할 이유들

- a.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윤리와 도덕이 실종된 세상: 하나님의 의를 찾기 어려움
- b. 유대인은 멸시받는 자
- c. 바울의 복음을 믿기가 대단히 어려움: 한 유대인 남자가 스스로를 인류의 구원자라고 함, 하나님의 아들,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심판
- d. 바울은 여러 곳에서 배척을 받았다. 빌립보(행16), 데살로니가(행17), 베레아(행17), 아테네(행17)
- e. 성도들은 대개 두 가지 두려움으로 인해 부끄러워한다.

- 1) 내 믿음이 지적으로 맞는가?(고전1:25), 온 세상이 진화론을 믿는데 창조가 맞는가?
부활과 율회
- 2) 혹시 조롱받지 않을까?(딤후1:7-9)

2.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음: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다(16).

- a. 권능: 다이너마이트, 하나님은 권능 그 자체이다. 6일 창조의 권능, 부활, 휴거의 권능
 - 1) 하나님은 창조를 위해 큰 희생을 들이지 않았다.
 - 2) 그러나 구속을 위해서는 가장 큰 비용 - 자기 아들 - 을 들였다.
 - 3) 사울을 바울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분의 권능이 필요했다.
 - 4) 하나님이 그 권능을 사용해서 사람을 구하시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다.

b. 구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인 관심사, 복음의 목적, 예수 이름의 의미

- 1) 구원은 엄격한 의미에서 구출하는 것을 뜻하며 그래서 종종 잠정적인 구출을 뜻하는 데도 쓰였다(창14:13; 삼상14:45).
- 2) 우리의 구속자 주님을 통해 죄와 죽음에서 영적으로 구출되는 것(마1:21)이야 말로 이보다 훨씬 더 큰 구원이다. 구원은 이와 같은 영적 의미로 이해된다.
- 3) 구원은 구출뿐만 아니라 구출의 결과 즉 우리 주님의 왕국에서의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뜻하기도 한다(고후7:10; 엡1:13). '이 큰 구원'이라고 묘사되어 있다(히2:3).
- 4) 구원은 병이나 질병, 사고 등에서 구출되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마9:20-22; 약5:15)

c. 하나님은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신다. 참 믿음은 100% 신뢰하는 것이다.

(* 밑에서 자세히 설명함)

d. 하나님은 민족에 상관없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신다. '먼저'라는 말은 유대인들을 더 선호한다는 것이 아니며 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달되었다는 뜻이다(행1:8).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달된 구체적인 이유(행13:46)

- ①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요4:22).
- ② 그리스도는 1차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마1:21; 요1:12; 롬15:8).
- ③ 그들에게 성경 말씀이 맡겨졌다(롬3:1-2; 9:4).
- ④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 주시기 위해: 유대인은 늘 타락하고 배반한 백성

⑤ 하나님은 그들을 채널로 사용해서 구원자와 대언자들과 말씀을 이 땅에 보내셨다. 여기의 그리스인은 모든 이방인을 가리킨다.

① 복음은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②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야 한다(계22:17).

3.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음: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17).

a.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 죄로 인한 의(義)의 상실(롬3:10)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함, 종교 창시
우리의 의를 하나님의 의와 비교해야 한다.

사64:6; 벨후1:1-4; 고후5:21; 빌3:4-11

b. 사람의 문제의 해결책은 믿음이다. 복음을 믿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창15:6; 롬4:3).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합2:4; 롬1:17; 3:11; 히10:38)

1)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의 진리와 그 안에 들어 있는 사건들과 교리들을 인정하
고 동의하는 것이다.

2)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신실한 마음의 근원이 되며 삶에서 행위의 열매로
표출된다.

3)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이기고 의의 관을 얻는다(딤후4:7-8).

4) 믿음으로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은 놀라운 이적을 이루었다(히11:1-40).

5) 참된 믿음은 그것의 열매로 인하여 온 세상에 두루 알려진다(롬1:8).

6) 믿음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사랑처럼 반드시 어떤 대상을 향한 태도로서만 존재하므
로 믿음이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대상에 의해 결정된다.

7)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믿음의 대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8) 이 믿음을 통해 우리의 죄들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여겨 주신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는 의인이요, 죄인이다(딤후1:15).

9) 마르틴 루터와 요한 웨슬리는 ‘믿음으로’라는 말씀에 의해 변화를 받았다.

c. 믿음에서 믿음까지: 첫 성도부터 마지막 성도까지, 믿음 생활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히11
장)

로마서 강해 제4과

II. 죄와 정죄: 세상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함, 1:18-3:20

A. 사람들의 불경건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이유, 1:18-23
대부분의 현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하고 그분의 공의와 심판을 말하지 않음.

문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데(17)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18).

구원받기 전에 먼저 필요를 느껴야 한다: 의사에게 가는 것처럼

로마서 1-3장에서 바울의 복음 제시 방법:

좋은 소식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나쁜 소식을 전해서 좋은 소식의 필요를 느끼게 한다.

복음 제시의 두 길: (1)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개인의 이득 제시). (2) 당신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믿어야 삽니다(개인의 필요 제시). 둘째 방법이 맞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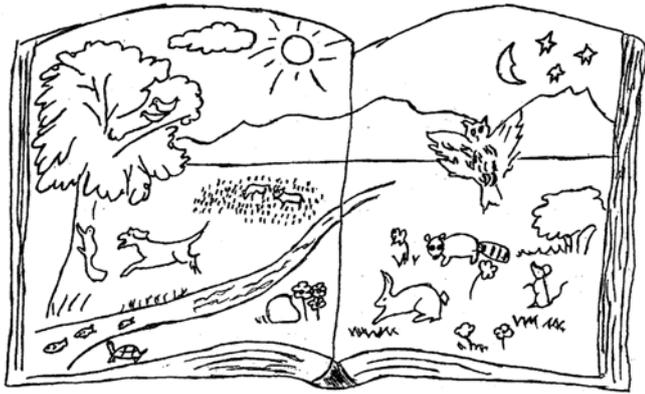
하나님의 진노: 진노는 단순히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숙고 끝에 확고하게 노하는 것, 감정이
아니라 생각에서 나오는 화, 하나님의 진노: 의롭고 공평하고 선하다.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

의 화(마3:7; 엡2:3; 살전1:9-10;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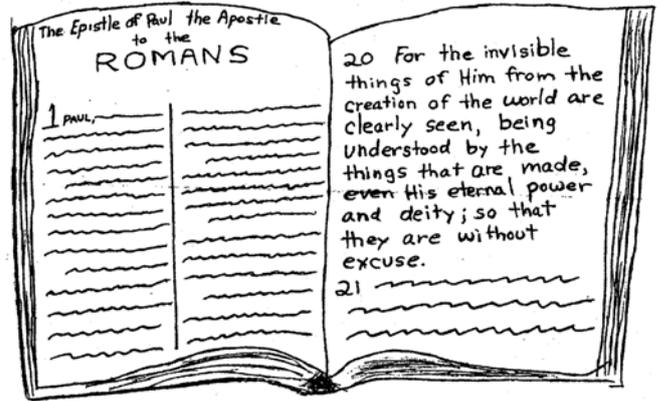
1.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불의한 자, 불경건한 자(18)
 - a. 하나님의 진노는 현실이다.
 - b. 하나님의 진노는 하늘에서 계시되었다(1:24-32).
 - c. 진노의 대상:
 - 1) 불경건한 자, ungodly: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순종하지 않고 그분처럼 행하지 않는 자, 거룩함과 의와 공평이 없는 자,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자
 - 2) 불의한 자: 사람들을 대적하는 자, 속이고 흠치고 남용/오용하고 파괴하는 자
 - 3) 이들의 특징: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둔다. 자연과 양심과 성경을 통해 진리를 알지만 진리를 억누른다(살후2:10). Jack-in-the-box 인형
2. 사람들 속의 증거(19): 양심과 생각과 이성, (1) 하나님을 알 수 있다, (2)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 드러나 있다, (3) 하나님이 보여 주셨다.
 - a.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이 있다(욥11:7). 그러나 하나님께로 인도될 수 있을 정도의 아는 것은 있다. 사람은 하나님을 느끼지만 그분께 가지 않는다.
 - b.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본능적인 지식은 대단히 강하다(히11:6). 그런데 사람을 그분을 알려 하지 않는다.
3. 사람들 밖의 증거: 창조 세상(20), 창조 세상은 하나님을 보여 준다. 사람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을 알 수 있다.



- 러쉬모어 국립 공원: 사우스다코다 주, 워싱턴, 제퍼슨, 링컨, 루스벨트 대통령, 머리만 각각 18미터, 처음 방문 (1) 우연히, (2) 자연의 힘에 의해, (3) 지적인 사람의 설계에 의해. 당연히 (3)이 맞다. 만든 사람은 지능, 지혜, 능력, 기술이 있다.
- a. 영원하신 권능: 해, 달, 별, 사람, 동물, 식물을 통해 사람은 지적 설계와 목적 그리고 규칙, 아름다움, 질서를 볼 수 있다. 모든 것이 창조되었음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생명, 아름다움, 위엄, 지성, 영광과 존귀, 지식, 에너지와 파워, 질서, 선함, 위대함, 신실함을 가진 분임을 알 수 있다(시19:1; 97:6).
 - b. 신격: 창조주의 신성, 설계하고 가꾸고 돌보고 생명을 주고 생명에 관심을 두시고 예배와 순종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 특히 하나님의 삼위일체 신격: 시간, 물체, 사람, 물질, 우주(지옥, 지구, 하늘), 행14:17
 - c. 그래서 아무도 변명할 수 없다.



BOOK 1 - CREATION



BOOK 2 - THE BIBLE

일반 계시

첫째 책, 시편19:1-6, 창조주의 일(창조 세상)

특별 계시

둘째 책, 시편19:7-11, 창조주의 말씀(성경)

첫째 책은 그림책이다. 둘째 책은 말이 있는 책이다. 모든 사람은 첫째 책은 보지만 둘째 책을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글을 모르는 사람도 읽을 수 있는 책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기록된 책은?

하늘들에 대해 알려주는 책은?(창1:1; 2:1), 하늘에 가는 길을 알려주는 책은?(요14:6)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여 주는 책은? 사람의 혼을 회심시킬 수 있는 책은?(시19:7)

결국 사라지고 말 책은?(마24:35) 결코 사라지지 않을 책은?

모든 과학자들이 읽는 책은? 소수의 과학자들만 읽는 책은?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는 책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는 책은?

(1) 사람들의 질문:

- a. 이교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아마존 정글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 b. 조선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2) 하나님의 대답

- a.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롬1:19-21).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들었다(롬10:14-18).
- b. 사람들은 들어야 한다(14절).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15절). 복음을 믿어야 한다(16-17). 18절은 모든 사람이 들었다고 말한다. (시19:1-4)
- c. 모든 사람은 첫째 책을 읽는다. 첫째 책은 구원에 이르게는 못하지만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20). 첫째 책을 거절하는 사람에게 둘째 책을 주실 의무는 없다.
- d.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신다(요1:9).
- e. 반응하면 더 큰 빛을 주시고 선포자를 보낸다(렘29:13; 히11:6).

4.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죄(21)

- a. 하나님을 안다: 인류 역사는 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지식을 버렸다.
- b.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음(시29:2)
- b. 감사하지 않음(행17:28)
- c. 상상 속에서 허망해짐(창6:5-6),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에서 몰아내면 다른 것이 빈 공간을

채운다(고후4:4; 엡4:18; 딤후3:7).

5. 사람은 교만하여 타락함(22-23), 어리석은 자가 됨(시14:1).

- a. 하나님 대신 무엇인가를 상상하여 만듦: 규칙, 법칙, 종교, 신, 우상(렘7:17-18)
- b. 썩지 않는 것을 썩을 것으로 대체함: 사람이나 각종 우상(행17:29)
- c. 진리, 공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논쟁하신다(호4:1).

B. 사람들의 불경건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방법, 1:24-32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심판이 있다. 세 번의 내주심(24, 26, 28).

1. 사람들이 자기들 뜻대로 하게 내주심(24). 하나님의 참으심에 한계가 있다.

내주시는 이유

a.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죄를 택한다.

- 1) 죄의 종이 된다. 죄가 죄를 더한다.
- 2) 죄는 항상 거짓을 가져온다. 죄는 잘될 것 같은데 결국 사람을 망친다.
- 3) 한 사람의 죄는 다른 사람을 파멸로 이끈다.

b.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린다. 사람의 자유의지(시81:12; 행7:42)

2. 사람들을 부정함에 내주심(24-25), 부정함: 더러운 것, 비도적적인 것, 오염된 것

- a. 이유: 사람 마음속의 정욕(갈망, 욕망), 마7:20-23
- b. 결과: 진리를 버리고 우상숭배, 창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25)
 - 1) 살후2:10-11

3. 사람들을 더럽고 본성에 어긋나는 애정에 내주심(26-27)

- a. 이유: 그들의 정욕
- b. 결과: 남자와 여자의 동성애, 이들에 대한 심판: 몸속에 받음
- c. 결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막10:6-8), 동성애 경고(레18:22; 20:13),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도 그리스도께서 고칠 수 있다(고전6:9-11).

4. 사람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심(28-31): 타락한 생각, 부패한 생각

- a. 이유: 사람들이 생각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
하버드 대학 교수, 노벨상 수상(1967), 왈드의 고백: '나는 불가능한 것을 믿는다.'

생명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오직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 가지 가능성은 자발적인 발생 곧 진화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행위이다. 세 번째 가능성은 없다. 그런데 자발적인 발생론 즉 진화론은 이미 120년 전에 파스퇴르와 다른 과학자들에 의해 거짓으로 탄로가 났고 그래서 불신임을 받았다. 이로써 우리에게 한 가지 논리적인 귀결 즉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행위로 생명이 발생했다는 결론만 남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철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결론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아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믿기로 작정을 했다.

b. 결과: 합당하지 않은 일들을 자연스럽게 행함(갈5:19-21)

c. 가장 상세한 죄들의 명단(29-31), 본성의 애정이 없는 자(31)

5. 사망이라는 최종 심판이 있을 확증하심(32)

- a. 자기도 악한 일을 하고 악한 일하는 자들을 기뻐함(말2:17)
- b. 사람은 변명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한다(롬6:23; 약1:15)
- c. 미개인도 하나님의 심판을 안다: 행28:1-4의 미개인들

로마서 강해 제5과

II. 죄와 정죄: 세상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함, 1:18-3:20

C. 도덕주의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2:1-16

2장의 핵심 단어: 심판하다(judge), 심판(judgment)

도덕주의자(1):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사람, 부처나 공자 소크라테스, 마더 테레사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므로 그들을 판단함.

1장의 이교도: 죄악을 인정하고 박수를 칩(32), 도덕주의자: 죄악을 반대하고 판단함

a. 다른 사람을 판단함: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자기를 높이고 남을 낮추는 것이다(마7:1).

b. 그도 같은 일을 행하므로 변명할 수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는 마음과 생각의 문제(마7:3)

<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 >

하나님은 창조자, 창조자, maker, 디자이너는 반드시 심판(판단)함

1.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의롭게 이루어진다(2).

여기의 진리는 '공평하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따라'를 의미함(삼상16:7; 렘17:9-10).

세상의 판사는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만 하나님은 속중심을 보신다(히4:12-13).

2.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3). 암9:1-3

3. 사람은 하나님을 피하지 말고 그분께로 가야 한다(4).

선하심: 친절, 관대하심: 심판을 연기하심, 오래 참으심: 노하기를 더디 하심

하나님은 회개를 가장 사랑하신다. 그런데 사람은 회개를 잘 안한다(계9:20-21).

4. 불경건한 자를 위한 최후 심판의 날이 있다(5). 행17:30-31; 벨후3:7

마음의 강박함은 하나님을 거부할수록 더 커진다(출애굽기의 파라오).

5.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무결하게 의롭다(5). 창18:25; 롬9:14

6.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다(6): 각 사람이 자기 것을 그대로 받는다.

행위대로, 행위는 믿음에 따른 결과이다(계20:12; 22:12).

7.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를 벌하시고 선을 행하는 자를 보상하신다(7-10).

유대인들에게 먼저 심판이 떨어지는 이유(눅12:48)

심판에도 등급이 있다: 빛의 양에 따라

a. 선을 행하는 자(7, 10절): 참고 꾸준히 잘 행한다. 영광(하나님의 본성), 존귀(칭찬), 죽지 아니함(둘째 사망이 주장하지 못한다)으로 갚으심.

b. 악을 행하는 자(8, 9절): 논쟁, 진리 배격, 불의에 순종함, 격노와 진노로 갚으심.

8.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의 외모와 상관없이 이루어진다(11).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는 것을 미워하신다(약2:1-9).

9. 하나님의 심판에는 편파성이 없다(12).

심판할 때 하나님은 유대인,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는다.

a. 율법 밖에 있는 자들(이방인), 율법 안에 있는 자들(유대인)

율법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주어졌다(출19:3-5; 신4:1-8, BC 1491년).

1) 율법을 모르는 것이 이방인을 구원하지 않는다.

2) 율법을 가진 것이 유대인을 구원하지 않는다.

10. 모든 사람은 각자에게 주어진 빛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12-15).

유대인은 율법에 의해, 이방인은 그에게 주어진 빛에 의해(15절)

13-15절은 부가 설명의 괄호, 12절에서 16절로 바로 뛰어 넘어도 된다.

- a. 13절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됨.
 율법을 가지고 있거나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됨.
 완벽히 행하고 지켜야 의롭게 된다(약2:10).
 - b.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되는가?
 그렇다(롬10:5; 레18:5; 겔20:21). 예수님의 증언(마19:16-19)
 그런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갈3:10-13).
 그러므로 모든 유대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 c. 14-15절은 이방인들에게 해당됨
 이들은 돌 판에 새긴 율법은 없으나 마음 판에 새긴 법이 있다: 양심
 아비멜렉(창26:6-11)
 이방인들도 양심(창조 세계 1:18-20)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11. 심판의 날이 있다(히9:27; 행17:30-31)
 12. 어떤 것도 심판하시는 분에게 숨길 수 없다(16). 히4:12-13, 계20:12
 13. 심판은 복음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루어진다(16).
 바울의 복음은 심판을 포함한다(행17:31).
- 결론: 유대인도 이방인도 자기가 받은 빛에 의거하여 심판을 받는다.

로마서 강해 제6과

〈 행위 구원인가? 〉 7-10절

7-10절을 보면 선한 일을 행하면 영생을 얻고 악한 일을 행하면 형벌을 얻는 것처럼 보인다.
(*)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선을 행한 것이며 데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악을 행한 것이다.

믿는 것 자체가 선을 행하는 것이다.

구원: 믿음으로(요3:16; 행16:30-31), 영생은 거저 얻는 선물(롬6:23; 엡2:8-9)

행위로는 구원 받지 못한다(롬3:28).

선한 사람이 있는가?(롬3:10, 12), 극적인 예: 예수님 옆의 강도(눅23:42-43)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들이 의롭다고 선고를 받아 천국에 간다.

롬2:7-10은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고 심판을 이야기한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벌하시고 의로운 자를 보상해 주시는 것만을 다룬다.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요5:29)

1) 선을 행하는 자(7, 10절)

2) 악을 행하는 자(8, 9절)

사람은 기본적으로 선을 행할 수 없다(롬3:12). 우리의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다(사64:6).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모든 사람이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

사람이 보기에 깨끗한 것 같아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다 악을 행한다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빌2:13).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사시기 때문이다(갈2:20). 그래서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다(엡2:10). 그 새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요일3:6; 9)

D. 종교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특히 유대인), 2:17-29

핵심 단어: 율법

종교인: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 유대인(17): 아브라함의 자손(마3:8-9), 이방인 개돼지 취급

1. 종교인들은 믿음이 있다고 공표한다(17-20).

a. 율법에 안주한다(17). 지금 식으로 말하면 성경을 소유하고 읽고 가지고 다닌다.

b. 하나님을 자랑한다(17). 내 신이 최고라고 자랑한다. 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한다(10:2-4).

c. 율법에서 가르침을 받는다(18). 성경 공부

d. 하나님의 뜻을 안다(18). 그런데 아는 데서 행하는 데로 가지 못한다.

e. 더 뛰어난 것들을 인정한다(18). 단순한 선과 악 이외의 더 깊은 진리를 안다.

f. 눈먼 자들의 안내자(19), 사람들의 모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자

g. 어둠에 있는 자들을 이끄는 빛(19), 계3:17

h.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틀을 갖추었다(20). 틀: 외적인 종교 형식(옷, 음식,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등)

i.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20)

j. 미성숙한 자들의 교사(20)

2. 종교인들은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한다(21-24). 위선자

- a.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 b. 네가 도둑질하느냐?(출20:15; 엡4:28)
 - c. 네가 간음하느냐?(마5:27-28)
 - d. 신전 물건을 훔치느냐?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취해 다른 용도로 쓰느냐?(말1:13)
 - e.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23), 유대인들은 좋은 증인이 아니라 나쁜 증인이다.
 - g.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바로 그분, 여호와(출20:7). 사52:5; 겔36:21-23
3. 종교인들은 종교 행위(할례)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25-27).
 무할례자: 이방인
- a. 유대인들은 “할례 받으면 지옥에는 안 간다.”고 할 정도로 할례 받았다는 자부심이 컸다.
 - b. 할례는 밖으로 드러난 종교 의식(롬4:11)
 - c. 원래 내적인 변화에 대한 외적인 표시를 뜻했으나 이제는 외적인 것만 나타나게 되었다.
 - d. 지금의 예: 침례 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구원받았는데 침례 받지 않은 사람
 - e. 원래 둘 다가 있으면 좋지만 하나만 취하라고 하면 실체(내적인 것)를 취해야 한다.
4. 종교인들은 참 종교가 내적인 의에 달려 있음을 모른다(28-29).
- a. 속과 겉, 마음과 육체, 영과 글자, 하나님과 사람의 대조
 - b. 마음의 할례(신10:16; 렘4:4; 9:25-26)
 - c. 이들에 대한 칭찬은 사람들에게서 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난다.
 - d. 유대인, 유다에게서 나온 사람, 유다(창49:8).
5. 구원받은 이방인은 유대인인가? No! (갈3:26-29; 6:15-16)
- a. 성경에서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다.

총결론: 이방인(이교도), 도덕주의자, 종교인(유대인)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1:18-2:29).

II. 죄와 정죄: 세상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함, 1:18-3:20

E. 종교인들의 주장, 3:1-8(2:23-29 비교)

1. 유대인의 장점은 무엇이나(1-2)?

유대인: 율법, 할례, 아브라함의 자손

율법, 할례, 아브라함의 자손이 도움이 안 된다(2:13, 25, 28-29). 모태 신앙 no good

유대인의 장점은 무엇이나?

여러 면에서 많다(롬9:4-5). 여기서는 특별히 말씀들을 맡았다는 것 강조(신4:7-8, 시 12:6-7; 147:19-20).

성경을 가졌다는 것은 큰 장점이다.

여기의 말씀들은 영어로 ‘oracles’이다(행7:38; 히5:12; 벧전4:11).

oracle은 왕상6:16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개역성경의 지성소)이다.

로마서 강해 제7과

2. 불신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가?(3-4)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창15:6 등)

유대인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 물론 이들은 정죄를 받는다.

이런 사실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가 되고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가?

그럴 수 없다(God forbid).

사람의 불신과 불신실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약속들은 그대로 유지된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모든 사람이 진화론을 믿어도 하나님의 창조는 그대로 유지된다.

시51:4 인용

하나님은 말씀하신 모든 것에서 정당함을 인정받으며 판단 받을 때(판단할 때 시51:41) 항상 승리하신다.

다윗: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 하나

그런데 그는 간음하고 살인한 자였다. 그의 고백: “저는 틀리고 하나님은 옳습니다.”

다윗이 이러할진대 다른 유대인들은 말할 필요도 없다.

3. 하나님이 복수하시면 의롭지 못한가?(5-8)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의롭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사람의 불의는 하나님의 의를 더 잘 보이게 만든다. 깨끗한 차와 더러운 차 비교

나의 죄와 불신으로 인해 하나님은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시고 공의를 보이신다.

그러므로 내 죄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가? 이로써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성취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벌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더 잘 드러낸 나를 벌한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시다.

그럴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셨으니 우리는 그분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3:7도 같은 논리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와 사악함과 진노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름에 영광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

(시76:10): 구체적으로 로마 제국의 교회 핍박

이집트의 파라오: “제가 하나님께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저로 인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권능과 기적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럴 수도 있지만 이로 인해 사람이 심판을 면제받지는 않는다.

바울에 대한 비방: “선이 나오도록 우리가 악을 행하자.”

바울의 복음: 사람은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왜곡하면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니 우리가 더 죄를 짓자(롬6:1-2)”가 됨(딤후 2:11-2).

결과만 좋으면 수단은 상관없다. 다말의 예; 유다와 베레스와 세라

바울은 이런 사상이 옳지 않다고 단호히 정죄한다.

공산주의자들: 사상을 파급하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거짓말, 속임수, 살인

학생의 경우: “이번에 커닝을 합니다. 시험을 통과하여 좋은 의사가 되면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F.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3:9-20

이 구절들을 통해 바울 사도는 사람들에게 정죄가 아니라 소망을 주려 한다.

1. 고소: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9).
 - a. 사도는 1,2장을 통해 살펴본 대로 자신을 포함한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 죄 아래 있음을 선포한다. 1:21-32와 2장 전체
 - 1) 몇 사람이나 죄인인가? 모든 사람(3:9, 12, 19, 23)
 - 2) 의로운 사람은 몇 명인가? 하나도 없다(3:1-12).
2. 상세한 고소장(10-18): 10-18절에서 사도는 구약성경을 인용한다. 구약성경 역시 사람의 타락을 잘 보여 준다.
 - a. 의로운 자는 단 하나도 없다(10, 시14:1-3): 전체 결론, 하나님의 관점, 현미경 손 검사
 - b. 깨닫는 자가 없다(11, 고전2:14). 영적인 소경
 - c.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11). 타락한 상태에서 사람은 자연스레 하나님을 떠난다. 아담과 하나님, 누가 찾는가? 하나님이 먼저 그리스도를 마련하시고 사람을 찾는다(롬 5:6-10; 엡2:1-5).
 - d. 길에서 벗어나(12, 사53:6)
 - e.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13) 죽은 것으로 가득함, 속임수로 가득함, 독사의 독
 - f.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함(14, 마12:34-35)
 - g. 살인자(15)
 - h. 파멸과 고통(16)
 - i. 화평의 길을 모름(17), 가인과 아벨, 인류 역사: 전쟁의 역사
 지난 4000년 동안의 역사: 8000개의 평화 조약, 286년의 평화 기간
 지난 300년 동안의 유럽 역사: 286개의 전쟁
 - j.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18). 가장 근본적인 이유(시36:1), 잠1:7; 9:10

로마서 강해 제6과

3. 판결(19-20)

- a. 9-18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인데 이 율법은 곧 구약성경을 뜻함.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존중하는 구약이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음을 말함으로 유대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든다.
- b. 그래서 모든 입을 막아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다: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다.
- c.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이다.
- d. 율법은 어떤 육체도 의롭게 하지 못한다(갈2:16).
- e. 율법은 사람이 죄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거울과 같다, 약1:23).
- f. 율법은 훈육교사(갈3:24)
- g. 율법의 형성 목적(딤후1:6-10)
- f. 예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 두 가지 방법: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눅18:9-14)
교만한 자(마19:16-21), 겸손한 자(요8:1-11)

III. 믿음과 칭의: 세상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방법, 3:21-5:21

A. 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길, 3:21-26

성경의 의는 세 종류를 뜻한다.

1. 하나님의 성품: 의로움, 공평함, 완전함 등
2. 하나님의 성품에서 벗어난 사람의 상태를 대비해 보여 주는 말(롬3:23)
3.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제공해 주시는 완전함(고후5:21; 빌3:9)

1. '이제는' 의가 계시됨(21-22).

'이제'라는 말은 전환점을 뜻한다. 지금까지 사도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율법과 양심과 창조 세상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나쁜 소식'을 전했지만 이제는 '좋은 소식'을 전하려 한다. 그것은 사람이 값없이 의롭게 되는 '칭의'이다.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여기의 '이제'는 엡2:11-13; 고전15:16-20과 비교해 보라).

핵심 단어: 의, 의롭게 되다

핵심 내용: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불의한 죄인을 구원하시면서도 의로운 상태로 남을 수 있는가?(26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씀(1:17) 이후에 처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율법 밖에 있는 의: 율법과 상관이 없다(21).

율법은 복종을 요구하며 율법을 어기면 범법자가 된다.

율법은 사람을 복종하게 만들 능력이 없다: 그러므로 율법 말고 다른 방법이라야 가능하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의는 구약시대 대언자들과 율법에 의해 예고되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사례(4장)

율법의 증거(창15:6; 신30:12-14), 대언자들의 증거(사53:11; 렘23:5-6)

2. 의는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22).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 주어진다. 그분에게서 오는 믿음, 그분에게 속한 믿음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났다: 죄 없는 완전한 삶, 그분은 하나님의 의를 몸소 구현한 분이다(10:4).

믿는 자에게만 주어진다. 보편적 구원 No!

3.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23).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 마리아 포함

사53:6; 왕상8:46; 요7:19

죄: 과녁을 비껴 나간 것,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

농구 코치의 기준: 선수는 1m 80cm, 이것에 미치지 못하면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과녁을 벗어난 것이다. 성경적으로는 죄가 된다.

하나님의 기준 과녁: 하나님의 영광(거룩함, 의로움, 사랑, 선하심, 진리, 친절, 신실함 등)
우리는 그리스도와 비교해 보면 얼마나 부족한지 알 수 있다.

7 곱하기 7은 49여야 한다. 40이나 48이나 다 틀린다.

3. 의는 오직 칭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24).

칭의: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 법률 용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 옷 입어서 의롭게 됨(요일3:7, 9)

칭의는 용서보다 더 크다.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경우: 용서할 수는 있어도 의롭게 하지는 못한다.

과거에 죄를 안 지은 것처럼, 미래에도 죄를 안 지을 것처럼 여겨 주는 것

롤스로이스 자동차 예

즉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보시는 것

값없이: freely, 아무 이유 없이, 선물로(계22:17)

은혜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친절과 사랑(엡2:7; 딤후3:4)

은혜로 무엇을 주시는가? 용서, 영생, 천국 등

공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지 않는 것: 진노, 심판, 영벌, 불 호수 등

구속(redemption): 값을 치르고 속박에서 죄에서 건져내는 것, 무르는 것, 로마 시대의 노예 시장

그리스도의 구속(벧전1:18-19)

우리의 구원은 거저지만 그것을 얻기 위한 희생은 무한한 값을 가진다.

칭의의 네 요소

(1) 은혜로(롬3:24): 원천

(2) 피로(롬5:9): 근거

(3) 믿음으로(롬3:28): 통로

(4) 행위로(약2:24): 외적 증거

로마서 강해 제9과

----- 칭의와 전가(imputation)와 대신속죄 개념 정리 -----

왜 이 개념들이 필요한가?

타락 이후로 사람의 죄 문제

고후5:18-20, 화목하라...(reconcile), 화해시키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불의한 죄인을 구원하시면서도 의로운 상태로 남을 수 있는가?(26절)

그 대답이 롬3:25에 있고 고후5:21에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고후5:21, 화해의 주관자, 대리자, 수혜자, 혜택

1. 주관자: 하나님이 계획하고 실행하고 결실을 맺으신다. 온 우주 공간에 다른 이는 없다.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다가오신다.

세상의 종교들은 하나님을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만 여기게 한다.

죄인들은 받아주지 않는 존재, 그래서 그 존재를 화나지 않게 하려고 종교 행위를 함.

성경의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신다(요3:16; 딤후1:15). 그들의 비참한 상태를 아신다.

화목을 완성하려면 죽음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므로 죄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죄를 짓는 혼은 죽을 수밖에 없다(겔18:20; 롬6:23). 에덴동산에서부터 이 일이 수행됨.

죄인을 위해 대신속죄가 나옴

죄 없는 누군가가(혹은 무엇인가) 죄 지은 사람을 위해 죽어야 한다. 구약의 희생 제사

2. 대리자: 죄가 없는 분이라야 한다. 짐승 제물은 완전하지 못하다. 천사는 죽지 않는다.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러므로 유일한 대안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이다(갈4:4-5).

3. 수혜자: 우리 믿는 성도들

4. 혜택: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됨

전가(轉嫁): 잘못이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김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로 전가하는 것(빌3:9)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로 전가하는 것

이 일이 단 번에 십자가에서 일어났다.

4. 의는 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행위이다(25).

화해 헌물: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뜻한다(요일4:10).

이 말은 구약시대에는 '궁휼의 자리'(mercy seat)로 쓰였다.

지성소의 언약궤를 덮는 금 뚜껑(양쪽에 그룹): 궤 안에는 율법이 들어 있다(출25:21).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다(롬7:12).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

“율법을 어기면 즉 죄를 지으면 형벌이 있고 반드시 형벌의 값을 지불해야 한다. 그것은 곧 사망이다(롬6:23). 하나님의 의는 이 값이 전액 지불되기 전에는 만족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죄 값이 전액 지불되었다(요19:30; 요일2:2).

매년 1회 대제사장은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궁휼의 자리에 뿌린다(레16:14-15; 히9:3-7).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한자 '義' 설명

“형벌의 값이 전액 치러졌다. 대신 속죄물이 죽었고 의가 만족되었다. 법을 범한 자를 심판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은 그에게 값없이 궁휼을 베푸신다.”

예수님의 대속에 의해 이제 하나님의 공의는 100% 완전히 만족되었다. 더 이상 희생 예물이 필요 없다.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어린양이 죽었어도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뿌려야 한다(출 12:7). 그 피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모두가 구원받지는 않는다.

자신의 의를 보인다: 십자가에서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그냥 볼 수 없음을 모두에게 보임 창조부터 십자가까지(구약시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을 통해 성도들의 죄들을 사면해 주셨다. 죄들을 덮어 주셨으나 완전한 속죄는 이루어주시지 않았다(히10:3-4).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희생 예물을 드릴 때까지 오랫동안 참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자신의 의를 드러내셨다(히9:15).

구약시대의 죄 값은 수표로 지급이 되었다. 십자가 이후에는 현금으로 지급이 된다.

구약 시대의 의인들은 하나님의 신용에 의해 지하의 낙원에서 기다리다가 예수님의 부활 때에 처처가 옮겨졌다. 십자가에서 아담 이후로 십자가까지의 모든 죄가 처벌을 받았다.

5.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데 목적이 있다(26).

어떻게 하나님이 의로움을 유지하시면서 동시에 죄인을 의롭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죽게 함으로써 완전한 공의를 이루시고 동시에 사랑을 통해 그분을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신다.

칭의는 오직 믿는 자에게만 주어진다.

B. 믿음: 사람의 자랑과 교만 그리고 자기 의와 행위를 종결시키는 길, 3:27-31

1. 믿음은 자랑을 배제한다(27).

구원에 관한 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엡2:8-9).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2. 믿음은 율법의 행위 없이 사람을 의롭게 한다(28).

야고보서와는 충돌이 없다.

행위: 구원받기 전의 행위와 구원 받은 이후의 행위(엡2:8-10)

바울의 구원 교리: 구원받기 전의 행위는 구원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바울의 성화 교리: 구원받은 이후의 행위는 사람들 앞에서 구원받은 증거이다(빌2:11-12; 딤후3:8).

야고보서의 초점: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아브라함은 믿을 때에 의롭게 되었다(하나님 앞에서).

이삭을 바칠 때에 행위로 그의 믿음이 정당화되었다(사람들 앞에서).

3. 믿음은 한 하나님을 드러낸다(29-30).

하나님의 복음은 한 민족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만들었고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고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4. 믿음은 율법을 굳게 세운다(31).

율법의 목적: 죄를 알리는 것, 정죄하는 것(롬3:20)

율법이 할 수 있는 것(롬3:20; 7:7-14), 율법이 할 수 없는 것(롬8:3; 갈2:16)

복음과 율법은 각각 다른 직무가 있다.

복음이 율법의 직무(정죄)를 하게 하거나 율법이 복음의 직무(구원)를 하게 하면 문제가 생긴다.

복음은 율법의 직무를 약화시키지 않는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다(갈3:24-25).

율법주의는 경계의 대상이다.

로마서 강해 제1과

로마서 4장

개요: 칭의의 설명, 4장의 핵심 단어는 믿음(Faith)과 믿다(Believe)이다(3, 5, 11-14, 16, 18-20, 24절). 칭의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 어떻게 아는가? 구약이 증명한다(아브라함과 다윗).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 사람, 다윗은 율법 이후 사람

1절: 유대인들의 질문: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의 의를 얻었는가? 무엇을 발견하였는가?) 육체에 관한 한 우리 조상: 수신자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임을 보여 준다.

2절: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있다.

그런데 구원에는 행위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엡2:8-9).

성도들의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전1:29,31; 렘9:24)

어떤 죄인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이다.

3절: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 모슬렘들의 조상(이스마엘),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조상 이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는 대단히 중요하다. 행위로냐 혹은 믿음으로냐?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행위를 요구한다. 기독교만 예외이다.

아브라함의 뜻: 많은 자(민족)들의 아버지, 원래 이름 아브람: 높여진 아버지

출생: 갈대아의 우르, 노아의 아들 셈의 9대손, 데라의 아들

하란에서 떠남: 75세(창12:4), 아버지 집과 분리함, 아브라함 언약(12:1-4): 민족, 복, 땅의 모든 가족들이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음

언약에 대한 환상(15장): 씨에 대한 약속, 아브라함의 믿음(창15:6), 하나님의 언약 확인, 아브라함의 씨가 가나안을 떠났다가 400년 만에 다시 돌아옴.

이스마엘 출생: 가나안에 거한 지 10년이 지나도 아이를 얻지 못함(창16:3). 풍습에 따라 하녀를 얻어 아들을 얻음, 86세(창16:16)

이름의 변화: 아브람이 99세일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심(창17:1-8), 사래에서 사라로

할례의 표: 언약의 표로 할례를 받음(창17:9-27).

100세에 이삭을 낳음(21장)

“성경 기록이 무어라 말하느냐?": 성경이 믿음과 실행의 모든 문제에서 최종 권위이다.

교회, 목사, 교황, 대통령...: 모두 소용없다.

창15:6, 하나님을 믿음, 다른 행위는 전혀 없었음. 믿는 것은 행위가 아니다.

엡2:8-9, 은혜로 믿음을 통해

믿음과 믿음의 내용

1. 사람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는가?

하나님을(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 모든 세대를 통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

2. 사람은 무엇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가?

하나님의 계시는 시대마다 다르고 점진적으로 더 많은 것이 계시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을 믿음으로 여겨주셨다(고후5:21).

‘여기다’(count)는 그의 계좌에 넣었다는 뜻이다. 이 말은 reckon(4, 9-10), impute(6, 8, 11, 21-24) 등에서 11번 사용됨.

4절: 일하는 자와 품삯의 관계, 은혜가 아니다. 보수로 받으면 자랑할 것이 있다.

5절: 일을 안 해도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경건치 아니한 자(ungodly): 하나님의 성품과 배치되는 사람

성경의 하나님은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신다. 이유: 모두 죄인이다.

기독교의 구원은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지 않고 믿는 데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해야 한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Do'를 요구하나 우리는 'Done'을 믿는다(요19:30).

6절: 율법 시대 사람 다윗의 예

하나님이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 인정한다는 말은 전가(轉嫁)이다.

성경의 3가지 전가(轉嫁)

1.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다(롬5:12).
2. 사람의 죄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분께 전가되었다(고후5:21).
3.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전가되었다(롬4:6; 고후5:21).

6-8절: 율법 시대의 다윗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율법을 지킴으로 아니면 믿음으로?

실제로 다윗은 율법을 범한 사람이다(삼하11).

다윗도 아브라함처럼 동일하게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바울은 시32:1-2를 인용한다. 밋세바 사건 이후에 기록된 시편(51편과 함께)

다윗의 죄: 간음과 살인에는 희생물이 필요없다(시51:16).

칭의에는 용서에 대한 진리가 포함된다.

불법들은 용서를 받는다.

죄들은 가려진다.

주님께서 죄를 인정(전가)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복은 바로 이것이다.

죄들의 용서를 받아(요1:29)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

이런 용서는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다(엡1:7).

9-10절: 아브라함과 다윗은 유대인들의 조상, 가장 훌륭한 왕

그러면 이런 복된 일(의가 전가되는 것)이 유대인에게만 임하는가?

창15:6은 언제 일어났는가? 그가 이방인이었을 때인가? 유대인이었을 때인가?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할례이다. 즉 그의 칭의는 할례 이전이냐, 이후냐?

할례는 99세, 칭의는 76-86세 사이의 어느 시점, 칭의는 할례와 상관없다.

여기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자랑을 완전히 뒤집어엎음.

“이방인들은 구원받기 위해 유대인들의 할례를 의지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구원받기 위해 이방인들의 믿음을 의지해야 한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 당시에 이방인이었다.”

11-12절: 할례는 표적이요, 봉인이다.

표적: 무엇을 가리키는 것, 할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리킨다.

봉인: 편지가 진짜임을 알리기 위해 붙이는 것,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임을 보여 준다.

믿음이 먼저인가, 할례가 먼저인가? 당연히 믿음이 먼저이다.

침례도 마찬가지이다. 먼저 믿음이 있어야 한다.

아브라함은 믿는 모든 자들(이방인, 유대인)의 조상

불신 유대인에게는 단지 육신의 조상(12절)

눅16:19-31, 아브라함의 품(나사로와 같은 신자들만 간다). 부자와 같은 불신자는 유대인이라도 못 간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가?(히11:8-10).

로마서 강해 제11과

로마서 4장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러면 그가 받은 약속은 어떤가?

13절: 세상의 상속자(창17:4-6; 롬8:17)가 된다는 약속, 구약에는 이 구절이 없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 약속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아브라함 언약

원래 12:1-4에서 주어졌고 13:14-17, 15:1-7, 17:1-8에서 재확인됨.

아브라함과 그의 씨(후손들)에게 주어짐

(1) 땅: 이집트 가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창13:14-15, 17; 창15:7; 18; 17:8)

(2) 민족(창13:16; 창15:5; 17:4; 렘31:35-37)

(3) 복을 받는다(창13:14-18)

(4) 이름이 크게 된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5) 복이 된다.

(6)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들은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신30:7; 미 5:7-9; 스킨14:1-3; 겔26:2-3)

(7) 아브라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음(창12:3; 17:5)

14절: 율법은 꾸준히 행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의를 소유하지 못한다.

율법에 속한 자들이 의롭게 된다면 믿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의가 된다. 그러면 그 약속은 무효가 된다.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에 상속자가 되었다!

15절: 율법은 오직 저주만을 만든다(갈3:10).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범한다. 그러면 진노가 임한다. 물론 100% 지키면 의를 얻을 수 있지만(눅10:28) 이것은 불가능하다.

율법 ⇄ 범법 ⇄ 진노, 징죄, 사망

베드로의 고백(행15:9-11), 예수님의 지적(요7:19)

16절: '그것'은 '하나님의 상속물을 얻는 것' 혹은 상속 행위

그 약속이 율법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유대인들만 혜택을 본다.

그러나 그 약속은 은혜로 이루어지므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음을 가진 자들만 소유할 수 있다.

"율법에 의한 칭의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 사람은 실패한다."

"은혜에 의한 칭의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확고하다(sure), 확실하다.

17절: 창17:5 인용, '삼을 것이기 때문이다'(미래)가 아니라 '삼았기 때문이다'(과거).

이 말씀이 주어질 때 이삭은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았다.

아브라함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즉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두었다(출3:14; 히11:6).

이 하나님은 두 가지를 행하신다: 자신의 능력을 보여 주시기 위해

1.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사라의 태(롬4:19; 히11:11-12; 17-19; 엡2:1, 5).

2.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이삭이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그가 존재한 것처럼 그에 대해 약속하심(민족들도 마찬가지), 사46:9-11; 45:1의 고레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즉 말씀에 근거를 두었다. 믿음의 대상이 가장 중요하다.

18절: 아브라함이 사라를 보면 아무 소망이 없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렘32:27).

19절: 그들의 나이(100세, 90세)를 보면(창17:17)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었다(히11:11-12).

죽었다는 것의 의미

20절: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졌다. 불신은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요일5:10).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21절: 믿음의 정의(행27:25)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말씀 보존(시12:6-7; 마24:35)

22절: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것이 믿음으로 되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의를 얻었고(4:3, 5) 믿음으로 성속 유업을 얻었고(4:13), 믿음으로 자손을 얻었다(4:17-19). 인간의 노력은 하나도 없었다.

23-24절: 믿음의 적용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 시대에는 어떻게 일하시는가? 여전히 ‘믿음을 통해 은혜로’ 일하신다(엡 2:8-9).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전 역사를 통해 단 하나이다(롬1:17). 리크맨주의 No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엡2:1).

단 하나의 차이: ‘십자가 사건 전이나, 후냐’(신용이나, 현금이나), 동일한 믿음

아브라함은 “네 씨가 하늘의 별들같이 많게 되리라”는 말씀을 믿음(창(15:5).

우리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을 믿음(24절, 롬10:9, 요5:23-24) 이삭을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건지셨다(히11:19).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

25절: 복음의 정의

복음에는 두 가지가 포함된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고전15:1-4).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 넘겨지시고(롬8:32) 다시 부활하신다(24절).

죽은 이유: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부활하신 이유: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복음에는 부정적인 요소(죄 문제)와 긍정적인 요소(새 생명)가 들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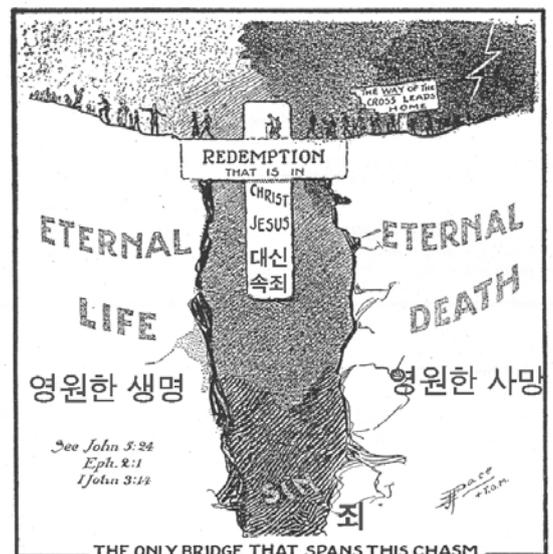
부활이 없다면 구원도 칭의도 용서도 소용없다(고전15:17).

그러므로 복음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죽음)와 부활이 포함되어야 한다.

바로 이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고 완벽함을 얻는다(고전1:30; 고후5:21).

칭의의 10가지 요소

1. 칭의의 필요성(롬3:10)
2. 칭의의 의미: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 반대: 정죄
3. 칭의의 문제점: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동시에 죄인들을 의롭게 하실 수 있는가?(롬3:26)
4. 칭의의 근거: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그분의 피(롬5:9)
5. 칭의의 원천: 하나님의 은혜(롬3:24)
6. 칭의의 통로: 믿음(3:28)
7. 칭의의 예: 아브라함(창15:6; 롬4; 약2)
8. 칭의의 결과: 하나님의 의가 내 계좌로 들어옴(롬4:3-5).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의로움, 하나님과의 화평을 얻음(롬5:1)
9. 칭의의 증거: 행위로 드러난다(엡2:10; 약2:14-22).
10. 칭의의 미래: 영화로움(롬8:30; 빌3:20-21)



로마서 강해 제1과

로마서 5장

5장 1-11절에서 바울은 칭의의 효과(혜택)를 설명하려 한다.

바울은 먼저 1-4장에서 칭의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그리고 5장에 효과가 나온다.

복음 전도에도 같은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필요성 그리고 효과

(a) 칭의의 필요성(모든 사람이 죄인, 1-3장), (b) 칭의의 방법: 은혜로 믿음을 통해(3:24-28)

(c) 칭의의 예: 아브라함(4장)

1절: 칭의의 효과

(a) 하나님과의 화평(1), (b) 은혜 안에 들어감(2), (c) 속죄(11)

이런 결과로 인해 우리는 기뻐한다(2, 3, 11).

어떤 이들은 구원 받은 이후에 둘째 축복이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1. 칭의의 혜택(효과)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5:1).

2.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 복으로 복을 받았다(엡1:3).

주님이 주시는 복에 관한 한 그는 모든 것을 약속 받았다(요일5:11-12, 14; 히13:5).

3.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한 자가 되었다(고전1:5).

4.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다(골2:9).

5. 아들을 아끼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다(롬8:32).

6. 대개의 경우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거지처럼 사는 것이다.

칭의의 가장 큰 효과: ‘하나님과의 화평’(개역은 ‘누리자’로 되어 있으나 ‘누리는도다’가 맞는다)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 되게 하는 적개심(enmity)이 사라졌다. 전쟁이 끝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수용하신 것은 나의 사람됨(행위)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 때문이다.

일이 잘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고 안 되면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이 느낀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살면서 늘 우리의 과거를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의 진노(롬1:18), 심판(2:2), 미움(5:5) 등 한 마디로 나는 과거에 하나님의 원수였다.

그런데 이 원수 관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되었다(골1:20-21; 엡2:13-18).

‘하나님과의 화평’(peace with God)과 ‘하나님의 화평’(peace of God)을 구분해야 한다.

하나님의 화평 혹은 평강(빌4:7)은 빌4:6을 행할 때 오는 화평이다.

그리스도의 평안(요14:27; 16:33), 모두 영어로는 peace이다.

그리스도인의 위치와 상태:

위치적으로는 그리스도로 인해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이다.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기쁘게 하지 못할 수도 있다(히11:5-6).

2절: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받는다.

영어 access는 왕 앞에 들어가는 것을 뜻한다.

이 세상에서는 대통령이나 왕 앞에 들어가기 쉽지가 않다. 아들은 마음대로 들어간다.

구약 시대의 예: (1)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오직 모세만 올라갔다.

백성은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출19:12-13, 16, 18, 21-24).

심지어 모세도 떨었다(히12:21).

(2) 성막에서 하나님은 지성소의 긍휼의 자리 위에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들어갔다.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영화롭게 되는 것,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고전2:9-10)

3절: 미래의 소망뿐만 아니라 현재의 확신도 있다.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환난을 겪는다. 환난의 뜻: 체질해서 겨를 날리는 것

번영 복음과 신학은 마귀의 작품

고전10:13, 개역: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을 '사람이 감당할 시험'으로 변경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 인내: 버티고 견디는 것, 시험과 시련은 사람을 단련시킨다(약1:2-4).

4절: 인내는 체험을 낳는다.

체험: 시험이 올 때 견디어 내므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 창22장의 아브라함

시험: 뱀전1:6-7,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

그 결과 체험은 다시 소망을 가져온다. 비행기를 탈 때 기류 변화 이야기

5절: 소망은 미래의 것, 이 소망으로 인해 모든 것을 견뎌낸다.

구원은 세 가지 시제로 표현될 수 있다.

과거: 내 죄가 모두 제거 되어 죄의 형벌(penalty or punishment)에서 구원받았다(칭의).

현재: 내가 죄의 권능(power)에서 구원을 받고 있다(성화).

미래: 내가 죄의 존재(presence) 자체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다(영화).

여기의 소망은 미래 시제의 구원을 말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이 의해 부어졌기 때문이다.

성령님은 성도 모두에게 주신 선물(요7:39; 고전6:19)로서 우리를 봉인하신다(엡1:13; 4:30).

성령님은 항상 같보리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신다.

6절: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힘이 없었다. 정하신 때(창3:15; 갈4:4-5)

경건치 아니한 자: 하나님의 두려움을 모르는 자

7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대비해서 보여 준다.

한일양국에서 의인(義人)으로 기리는 고(故)이수현씨(당시 26세, 고려대 무역학과 4년휴학)는 2001

년 1월26일 오후7시18분 쯤 일본도쿄 신주쿠에 위치한 신오쿠보 전철역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중 술에 만취한 사카모토 세이코(37세)씨가 미끄러져 철로로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다른 일본인

인 세키네 시로(47)씨와 함께 철로로 뛰어내려 구하려는 순간 때마침 역으로 들어오던 전철에

치어 목숨을 잃었다. 한국에도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데모로 보여 주셨다.

9-10절: 큰 것을 해 주셨으니 작은 것은 말할 것도 없다는 논조(롬8:32 참조)

9절: 죄인이었을 때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 의인이 된 자에게는 어떤 일을 하시겠느냐?

여기의 진노는 지옥 불의 진노, 또한 환난기의 진노로 보아도 된다.

10절: 원수였을 때 화하하게 되었으니 아들이 되어서는 얼마나 사랑을 받았느냐?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히7:25).

따라서 내가 구원을 잃으려면 부활하신 주님이 죽어야만 한다. 그러나 그분은 단 한 번 죽으셨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토록 안전하다.

11절: 10절의 화해는 곧 속죄로 이어진다. 속죄(Atonement)는 At-one-ment이다. 즉 하나가 되는 것이다.

1-11절의 세 기쁨

미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2, 영화), 현재의 기쁨: 환난도 기뻐함(3, 성화), 과거의 기쁨:

하나님의 아들로 인한 죄들의 속죄(11, 칭의)

로마서 강해 제3과

로마서 5장

1-3장: 기록하신 하나님의 심판과 사람의 정죄(유대인, 이방인 모두 죄인)

4-5장 초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피)의 공로로 칭의를 얻음.

5:12-21, 정죄와 칭의의 비교

두 사람: 아담과 그리스도, 온 인류 대표, 하나는 대표로 죄를 짓고 다른 하나는 대표로 죽음
 아담이 죄를 지어 죽을 때 우리가 거기에 있었고,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고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가 거기에 있었다. 하나님의 '전가'(imputation) 법칙
 두 사람의 행위: 아담의 불순종(창3:6), 그리스도의 순종(빌2:8)
 두 사람의 행위의 결과: 사망, 심판, 정죄 vs 생명, 의, 은혜(17-19)

아담	그리스도
옛 세상(왕국)을 지배할 권리를 받음	새 세상(왕국)의 왕으로 오심
죄를 지음	십자가의 순종은 의와 칭의를 가져옴
왕국을 잃어버림	아담의 것을 되돌려 놓음
모든 인류는 정죄 받고 육적으로 죽게 됨	더욱더 복됨(하나님의 아들이 됨)

가장 중요한 점: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이긴다(20-21).

가장 중요한 단어: 1. 한(one) 12회, 우리가 아담과 또 둘째 아담과 동일시됨을 보여 줌

2. 군림하다(reign) 5회, 아담과 그리스도가 각각 한 왕국을 통치한다.

3. 더욱더(much more), 3회(15, 17, 20), 아담을 통해 잃은 것보다 더욱더 많은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다: 아담이 한 일이 크다면 그리스도가 한 일은 더욱더 크다.

여기에서 먼저 눈여겨보아야 할 사실: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다(문제없음).

아담은 역사적 인물일까?

많은 이들이 창1-11장을 무시한다. 가장 중요하다. 창조, 죄, 타락, 천사들의 죄, 홍수, 바벨탑 창세기를 믿지 못하면 성경을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 6,000년 역사(눅3:23-38, 아담에서 시작해서 그리스도에서 끝남). 그리스도의 창세기 확증(마19:4-5, 창1과 창2)

A. 질문: 하나님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인류를 정죄하는 것이 정당한가?

대답: 정당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대단히 지혜롭고 은혜로운 것이다.

모든 사람을 개인별로 시험해도 결과는 같다(불순종).

한 사람을 통해 모든 인류를 정죄함으로 한 사람을 통해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

우리는 모두 아담과 연합되어 있다.

타락한 천사들: 구원받지 못한다(사람이 아니므로). 개인적으로 정죄를 받는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인류의 머리인 아담 안에서 죽게 되었으므로 새로운 창조 세상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B. 질문: 우리가 모두 아담과 연합되어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대답: 롬5:12-14, 모든 사람이 육신적으로 죽는다. 율법을 범하면 죽는다. 아담부터 모세까지는 율법이 없었다. 그래도 사람들이 죽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아담의 범법이다. 창세기

5장은 아담의 범죄 이후 사람이 죽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이다. 지금도 갓난아이들이 죽는다.
12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죽음(아담이 죄를 지을 때 나도 거기 있었음). 아담의 허리 안에 있었다(히7:9-10).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전가 방법이다. 이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 대통령이 FTA 서명을 하면 모두가 한 것이다.

죄는 죽음을 가져 온다. 죄 문제를 해결하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자기의 죄로 인해 육체적으로 죽지 않는다.

죽음 문제 의논(육체의 죽음, 영적으로 죽음, 영원한 죽음(둘째 사망))

결론: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죄를 지어 육체적으로 죽는다(창3:19; 고전15:22).

Gap 이론 불가능

13-18절은 괄호(중간 설명)이다. 그러므로 12절은 18절에 붙는다.

13-14절: 죄의 정의: 범법(롬4:15; 요일3:4)

아담의 범법: “먹으면 죽는다.”는 명확한 하나님의 법(명령, 계시)을 범한 것

아담 이후로 모세까지: 이런 명확한 법이 없었고 모세의 율법도 없었다.

오직 창조 계시와 마음 판의 양심의 법만 있었다(롬2:15).

그래서 아담부터 모세까지 사람들은 아담과 같은 종류의 범법의 죄나 율법을 어기는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런데도 모두 육체적으로 죽었다. 왜 그런가? 아담이 대표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 전에도 가인과 노아 시대의 죄인들이 죄를 지었는데 율법이 없었으므로 율법 차원에서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때에는 양심의 법이 있어 그들을 정죄하여 지옥에 가게 하였다(롬2:15).

아담의 범법과 같은 유형, 다른 유형(고후11:3; 딤펴전2:14)

아이들 구원 문제(마18:1-3; 막10:14; 신1:34-39)

아이들은 죄가 없으므로 죽지 않아야 한다(롬9:11).

15절 아담의 범죄와 그리스도의 선물 비교, 여기의 ‘많은 사람’은 12, 18절의 ‘모든 사람’과 같은 의미이다. 더욱더: 육적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과 더 풍성한 생명(요10:10; 벴후1:3-4)

16절: 아담의 죄의 영향과 그리스도의 순종의 영향 비교, 한 범죄, 많은 범법

17절: 두 가지 통치(군림) 비교, 아담의 죄의 영향과 그리스도의 순종의 영향 비교

아담의 죄로 인해 사망이 군림함(롬6:23), 5:21절 참조

더욱더, 아담으로 인해 잃은 것보다 더 많이 얻는다(은혜와 의의 선물).

18-19절: 두 사람의 한 행동 비교

생명의 칭의

20-21절: 율법과 은혜 비교

은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다(요1:14-17).

성경은 첫째와 둘째를 다룬다: 특히 둘째에 대한 책, 첫 아담, 둘째 아담

구약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창5:1, 5, 8...), 신약은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마1:1) 가인과 아벨, 야벳과 셈,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 므낫세와 에브라임, 사울과 다윗, 구약과 신약, 맏아들과 둘째 탕자(눅15:11-32)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롬5:14): 고전15:47,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의 시험, 창5:1과 말4:6 그리고 마1:1과 계22:3

첫째 출생과 둘째 출생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필요하다(요3:7).

로마서 강해 제14과

로마서 6장

1-5장: 칭의(Justification)

6-8장: 성화(Sanctification), 거룩함(19, 22절)

구원: 죄의 형벌(1-5장), 죄의 파워(6-8장), 죄의 존재(8장)

6장의 총 주제: 구원 받은 뒤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죄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어떻게 주님께 구분된 삶을 살 것인가?

두 가지 질문: (1)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2)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느냐?(어떻게 승리와 성화의 삶을 사느냐?): 스스로의 노력, 죄들의 고백(죄-고백-죄-고백 시리즈) 많은 경우 패배로 끝남(롬7:14-18).

전체 내용:

1절: 죄에 거하면 안 된다; 2절: 죄 가운데 살면 안 된다; 4절: 새 생명 속에서 걷는다; 6절: 죄의 종이 되지 않는다; 10-11절: 하나님을 향해 산다; 12절: 죄가 다스리지 못하게 한다; 13절: 몸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14절: 죄의 지배하에 들어가지 않는다; 19-22절: 성화 무언가를 자꾸 하려고(doing) 하는데 핵심은 그것이 아니라 아는 데(knowing) 있다.

로마서 6장의 세 핵심 동사:

1. 안다(know): 3, 6, 9절, 사실을 알아야 한다. 어떤 사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끝내셨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분이 한 것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
2. 여긴다(간주한다, reckon): 11절, 이것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여겨라. "나는 죄에 대해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 살았습니다. 아멘!"
3. 내준다(yield): 13, 그리고 우리의 몸을 주님께 의의 도구로 내드려라.

1절: '그런즉'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5:20).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No!!!!

본성에 속한 사람은 이것을 악용하여 은혜를 탐욕의 기회로 삼는다.

"한번 구원 = 영원한 구원, 죄 없다. 무엇을 해도 된다. 회개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등" 구원은 죄를 짓게 하는 면허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대를 가르친다(딤후2:11-12).

우리는 이미 충분히 죄를 지었다(벧전4:3).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구원받지 않은 증거이다(요일3:6, 8, 9; 5:18).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미워한다. 청교도(Puritans)

2절: '죄에 대해 죽은 우리', 이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경험이다! 구원 받은 이후의 삶을 보면 죄에 대해 죽은 것 같지 않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죄에 대해 죽었다고 한다(11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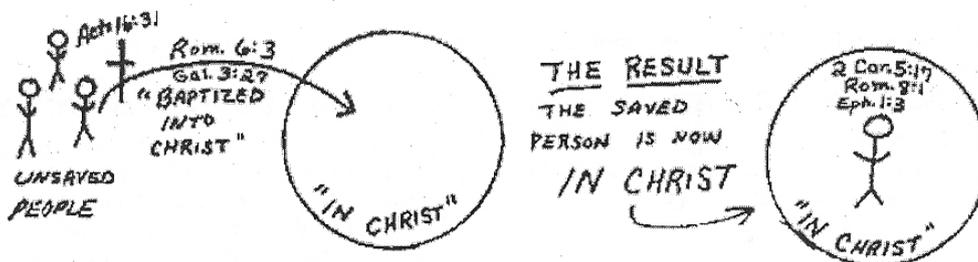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이 신자에게 들어와 있다(골3:3-4).

육체의 지체들로 인해 "내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을 믿기가 어렵다. 그러나 사실이다.

3절: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한다.

롬6장에는 물 침례(의식)가 없다. 여기서 진짜 침례를 말한다.

침례(baptized): '잠긴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는 것



성령 침례: 구원받는 순간에 이루어진다. 일생에서 1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된다(갈3:27; 고후5:17; 롬8:1).

물 침례: 구원 받은 이후에 이루어진다(의식).

마태복음 3장 11-12절: 성령 침례, 불 침례; 엡4:5의 한 침례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엡5:18)

침례: 나를 하나님 안에 넣어 채우는 것, 충만: 하나님이 나를 채우는 것

요14:20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요17:21, 23, 26)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결과: 침례는 동일시되는 것이다(Identification).

1. 그분의 죽음 안으로(롬6:3)
2. 그분의 매장 속으로(롬6:4)
3. 그분의 부활 속으로(롬6:4-5)
4. 그분의 몸 안으로(고전12:13)

그러므로 그분의 역사(歷史)가 내 역사다(엡1:20-21; 2:6).

교회 핏박은 곧 예수님의 핏박이다(행9:4).

물 침례는 예수님의 죽음, 매장, 부활을 나타내는 시청각 언어이다. 세례는 No!!!!

4절: 물뿜었다. 이것은 '죽은 것'을 뜻한다. 내 아버지(파주)

묻히는 것은 죽음과 부활을 가리킨다.

5절: 부활

6절: 이것을 알라. 이것의 내용: 옛사람(엡4:22; 골3:9), 새사람(골3:10; 엡4:24)

옛사람: 아담 안에 있던 나의 모든 것(타락한 사람, 육에서 남)

새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모든 것(구속받은 사람, 성령에게서 남, 구원받기 전에는 비존재)

두 사람의 행위 비교(엡4:25-31)

중요한 점: 옛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개혁 불가, 구원받아도 불변

하나님의 '옛사람 처리 방법': 십자가에 못 박음. 2000년 전에 끝남. 또 내가 할 필요 없음.

하나님이 하심. 이것은 믿어야 할 사실이지 명령이 아니다.

6절은 우리의 신분을 말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의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 삶에서는 옛사람이 나타난다(체험). 그럼에도 우리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내가(옛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새사람)사노라.

그러나 내가(옛사람)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새사람) 사시느니라. 나는(새사람) 지금

내가(새사람)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갈2:20).

'죄의 몸': 아직 구속받지 못한 육의 몸(롬7:24), 예수님 재림 때에 구속된다(8:23).

이때까지는 아직 우리에게 죄의 몸이 있다(씩는다, 병든다, 죄를 짓는다).

'떨한다': 효력을 내지 못하게 한다.

구원 받아도 죄성(sinful nature)은 박멸되지 않는다.

1. 성경기록(요일1:8, 10; 2:1-2).
2. 성도들이 죄를 짓는다(확실함).
3. 롬7:14-24는 이 문제를 다룬다.

로마서 강해 제15과

로마서 6장

칭의 교리에 대한 로마 교회 성도(유대인 성도)들의 반응:

- (1) 은혜를 얻기 위해 죄를 더 지으면 안 되느냐?(롬6:1-14). (2) 율법 아래 있지 않다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느냐?(롬6:15-7:6), (3) 율법이 죄냐?(롬7:7-25)

두 가지 극단:

1. 죄가 없는 완전함에 다다를 수 있다(많은 경우 율법주의). No!!!!(요일1:8, 10)
 2.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정당성 주장(많은 경우 방탕함). No!!!!(요일2:1, 롬8)
- 롬6-8장은 '성도가 어떻게 승리의 삶을, 해방의 삶을, 안전의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말함.
중요 단어: 1. 알라(know, 생각), 2. 여기라(reckon, 마음), 3. 내주라(yield, 의지)

롬3:21-5:21(칭의)	롬6-8(성화)
대신하는 것: 그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	동일시되는 것: 내가 그분과 함께 죽음
그분께서 내 죄들(sins)로 인해 죽음	그분께서 죄(sin)에 대하여 죽음
그분께서 죄들의 형벌을 지불하심	그분께서 죄(죄성)의 파워를 부수심
칭의: 의가 내 계좌로 들어옴	성화: 의가 내 삶의 일부가 됨
그분의 죽음에 의해 죄들의 형벌에서 구원받음	그분의 생명(삶)에 의해 죄의 파워에서 구원받음

성화의 키포인트: 동일시되는 것(identification): 침례(죽음, 매장, 부활)

7절: 'For'로 시작, 죄를 섬기지 않는 이유: 죄로부터 해방됨(6:18, 22)

링컨의 노예 해방, 노예가 해야 할 일: 1. 해방 선포를 알아야 함, 2. 믿어야 함, 3. 자유를 요구하고 짐을 꾸려 나가야 함, 4. 노예임을 거부해야 함, 5. 국가법의 권위를 신뢰해야 함, 성도들도 마찬가지(갈5:1), 매일의 삶에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권능(권위)을 의지해야 함. 죽은 자는 죄를 짓지 못한다!!!

8절: 죽었으면 살 줄을 믿어야 한다. 믿음이 중요하다. 행동이 아니라 믿음이다.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 무슨 사실: 그리스도의 역사(歷史)가 내 역사다. 믿어야 한다.

9절: 어떤 삶인가? Life: 생명, 삶, 그리스도의 생명 ↔ 그리스도의 삶: 영원한(eternal) 삶, 영존하는(everlasting) 삶(요3:15-16)), 더 이상 사망이 주관하지 못한다.

나사로, 나인 성 과부 아들, 사렙다 과부 아들: 이들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질이 다르다. 부활의 권능(빌3:10-11)

10절: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 한 번의 죽음, 더 이상 죽지 않는다(9절). 단번 속죄(히9:26, 28; 10:10-14, 뵤전3:18)

천주교의 미사: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여 예물로 바치는 행위, 가증한 행위
죄에 대해 한 번 죽음: 죄들이 아니라 죄이다.

6장은 죄의 파워에서 구원받는 것을 말하며 죄들의 형벌에서 구원받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10절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죽음이 아니다(이것은 3, 4장에서 이미 다룸).

죄: 죄들을 짓게 만드는 근본 원인(죄성), 롬8:3과 연결해서 보면 좋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성은 용서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정죄하신다. 죄들(죄의 열매들)은 용서받는다

(행2:38; 3:19; 10:43; 눅24:47 등).

성경에서 죽음은 분리를 뜻한다.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 죽으셨으므로 우리는 죄의 근원인 죄성 혹은 옛사람에게서 분리되었다.

아직도 경험적으로는 옛사람을 느끼지만 신분상으로는 더 이상 옛사람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엡2:4-6, 새로운 창조물(고후5:17)

예수님이 죄에 대해 한 번 죽으셨으므로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 매일 죽을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인도 역시 2000년 전에 죄에 대해 한 번 죽었다. 그렇게 여겨야 한다(11절).

11절: ‘이와 같이’의 의미: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서 내가 죽었고(6-8, 10) 그분의 부활 속에서 내가 산다(8-10). 그리스도의 것이 다 내 것이다(갈2:20).

여길지어다(reckon): 이 장에 나오는 첫 명령, reckon: ‘계산하다’, ‘내 계좌에 뉘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사실들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내 것으로 간주하라고 명령하신다.

성경의 Reckon: 1. 롬3:28의 conclude, 2. 롬8:18의 reckon, 3. 히11:19
우리 하나님은 확실한 사실(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고 그분 안에서 내가 산 것)을 내 것으로
여기라고 명령하심. 구원받기 전의 가장 큰 죄: 불신, 구원 이후의 가장 큰 죄: ??

12절: 또 다른 명령, 죄가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믿음으로 걷지 않고 하나님의 사실들을 내 것으로 간주하지 않을 때 이런 일이 생김
죄는 더 이상 군주가 아니다. 죄는 저도 죄가 군주 노릇은 하지 못하게 하라.

죽을 몸: 아직 구속받지 못한 몸, 몸의 구속(롬8:23; 고전15:51-54)

13절: 또 다른 명령, 내주라(롬12:1). 도구(찬송가 348, 해버질 여사)

1. 알라(know, 생각), 2. 여기라(reckon, 마음), 3. 내주라(yield, 의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의의 도구로 내주라(의지), 행위: 행26:20, 눅3:8-14

14절: ‘지배하다’는 주인이 된다는 뜻이다. 죄가 너희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라.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 은혜 아래 있다. 성도들을 율법 아래 가두지 말라.

아래의 예: 마8:9의 백부장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롬6:14, 15; 갈5:18; 고전9:20).

신약시대에 구약시대의 교회를 하려 하지 말라(요1:17).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다.

율법은 아무도 의롭게 하지 못한다(롬3:20; 갈2:16).

율법은 기록하나 아무도 기록하게 할 수 없다(롬7:12).

구원도 성화도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된다(갈3:2-3).

율법주의 No!!!(마르틴 루터), 무법주의 No!!!

법과 규칙을 통해 성화를 이루려 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존 번연의 비교

‘존 달려라, 힘차게 달려!’, 율법은 명령하지만 내게 손이나 발을 주지 않는다.

그런데 복음이 가져다주는 좋은 소식은 ‘나보고 날라고 하고는 날개를 주는 것이다!’

율법은 사람을 속박으로 몰고 가나 하나님의 은혜는 구출을 가져온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롬7:12) 죄인인 내가 문제다(롬7:14).

15절: 은혜는 죄 짓도록 하는 허가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자유이다.

율법은 죄를 더욱 더 강화시킨다(고전15:56). 그래서 죄가 더욱 더 죄 되게 한다(롬7:13).

16절: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마6:24; 요8:34-35).

17-18절: 성도의 과거와 현재, 바울은 먼저 감사와 더불어 이 구절을 시작한다.

전달된 교리의 틀: 복음, 마음으로부터 순종함(롬10:9-10).

19절: 종과 주인의 인간관계로 진리를 설명함

20절: 구원받기 전의 우리 모습

노예 시장의 조 이야기, “일을 안 할 거예요.” “너를 놓아주려고 샀다.” 가장 좋은 종이 되었다.

21절: 우리의 과거 행적을 보라. 얼마나 부끄러운가?

22절: 이제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 성령의 열매(갈5:22-23)

23절: 두 부분으로 구성됨, 첫 부분: 21절, 둘째 부분: 22절

샀(wage): 일하고 얻는 임금, 선물: 일하지 않고 거저 얻는 것

1절의 질문은 23절에서 답이 주어진다.

로마서 강해 제16과

로마서 7장

6장의 주제: 신자와 죄의 관계(성화), 죄들이 아니라 죄를 다룸

1. 알라(know, 생각), 2. 여기라(reckon, 마음), 3. 내주라(yield, 의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일을 알고 믿고 성령님께 내맡기라.

7장의 주제: 신자와 율법의 관계, 율법으로는 성화될 수 없다(갈3:1-5). 3절

롬6:14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율법 아래 있으면 죄가 우리를 지배한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하시는 것을 뜻한다.

율법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께서서는 내 위에 기록하고 의로운 요구들을 올려놓으시는데 그것이 율법이다.

율법에서 구출받는다라는 것은 그분께서 더 이상 내게서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음을 뜻한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들을 제공하신다.

사람이 스스로 법을 세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율법의 문제가 우리를 괴롭게 할 것이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7:12) 죄 많은 내가 문제다(7:14; 8:7).

1절: 사람이 살아 있는 한 법이 사람을 지배한다. 죽어야 여기서 벗어난다.

2,3절: 결혼의 예, 배우자가 죽어야만 법에서 벗어난다(고전7:39).

사망은 결혼 관계를 깨뜨리며 새 관계가 가능하도록 한다: 오직 죽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

4절: 구원받기 전에는 율법과 결혼한 상태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이제는 내가 죽었다. 율법은 죽을 수 없지만 내가 죽었다. 그래서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새 남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지배하신다.

옛 남편(율법): 무자비, 공포, 새 남편(예수님): 긍휼, 사랑, 은혜 히12장:18-29
결혼하면 열매로 아이들을 낳는다.

그래서 율법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있다(롬6:22; 갈5:22-23).

“한 아내, 두 남편, 아내가 어쩔 수 없이 운명에 의해 호감이 덜 가는 남편과 결혼을 하였다.

이 남편은 신히 좋은 사람인데 요구하는 것이 매우 많다. 심히 정확한 것, 세세한 것을 원한다. 그에게 잘못된 전혀 없다. 요구 사항이 다 맞는다. 그런데 아내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늘 실수한다. 그래서 이 둘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한다. 사실 아내는 다른 사람과 결혼했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첫 남편이 죽는 것밖에 없다. 여기서의 첫 남편이 바로 율법이다. 둘째 남편이 그리스도이다. 여인이 바로 우리이다. 율법은 요구 사항이 많으나 우리를 돕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마5:21-48). 그러나 그분께서 친히 그것들을 만족시키신다. 그래서 여자는 첫 남편이 죽고 둘째 남편과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율법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마5:18). 롬7:1-3에서는 남편이 죽어야 하지만 4절에서는 여자가 죽는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같이 죽었다.”

문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다시 결혼할 수 있는가?

나는 죽었지만 여전히 살아 있다(갈2:20).

그래서 다시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 있다. 이제는 율법 관계가 아니라 사랑 관계이다.
기독교는 바로 이 사랑 관계를 말한다.

기독교는 종교(religion)가 아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과의 관계이다(요17:3).

기독교는 ‘무언가를 행하는 것’(doing)이 아니라 ‘어떤 분을 아는 것’(knowing)이다.

기독교는 율법/도덕 체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과의 교제이다(요일1:3).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경 구절 암송하고 주일에 넥타이 매고 치마입고 교회가고 주일성수, 십일조, 찬양대, 교사...다 좋은 일이지만 에센스가 빠지면 소용없다. 치마, 셔츠가 믿음과 구원의 척도가 아니다.

에센스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을 알고 사랑하고 기쁘게 해야 한다.

빌1:21,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나라.

빌1:21, 내게는 사는 것이 성경 읽고 암송하고 15분 기도하고 항상 전도하는 것이요

빌3:8,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다.

빌3:8,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내 혀를 억제하고 나쁜 습관을 고치고 매일 경건 시간을 갖는 것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다.

빌3:10,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함이요

빌3:10, 이것은 내가 이것은 하고 저것은 피하며 강제로 전도하고 모든 악을 피하는 것을 알고자 함이요

고후5:9,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 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라.

고후5:9,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성질을 죽이고 음식을 조절하며 성경을 암송하고 나쁜 방송은 안 보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라.

계2:4,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다.

계2:4,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성경 읽는 습관과 새해의 결심을 버리고 십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골1:9-12, 대단히 중요하다.

다시 한번 결혼 관계를 살펴보자.

남편이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있다.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다.

남편은 왜 이것들을 하는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아내는 집안 살림, 아이들 교육, 음식 장만 등 여러 가지를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남편의 지시 때문인가? 사랑에 반응하기 때문인가?

그러므로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고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고 함께 걷고 순종하고 공경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신뢰하고 그분 안에서 자라가고 그분에 대해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된다.

여기서 성령 충만한 열매가 나온다.

5절: 옛 사람의 열매, 율법-죄들-사망

6절: 이제(구원 받은 뒤)는 구출을 받았다. 해방되었다.

갈2:19-20, 성도들은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해 죽었다.

영의 새로운 것(성령)

글자의 낡은 것(율법)

1-6절 정리: 2절: 율법에 매여 있다. 3절: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4절: 율법에 대해 죽었다.

5절: 율법 우리의 죄성에 불을 지른다. 6절: 율법에 붙잡혔다가 구출되었다.

7절: 율법은 지긋지긋하다. 무섭다. 그러면 율법이 죄냐? No!!!!!!(롬7:12)

율법은 깨끗한 거울과 같다. 죄들을 보여 준다. 거울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다.

율법은 죄를 드러낸다. 탐욕 사례(출20:17)

8절: 율법은 십계명을 통해 살짝 기회를 타서 내 안에 온갖 욕정을 이루었다.

거울이 없으면 얼마나 지저분한지 모른다. 그런데 거울을 보면 모든 더러운 것이 보인다.

율법은 태양 아래 파리를 틀고 있는 뱀과 같다. 죽은 것 같은데 만지면 문다.

예: 둘째 명령, 우상을 만들지 말라. 명령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죄인들이 이런 명령을 접하면 거역하기 시작한다!

출32:7-8의 이스라엘 백성, 율법이 죄들을 불러일으킨다.

로마서 강해 제1과

로마서 7장

9절: 전에(once): 바울이 율법과 부딪히지 않았을 때, 명령이 오기 전

살아 있다: 거침이 되지 않았다. 율법 하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몰랐다. 거울로 모습을 못 본 상태, 죄가 살아나고 나는 율법을 지키지 못해 죽은 자가 되고 맘(고후3:7, 9).

10절: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정하신 명령(마19:16-17; 눅10:25-28)

깨끗한 얼굴을 가진 사람은 거울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아무도 없다.

11절: 죄는 속이는 자요(히3:13), 죽이는 자이다(약1:15).

12절: 7절에 대한 대답, 율법은 완전한 거울이다. 그러나 고치거나 살리지 못한다.

13절: 율법이 사망을 가져오지 않고 죄가 가져온다. 율법은 죄를 확대해서 보여 준다.

거룩한 것 옆에 서면 우리가 더 부끄럽고 초라해진다(사6:1-5).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옆에 서면 우리가 더욱 더 초라해진다.

율법이 하는 세 가지 일:

(1) 죄를 드러낸다(거울): 7:7; 3:20

(2) 죄를 촉발시킨다: 7:5, 9(뱀)

(3) 죄를 확대시킨다: 7:13, 고전15:56

14절: 율법은 문제없다. 내가 문제이다. 내가 죄의 종이다.

14-25절에는 '나'(I)가 많이 나온다. 유심히 보아야 한다.

나는 육신적이다: 구원받은 바울의 이 땅에서의 현재 상태

성도의 신분: 육신적이 아니라 영적이다(롬8:9). 구원받기 전에는 육신적이었다(롬7:5).

성도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롬6:17-18).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영광스러운 신분에 대해 말하지 않고 이 땅에서의 실제 상태에 대해 말한다.

딤후1:15

그리스도인에게는 육신적인 요소가 실제 삶에 있다(고전3:1-4). 변명하려 하지 말라.

롬7:14-25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실제 삶에서 느끼는 경험이다.

바울의 갈등이 15절부터 묘사되어 있다.

15절: 종: 남의 지배하에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 이집트의 이스라엘 족속

16절: “탐내지 말라!” “맞습니다. 그럼에도 탐낼 수밖에 없습니다.”

17절: 여기서 바울은 내 안에 거주하는 죄 혹은 옛 사람에게 대해 분명히 말한다.

그는 새사람이 되었으나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어 두 본성이 서로 갈등한다.

“내가 아니라 죄다: 패배의 외침”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다: 승리의 외침”(갈2:20)

18절: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 내 안에 (곧 육신 안에)의 팔호를 보라. 그는 지금 구원받은 자로서 이야기한다. 여기 팔호는 그에게 선한 것이 있음을 보여 준다(롬8:9).

원함이 있으나 능력이 없다(마26:41).

19절: 15절과 같은 맥락, 여기의 갈등은 오직 성도들에게만 일어난다. 불신자는 이런 갈등이 없다.

본성이 하나이기 때문이다.

20절: 17절과 같은 맥락

21절: 한 법은 곧 죄와 사망의 법이다(7:23, 25; 8:2)

22절: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다(시19:7-10; 119:35 등)

23절: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

24절: 비참한 자로다. 구원받기 전에도 이것을 깨달아야 하고 받은 후에도 깨달아야 한다.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바울은 이미 자기와 행위를 다 포기하였다. 구원도 성화도 내 힘으로 안 된다.

율법도 할 수 없다. 율법은 우리에게 의해 성취되지 못하고 성령님에 의해 우리 안에서 성취된다(롬 8:4; 갈5:22; 롬13:8-10).

사망의 몸, 죄의 몸(롬6:6). 이 몸은 아직 구속되지 않았다(롬8:23).

25절: 예수님이 구출자이시다(롬12:1:26; 고후1:10).

승리는 우리에게서 오지 않는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고전15:27; 고후2:14).

25절 후반부는 15-24절을 요약한 것이다.

7장 요약

핵심 단어: 율법, 나

핵심 질문: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대답: 나는 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이 배워야 할 두 가지 교훈: 구원과 성화

교훈 1: 나는 내 자신을 구출할 수 없다. 구출자가 필요하다(딤후3:5; 엡2:8-9).

능력이 없음을 고백해야 하는 때가 있다(롬5:6)

교훈 2: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다. 구출자가 필요하다. 죄성에서 구출할 자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한다(갈2:20; 빌2:13).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롬7장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여기고 자포자기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성화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는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No!

죽을 때까지 7장에서 머물면 안 된다.

예수님은 승리와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다(요8:31-36).

8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가 되어야 바른 생활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른 것이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율법을 성취하신다(롬8:4).

이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우리 안에서 나온다(갈5:22-23; 엡4:1-3).

위치(신분)와 상태

위치: 하나님의 아들(요1:12; 요일3:2), 그리스도의 일로 인해

상속자(롬8:17), 보호를 받음(벧전1:4-5). 구속의 날까지 봉인됨(엡4:30)

그분을 믿는 순간 신분이 변한다. 완전한 신분이다(히10:14). 모든 신자가 동일하다.

내 신분은 전적으로 은혜에 기인한다.

상태: 늘 변한다. 왜냐하면 두 본성이 있기 때문이다. 육에선 난 것(요3:6).

바울의 경험(롬7:14-25), 빌3:12, 향상되거나 악화될 수 있다(살전4:1). 모든 신자가 다르다.

육신의 본성이 지배하면 죄가 나온다(요일1:8-10).

신자의 3종류 삶: 이집트, 광야, 가나안의 삶

로마서 강해 제1과

로마서 8장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8:1, 39) 있는 성도들에게 롬8은 매우 귀중한 장이다(성경 전체에서 중요함). ‘정죄함이 없다’(No condemnation)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떼어놓을 수 없다’(no separation)는 말씀으로 끝난다.

첫 부분 핵심 단어: 영(spirit), 8장에서 20번, 7장에서 4번

롬8은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Eternal security of salvation)을 가르쳐주는 장이다.

1절: 정죄함이 결코 없다!(요3:18; 5:24; 고전11:32)

왜 없는가?(롬8:2),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다.

하나님께서 갈보리에서 자신의 아들을 정죄하심으로(롬8:3) 나는 정죄에서 벗어났다. ‘대신속죄’ 예수님으로 인해 나는 정죄 대신에 칭의를 얻었다.

요5:24 다시 확인(사53:6), 롬8:33-34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의 생명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분의 세대에 속함(마 1:1).

그분과 함께 죽었다가 문혔다가 살아났으므로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

요일4:17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무엇인가?(롬14:10)

‘그리스도의 심판석’(Bema)은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다. 믿은 이후의 행위들에 대한 심판이다. ‘보상을 받느냐, 보상의 손실을 받느냐?’가 관건이다(고전3:12-15).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만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것은 마치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것과 같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갈3:26-28).

이런 사람의 특징: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다(개역은 삭제, 4절과 중복).

그러면 사도 바울의 탄식은 무엇인가?(롬7:14-25).

9절에 답이 있다. 문맥 상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다시 상태가 아니라 신분으로 돌아옴, 요일3:6, 9).

2절: 롬7:24에 대한 대답

7장은 성도의 상태, 8장은 다시 성도의 신분(위치)

두 가지 법: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비행기: 그대로 두면 중력의 법칙에 의해 떨어진다.

그런데 엔진이 비행기의 추진력을 주면 양력이 발생하여 비행기가 뜬다: 추진과 양력의 법칙 예수님이 바로 비행기의 엔진과 같다.

3절: 율법(깨끗한 거울)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사람을 의롭게, 기록하게, 깨끗하게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

율법 자체는 권능이 있고 선하지만 우리가 약하다. 그래서 율법은 정죄와 저주를 가져온다.

3절에는 복음의 정수가 들어 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그분을 정죄하셨다.

예수님은 처녀탄생을 통해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히2:14-18, 요일4:1-3).

예수님이 죄가 많은 것이 아니다. 그분은 죄가 전혀 없다(히4:14-16).

죄로 인하여 죄를 정죄하셨다(고후5:21).

4절: 구원 받은 자들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함

율법의 요구 사항들이 있다. 우리는 만족시킬 수 없다. 오직 성령님만 하실 수 있다.
 율법의 요구 사항들 요약: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마22:36-40).
 율법을 성취하는 길은 사랑이다(롬13:8-10; 갈5:14). 그 사랑을 얻는 길은 성령 충만한 삶이다
 (엡5:18; 갈5:13-23). 성령님의 권능이 이런 사랑을 만들어 낸다(갈5:22).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다, 엡2:10)

롬8:1-14 요약

두 종류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5)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5)
두 영역	육신 안에(8)	성령님 안에(9)
두 상태	그분의 사람이 아님(9)	그분의 사람임(9)
두 출생	육에서 남(요3:6)	성령님에게서 남(요3:5-6)
두 생각 체계	육신의 일들을 생각함(5-7)	성령님의 일들을 생각함(5, 골 3:1-2)
현재 상태	사망(6) 하나님을 기쁘게 못함(8)	생명과 화평(6)
장래 상태	사망(13)	부활 생명(11, 13)
현재 소유	성령님이 없음(9)	성령님이 있음(9)
하나님의 법과의 관계	법이 없음(7)	성령님에 의해 율법이 성취됨(4)
하나님과의 관계	원수(7)	아들(14)
인도	초자연적인 인도 없음(14)	성령님의 인도(14)
개인의 의무	육체를 따라 사는 수밖에 없음(12)	몸의 행위들을 죽여야 함(13)
	내주하는 죄의 속박 아래 있음. 그 상태(엡2:1-3; 4:17-19)	성령님의 내주 죄를 지으면 성령님의 슬픔이 있음(엡4:30) 죄를 지을 수는 있으나 거기 묻혀 살지 않음(요일3). 3대 요소: 성령님의 유죄 확증, 본인의 고백, 하나님의 징계(소전11:31-32), 심한 경우 사망

5-6절: 본성에 속한 사람과 거듭난 사람의 차이(롬6:21-23과 비교)

7절: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옛 아담)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한다.

1. 육신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은 육신을 정죄하고(롬8:3) 십자가에 못 박는다(갈 2:20).
2. 육신은 개혁할 수 없다. 부패한 것은 언제나 부패한 채로 있다(렘17:9). 개혁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3. 육신은 훈련시킬 수 없다; 육신의 열매는 동일하다(갈5:19-21).
4. 육신은 향상시킬 수 없다.
5. 육신은 결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갈5:17).

민13장의 가나안 정탐, 14장의 육신의 일들(14:9-10, 27-29, 40-44)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갈5:24).

로마서 강해 제19과

로마서 8장

8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 '육신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믿음이 없는 자들(히11:6)

마더 테레사, 어거스틴, 프란시스, 교황, 수녀, 구원받기 전의 우리 행위: 모두 더러운 누더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9절: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 성령님이 거하신다. 성령님의 내주 (indwelling, 고전6:19-20; 고후6:16-18).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의 존재 여부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는다(요7:37-39).

모든 그리스도인은 '육신 안에서' 살지만 더 이상 '육신 안에' 있지 않다.

10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8장 1절과 대조,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9절은 '내가 성령님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인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

구원받았어도 몸은 아직 구속되지 않았다. 죄로 인해 몸은 죽었다. '죽을 몸'이다(11절).

신자의 영은 성령님으로 인해 생명이다(엡2:1, 5).

영은 구원받는 순간에 살아났다. 몸은 부활할 때에 살아날 것이다.

11절: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며 그분께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예수님의 죽은 몸을 살리신 분께서 우리의 몸도 살리신다. 성령님의 임재는 곧 부활의 보증이다(엡 1:13-14; 4:30).

12절: 빛진 자: 의무를 지닌 자(롬1:14). 영 안에 거하므로 육신에게는 빛진 게 없다.

이미 육신에게는 할 만큼 다했다(벧전4:2-3).

이제는 성령님에게 진 빛을 갚아야 한다.

13절: 여기서 '산다'(live)는 것은 현재형이다. 계속해서 생활해 나가는 것을 뜻한다.

어떻게 몸의 행실을 죽일 것인가?

1. 신분 상으로: 이것은 이미 끝난 일이다(갈5:24). 현재 완료로 다 끝난 일이다.

2. 경험 상으로: 몸의 지체들을 죽여야 한다(골3:5). 어떻게 할 것인가? 믿음으로 한다.

골3:3을 믿어라. 그리고 그 믿음으로 골3:5를 한다. '여겨야 한다.'

14절: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분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엡4:30). 우리는 그분을 기쁘게 하거나 슬프게 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요1:12): 상속의 개념

15절: 8장은 계속해서 성령님을 언급한다. 양자 삼으시는 영, 이전의 마귀는 속박의 영

율법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아들의 사랑의 관계

아랍어 '아바'=아빠=아버지(막14:36),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을 정도로 가까운 존재

예수님은 아버지를 알려 주려고 오심(마6:9).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름(요5:17-18; 19:7)

양자 삼음: 아들의 자리에 넣어 두는 것, 독생자(the only begotten Son)와 우리(son)의

관계, Son은 한 명, son은 매우 많다.

16절: 구원의 확신을 주는 구절

두 명의 증인: (1) 성도의 영, (2) 성령님: 이분이 없으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9절).

내가 죄를 지으면 죄를 확증하시고 슬퍼하신다(엡4:30): 구원의 증거

구원받으면 성령님의 확증이 생긴다(갈4:1-6).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는다.

성령님의 확증 사역: (1) 죄인임을 확증한다. (2) 의인임을 확증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요일5:10-13 설명

17절: 상속자(엡1:3; 벨전1:3-4)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그분의 것이 내 것이다(히1:2).

왜 그런가? 양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영광과 더불어 고난도 함께 나눈다.

하나님의 법칙: 언제나 고난이 먼저고 그 뒤에 영광이다(눅24:26).

가장 잘 보여 주는 책이 베드로전서이다. 벨전5:1-3절과 4절, 요약 10절

그리스도인으로서 현 시대의 고난을 예상해야 한다(요15:18-21, 16:1-3, 33; 17:14 등).

모든 그리스도인은 공동 상속자다(신분). 단순히 상속자만 되는 성도는 없다.

‘이기는 자’(요일5:4-5, 신분)

로마서 강해 제2과

로마서 8장

18절: 현 시대의 고난은 장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후4:17-18).

현 시대의 고난: 가볍고 잠깐 있다. 장래의 영광: 무겁고 영원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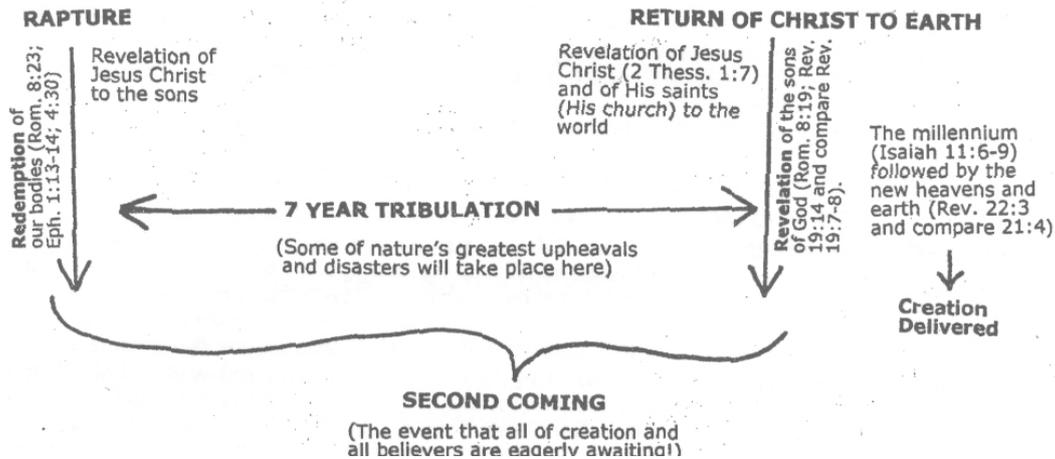
사도 바울의 고난(고후11:23-28): 우리와 비교하면 엄청나다.

그런데 장래의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19절: 창조 세상의 기대, 사람의 타락으로 저주 아래 있음, 나중에 회복됨(사11:6-9).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며 천년왕국을 세우실 때(살후1:7; 계19:14)

이미 휴거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게 됨



20절: 창조 세상은 아담의 범법으로 인해 저주 아래 놓이고 헛된 것에 굴복하게 됨

엔트로피(Entropy)

스스로 한 것이 아니다. 다시 복원되는 때가 있다(마19:28의 regeneration과 행3:19-20)

21절: 현재 창조 세상은 부패의 속박에 놓여 있다. 이것이 모두 회복된다.

창조 세상은 사람의 상태를 반영한다.

22절: 짐승의 멸절 등

23절: 창조 세계와 성도들이 다 신음하고 있다.

앞으로의 이 사건에 관심을 두고 사모하는가? 신음하고 있는가?

여기의 양자 삼으심은 몸의 구속을 말하며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다.

롬8:15의 양자 삼으심은 현재의 것이다.

첫 열매: 수확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수확하는 것, 장래의 수확을 보증함, 보증금과 비슷하다.

수확 때에는 영화로운 몸, 영원한 상속, 하늘의 처소 등이 움

24-25절: 구원받았으나 여전히 불완전한 몸속에 살고 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고대한다(빌 1:6). 첫 열매로 끝을 내는 농부는 없다.

수확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끝이 났다. 그런데 아직 수확이 있다.

그래서 이 몸에 거하면서 고난을 참고 소망 중에 살아간다.

해산하려는 여인: 출생의 소망으로 모든 고난을 참는다.

19-25절 요약: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림(19). 하나님의 아들들은 몸의 구속을 기다림(23). 이 둘은 다 재림과 관련이 있다.

26-27절: 8장의 세 신음: 창조 세계(922), 모든 성도들(23), 성령님(26)의 신음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지도 모를 정도로 연약하다. 성령님의 중보 사역
형편없는 기도 ⇨ 성령님의 통역 사역 ⇨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성령님의 중보 사역, 아들의 중보 사역(34)
'말로 할 수 없는 신음'(흡정역)과 '말할 수 없는 신음'(개역)과는 다르다.
'말로 할 수 없는 신음' 방언 오해 No! (1) 이것은 성령님의 직접 사역이다. (2) 하나님만 들으신
다. (3) 방언은 몇몇에게만 한때 허용되었지만 이것은 모든 신자를 위한 것이다.
27절의 마음(렘17:9-10; 잠4:23)

로마서 강해 제2과

로마서 8장

28절: 26절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28절: 우리는 안다. 무엇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선을 위해 작용할 것을”

성도들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 좋은 것, 나쁜 것- 을 관장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엡1:11)

이 기쁨의 소식은 오직 성도들에게만 해당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요일4:19).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명령들(말들)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요14:21-24). 순종으로 나타난다(벧전1:14).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고전16:22).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신분). 이들은 미리 아신 바 되고 예정되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영화롭게 된다(29-30).

“모든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케이크: 밀가루, 계란, 버터, 하나하나를 먹으면 맛이 없다. 섞이면 맛이 있다.

우리 삶의 기쁨, 슬픔, 걱정, 환희, 염려, 죄까지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시51:12-13).

요셉의 이야기: 창세기 37-50장, 요셉의 꿈(37), 형제들의 미움, 노예 생활, 감옥 생활(39),

이집트의 총리, 야곱의 한탄(창42:36),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원 계획(창50:20)

예수님: 모욕, 조롱, 멸시, 십자가 처형, 이 결과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딤후 4:10), 튜데일의 수고로 영어 성경이 정착됨(부록 14쪽)

모든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당신은 이것을 아는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열심이 그분의 것을 이룬다(사9:7).

29-30절: 하나님의 구원 사슬: 예지, 예정, 소명(부르심), 칭의, 영화

신자의 구원은 영원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 이룬다. 이 구원 사슬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구원의 보장).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미리아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다. 사람은 구원에 대해 자랑할 것이 없다.

다만 성도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으므로 수용해야 한다(요3:16-18; 행16:31).

1. 첫째 고리: 예지(Foreknowledge)

28절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 예지(벧전1:2; 요6:64, 70-71; 렘1:5)

2. 둘째 고리: 예정(Predestination)

너무 많은 분들이 예정에 대해 혼동하고 있다.

칼빈주의의 무조건적 예정론: “천국에 갈 자들과 지옥에 갈 자들이 정해져 있다.” 운명론 사람에게 관한 한 성경의 예정은 믿는 자들에게만 한정되어 사용된다(엡1:5, 11; 롬8:29)

1. 우리를 예정하사 입양하심(엡1:5)

2. 우리를 예정하사 상속 유업을 얻게 하심(엡1:11)

3. 우리를 예정하사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심(롬8:29)

3. 셋째 고리: 부르심(Calling, 28절)

모두가 구원으로 일반적인 부르심을 받는다(롬10:9-13; 요3:16 등): 일반 계시를 통한



구원 초청

그러나 모두가 특별한 부르심을 받지 않는다(딤후1:9).

4. 넷째 고리: 칭의(롬3:24-5:1; 행13:39)

5. 다섯째 고리: 영화(빌3:21; 뱀후1:3; 요일3:2)

이 5개 고리는 모든 성도에게 공통으로 적용된다.

구원받으면 이 5개가 모두 한 번에 패키지로 주어진다.

31절: 이 5가지에 대해 무슨 말을 할까? Thanks you, Lord!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구원의 안전 보장), 히13:6

32절: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 창22의 아브라함과 이삭, 아브라함은 아들을 아끼

가장 큰 것을 주신 분께서 작은 것은 당연히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유대인 지도자들, 가롯 유다, 대제사장, 빌라도...

그러나 최종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내주셨다(요3:16; 사53:10).

우리의 죄의 값은 사망인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죄 값으로 내주셨다. 대신 속죄

33-34절: 누가 우리를 고소하는가? 아무도 없다.

요일2:1-2,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신다(8:26).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신다(8:31). 아들이 우리를 위하신다(8:34). 삼중 보장

35절: 그리스도의 사랑(십자가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

36절: 시44:22, 현재형, 우리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한다(고전15:30; 히11:36-38).

37절: 정복자들보다 나은 자들이다. 넉넉히 이기느니라(개역성경, No).

정복자들: 로마의 개선장군(고후2:15-16)

이 모든 것: 35절의 모든 어려움

38-39: 전 우주 공간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것이 없다.

사망(히2:15), 생명(삶), 천사들, 정사들(천사들의 부류, 골1:16), 현재 일, 장래 일
높음, 깊음, 어떤 창조물(사탄 마귀까지 포함),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
지 못한다(구원의 안전 보장).

이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적용된다.

불신자들은 예수님에게서 영원히 분리된다(살후1:8-9; 마25:41, 46).

이런 분리를 둘째 사망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영원히 분리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산다.

8장의 시작: No condemnation, 8장의 끝: No separation

구원의 안전 보장을 믿지 못하는 분들: 대개 감정을 따라 상태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요5:24).

이 위대한 복을 얻으려면 구원받아야 한다(히2:1-3).

로마서 강해 제2과

로마서 9장

롬1-8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시하였다: 칭의(롬1-5), 성화(롬6-8), 영화(롬8).

롬12장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 준다.

그러므로 롬9-11은 괄호로 볼 수 있다. 유대인들의 질문(롬4:1)

롬9-11의 주제: 육적 이스라엘(아브라함의 씨)은 어떻게 되는가?(롬9:3-4; 10:1, 21; 11:1-2, 26, 28)

카톨릭 교회와 장로교회 등에서는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않는다.

어거스틴/칼빈주의의 이스라엘 대체 신학

롬9:1-3은 바울의 큰 슬픔을 보여 주고 롬11:33-36은 하나님께 대한 큰 찬양을 보여 준다.

롬9는 이스라엘의 과거를, 롬10은 이스라엘의 현재를, 롬11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여 준다.

유대인은 누구인가?

1.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다(신7:6-9; 롬11:28).
2. 하나님은 그들이 메시아의 통치 하에서 영화로운 왕국을 누릴 것을 약속하였다(단7:13-14; 사2:1-5; 9:6-7; 11:1-9; 렘31:31-37; 33:14-16; 눅1:31-33).
3. 그러나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왔을 때 그분을 배척하였다(요1:11; 마23:37-39).
4.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멤버는 모두 유대인이었다(행2). 베드로는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을 행10장에 가서야 처음으로 깨달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에서 유대인은 줄어들고 이방인이 다수를 차지하며 현재는 거의 대부분이 이방인이다. 현재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돌아왔지만 그들의 대부분은 무신론자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생각해 볼 문제점

1.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왕국은 어찌 되었는가?
2. 구약에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약속들은 다 어떻게 되었는가?
3. 왜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주로 이방인들과 연계되어 있는가?
4. 이스라엘은 끝이 났는가?
5. 이스라엘(유대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아직 남아 있는가?

당신이 1세기의 유대인이라고 가정하고 문제들을 생각해 보라.

1. 바울의 복음은 참인가? 거짓인가? 즉 그가 전한 예수님은 메시아인가? 아닌가?
 - a. 거짓이다: 이 경우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며 아직 왕국이 임하지 않은 이유는 메시아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 b. 참이다: 이 경우 왜 왕국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왜 유대인들은 고난을 당하는가? 구약의 약속들이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
2. 롬9-11은 이런 문제들에 대한 답을 준다.

카톨릭/장로교회는 이스라엘에게 미래가 없다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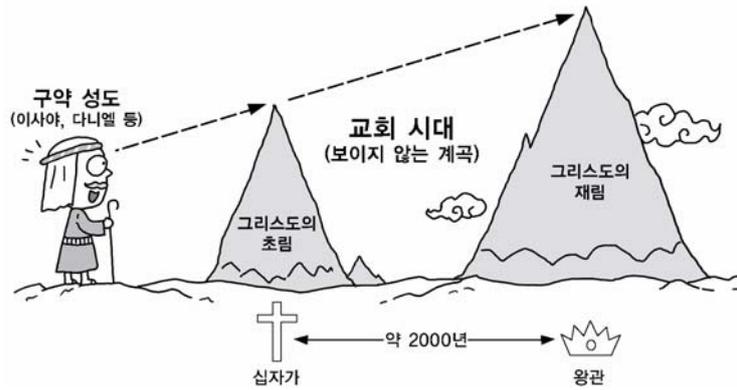
어떤 이들은 교회가 곧 왕국이고 예수님이 영적으로 다스린다고 주장한다(영해).

이런 주장들로는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을 성취할 수 없다. 롬9-11이 해답을 준다.

1. 현 시대를 살아가는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어야 한다(롬10:9-13; 11:1-5).
2. 미래의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야 이루어진다(롬11:25-28). 이스라엘이 현재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아도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제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롬11:28).

3. 현재의 교회 시대는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는 드러나지 않았다.



- a. 사9:6-7, 6절은 초림, 7절은 재림, 교회 시대가 언급되지 않음
 - b. 사61:1-2(눅4:18-19 비교), 초림과 재림, 예수님은 초림 부분만 읽으심
 - c. 미5:2,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다스리는 자여야 함. 전반부만 성취됨
 - d. 슥9:9-10, 초림과 재림
 - e. 눅1:31-33, 초림과 재림
4. 구약 시대의 유대인에게는 초림과 재림이 하나로 보였다.
5. 우리는 지금 교회의 계곡에 살고 있다(마16:18; 행15:14). 그래서 초림과 재림의 산봉우리를 잘 볼 수 있다.

로마서 강해 제23과

로마서 9장

1절: 롬8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안전과 영광에 대해 말한다. 그리고 9장에 들어서면서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 말한다.

너무 믿기 어려우므로 미리 진실을 말한다고 경고함.

1.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한다.
2. 거짓말하지 않는다.
3.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증언한다.

2절: 큰 근심, 계속되는 슬픔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근심과 슬픔을 보아야 한다(눅19:41-44).

유대인들에 대한 바울의 평가(살전2:15),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함

3절: 바울은 유대인들을 위해서라면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음을 말한다.

이것은 가정법이다. 구원의 안전 보장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통해 바울의(예수님의) 유대인들에 대한 사랑을 볼 수 있다. 사실 예수님은 천국을 떠나 모든 사람을 위해 지옥의 저주를 받으셨다. 우리를 위해 죄와 저주 자체가 되셨다(고후5:21; 갈3:13). 그분은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형벌을 받으셨다. 이로써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되셨다. 바울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였다. 말로써 이런 감정을 표현했으나 롬8:38-39에 따라 실제로는 결코 저주받을 수는 없다.

4절: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와 특권을 보여 줌.

유대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스라엘)의 후손(창32:28), 안식교, 여호와 증인 No!

유대인들의 특권(신7:6-8), 다른 어떤 민족도 누리지 못하는 특권들을 누리,

0. 말씀을 지키는 복(롬3:1-2)

1. 하나님께 아들이 되는 복을 받음(출4:22-23), 맏아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노예 상태임. 호11:1, 말1:6

2. 영광, 주의 영광(세카이나 글로리, Shechinah glory)

주의 영광(36회), 하나님의 영광(17회), 빛, 불 혹은 구름 등으로 나타남

창15:17(연기 나는 화로와 타오르는 등불), 출3:1-5(떨기나무), 출13:21-22;

14:19-20, 24(불과 구름 기둥), 출19:16-20(시내 산의 불, 연기 등), 출33-34(모세에게 특별히 나타남), 왕상8:10-11(솔로몬 성전의 구름), 눅2:8-9(베들레헴의 목자들),

마17:1-8(변화산의 그리스도), 주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남(겔11장)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이런 영광을 보여 주셨다.

3. 언약들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는 노아 언약만 주셨다(창9:8-17).

a. 아브라함 언약(창15:7-21, 17:1-14)

b. 모세 언약(출19:5-8): 구약

c. 팔레스타인 언약(신29-30): 이스라엘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진 뒤 다시 돌아옴.

d. 다윗 언약(삼하7:5-19, 시89), 메시아, 영원한 왕국

e. 새 언약(렘31:31-36), 이스라엘의 구원과 새로 태어남

4. 율법 수여(신4:8)

5. 하나님을 섬김: 성막, 제사장, 희생 예물

6. 약속들(사41:8-10 등)

5절: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와 특권을 보여 줌.

7. 조상들, 특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출3:6, 15)

8. 그리스도(메시아), 마1:1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요4:22). 그분 외에는 구원이 없다(행4:12).

그분은 육체로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신성으로는 하나님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특권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익을 얻지 못했다.

경건한 소수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였다.

a.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하지 않음(말1:6)

b. 하나님의 임재에 신경을 쓰지 않음(성전)

c. 하나님의 법을 어김(렘31:32)

d. 예배가 형식적이 되고 맘

e. 핵심인 믿음을 잃어버림(히3:18-4:2)

f.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 걷지 않음

g. 심지어 자신들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처형시킴(마27:22; 살전2:14-15)

영적 교훈(눅12:47-48): 많이 받는 자에게서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우리는 어떤가? ★★★★★

올바로 알고 많이 배울수록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두려움)이 더 생기는가?

아니면 방종과 타락의 기회로 삼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요20:28,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딤후2:13, 위대하신 하나님

롬9:5 찬송 받으실 하나님

요1:1 영원하신 하나님

요일5:20 참 하나님, 영원한 생명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데 있다(요17:3).

여호와와의 증인, 안식교, 각종 이단(자칭 예수, 다른 예수)

로마서 강해 제24과

로마서 9장

6절: 유대인들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 땅을 주고(창15:18; 17:8), 아브라함에게서 민족을 만들고(창12:2) 그 민족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렘31:36-37). 미래의 왕국에는 공의와(렘23:5) 평화가 있다(미4:3). 새 언약을 주시고 모든 죄들을 용서하신다(렘31:31-34; 겔36:24-29).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한가운데 계신다(사33:17, 22; 겔48:35; 렘23:5-6; 습3:16-17). 그런데 로마서를 기술할 당시 유대인들은 대부분 그 땅에서 쫓겨나 유랑 생활을 함.

교회도 처음에는 유대인 중심이었으나 이제는 거의 이방인들이 중심임. 그러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유대인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들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대답: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나 이스라엘이 아니다(롬9:6-7; 2:28-29).

육체의 할례가 모든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

7절: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그의 아이들은 아니다. 씨와 아이들의 구분(창22:2; 히11:17)

바울은 로마서에 무려 60회나 구약성경을 인용한다. 바울의 요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성경의 여러 부분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어떤가? 성경이 죽은 책은 아닌가? ★★★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만 그의 아들이라고 하시며 그에게만 복을 주신다(창17:19-21; 21:12).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문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마3:9; 요8:33, 37, 39, 44). 이들은 네 명의 아버지(조상, fathers)가 있어야만 함을 알지 못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

- a) 이스마엘의 후손들(현 시대 아랍 사람들); 아브라함
- b) 에서의 후손들: 아브라함, 이삭
- c) 그리스도 당시의 유대인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 d)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었다(요8:42).
- e) 그들의 아버지는 마귀였다(요8:44).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길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8-9절: 이삭과 이스마엘, 약속의 아들, 육신의 아들(갈4:22-23, 28)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돕기 위해 아브라함이 만든 계획의 결과이다. 자연적으로 출산한 자 이삭은 초자연적으로 출산한 자(창17:17; 18:14), 이삭은 약속의 아이이다.

바울은 이스마엘과 이삭의 예를 통해 약속의 아이만 하나님의 아이임을 보여 주려 한다.

10-12절: 에서와 야곱

8-9절의 이삭과 이스마엘은 한 아버지 아브라함, 두 어머니: 사라와 하갈

이삭과 리브가는 19년 동안 아이 없이 지내다가 리브가가 드디어 아이들을 수태함.

창25:22-23, 에서와 야곱은 한 어머니(리브가), 한 아버지(이삭), 한 출생

칼빈주의자들: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영원 전에 예정되었다. No! 아이들이 태중에 있을 때 주어진 말씀, 여기서도 선택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근거한다(벧전1:2).

사람의 자유 의지가 없는 무조건적인 선택과 예정은 하나님을 불의로 몰고 간다.

두 민족이 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따른 예언의 말씀(롬9:13).

두 종류의 백성이 있다: 에서(육신의 사람) 히12:16, 야곱(믿음의 사람) 히11:21

사람의 기준으로는 에서가 선택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약속의 아이 야곱을 택하신다.

이들이 무엇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택했다. 근거: 하나님의 미리 아심

특히 여기서의 선택은 개개인의 구원에 대한 선택이 아니다.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섬기는 것에 대한 선택이다. 즉 여기는 민족적인 선택이다.

하나님의 선택은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그분의 부르심은 언제나 그분의 미리 아심에 기반한다.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롬8:29-30)

그래서 이삭의 아들이 둘이었을지라도 오직 야곱만 아브라함과 이삭의 씨이다.

13절: 말1:2-3, 여인과 스펠전의 대화

여인: “어떻게 하나님이 에서를 이처럼 미워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스펠전: “저는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 같은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을 자격이 전혀 없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하다.

모든 사람이 길을 잃고 지옥에 가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그게 사람이 받을 형벌이기 때문이다.

누구라도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이야말로 놀랄 일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놀랄 일이 아니다. 다만 그분의 은혜는 놀랄 일이다.

‘미워하다’(hate)의 의미

창29:16-18, 30, 33 라헬과 레아, 라헬은 야곱이 선택한 자(사랑), 레아는 선택하지 않은 자(미움), 마10:37과 눅14:26, 상대적 비교

롬9장의 초점: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였는가?(El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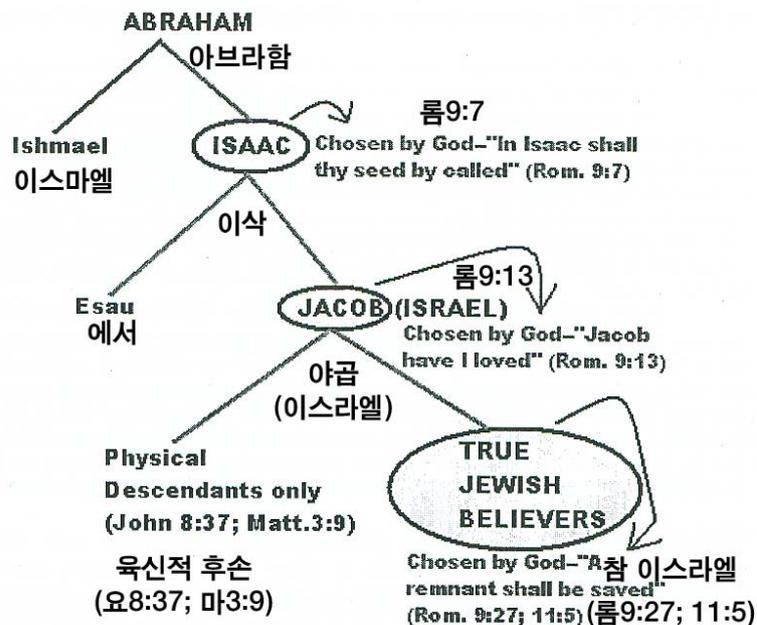
이스라엘(야곱)의 씨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만 이스라엘의 씨이다.

“내가 에서를 미워한다”는 곧 “내가 에서를 택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반대로 “내가 야곱을 사랑한다”는 곧 “내가 야곱을 택하였고 그에게 약속을 주었다”는 뜻이다.

실제로 에서도 육신의 복을 받았다(창27:26-29, 39절).

이 과정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다.



그리스도인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씨)이다(갈3:9, 26, 29; 롬4:11-12, 16).

아브라함은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아버지)이다.

- a) 믿는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다(육적 자손 No!, 육적 상속권 No!). 구원 Yes
- b) 믿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육적 및 영적 자손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갈6:16; 롬 2:28-29), 구원 Yes
- c)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이다. 구원 No!
- d)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아브라함과 전혀 상관이 없다. 구원 No!

14절: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반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 사람은 택하고 저 사람은 택하지 않는가?”

“하나님께 불의가 있다는 말인가? 하나님이 불공정하단 말인가?”

야곱과 에서와 우리에게는 불의가 있어도 하나님께는 없다(롬1:18, 29; 2:8; 3:5; 6:13).
하나님이 불의하시면 하나님이 될 수 없다(창18:25).

15-16절: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이 두 구절은 칼빈주의자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구절

칼빈주의자들의 해석: “내가 천국으로 예정한 자들을 천국으로 보낸다. 사람 편에서는 의지적으로 할 게 아무것도 없고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 No!

여기서 바울은 출33:19를 인용한다. 여기의 배경을 보자.

출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분의 명령을 어기고 금송아지를 숭배하였다.

이들은 사실 다 죽어야 했다(출32:10을 보면 하나님은 그리하시려 했다).

그런데 3,000명만 죽었다(출32:28). 백성에 대한 모세의 관심(출32:32)과 바울의 관심은 동일하다(롬9:1-3).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말아야 한다(출34:5-7).

그분께 머리를 숙이고 “주께는 불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감사해야 한다(출34:8).

칼빈주의의 가르침: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 자들을 창세 전에 정하셨다. 이들은 선택받은 자들이다.

동일한 하나님이 저주 받을 자들을 창세 전에 정하셨다. 이들은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다.

이들은 믿고자 해도 믿을 수 없는 버림받은 자들이다(Reprobates).

그러나 롬9:15는 이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15절은 단순하게 사실만 진술한다: 즉 하나님이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은 사람에게 의해 결정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다.

여기의 긍휼은 문맥 상 구원의 긍휼이다.

하나님의 긍휼은 그분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에게만 주어진다(출20:5-6).

하나님의 긍휼은 사람에게서 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난다(요1:13). 그런데 사람이 믿어야 한다.

이것은 사람의 소원에 달려 있지 않다.

이것은 사람의 노력에 달려 있지 않다.

17-18절: 파라오의 예(출9:16)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한 자, 마음이 강퍽한 자(렘17:9)

왜 긍휼을 얻지 못하였을까? 하나님이 미리 정하셔서? 아니면 그가 원치 아니해서?

파라오를 세우신 목적: 하나님의 권능과 이름을 보이기 위함.

여기의 권능은 사람을 심판하는 권능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에게 중요하다(딤후1:15; 요3:17).

그러나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그분 자신의 영광이다.

파라오의 예를 통해 모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이름을 알 수 있다: 여리고의 가나안

족속들(수2:9-10), 블레셋 사람들(삼상4:7-8).

칼빈주의자들은 파라오의 예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심판의 예로 사용한다. No!
파라오의 경우에도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 작용한다.

출3:19, “그가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이미 하나님은 파라오를 알고 있다.

그러므로 파라오를 강압하게 하는 것도 그분의 미리 아심에 달렸다.

그를 강압하게 하신 것은 그가 회개하지 않은 이후의 일이다.

모세가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의 반응: 출5:1-2, 하나님과 무관한 그의 자유 의지
하나님이 그를 강압하게 하신 때: 뱀 사건 이후에 회개하지 않을 때(출7:11-14)

하나님은 파라오를 강압하게 하셨다(출4:21; 7:13; 8:15). 그분의 미리 아심을 통해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나와야 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자신을 비난해야 하고 구원받은 자는 오직 하나님만 찬양해야 한다.

로마서 강해 제25과

로마서 9장

19-24절: 또 다른 반론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겠느냐?”

“자, 나는 애초에 이렇게 빚어졌으니 어떻게 하겠어. 이대로 지옥에 가야지. 내 책임은 아니야.”

“모두가 하나님의 책임이야.” No!

모든 사람이 아담의 형상대로 죄와 저주 가운데서 태어난다. 사실이다!

그런데 이래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다. 지옥에 가는 것은 전적으로 사람의 책임이다.

모두에게 회개하라고 하신다(행17:3).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창세 전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결정된 적이 없다.

지어진 것(창세 이후), 진흙(창세 이후), 그릇(창세 이후), 영원 전 No!

20절: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

바울은 19절의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보라고 함.

9장은 어려운 교리를 담고 있다: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심 등.

이것을 잘 이해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가 중요하다(출34:8의 모세).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 죄 투성이

그러므로 창조주보다 창조물이 더 많이 알 수 있을까?

토기장이와 진흙: 사29:16; 45:9; 렘18:1-6

21절: 토기장이의 권한

여기의 진흙은 죄 많은 인류를 말한다. 모두 죄인인 사람들 중에서 한 부류에게는 긍휼을 베푸신다.

그릇(딤후2:20)

a. 존귀에 이르는 그릇들, 수치에 이르는 그릇들

b. 조건이 있다: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이 된다(딤후2:20). 문맥 상 이런 것들은 거짓 교리이다(16-18절).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신뢰하여 그분의 피 아래로 더러운 것들을 두는 자는 영광의 그릇이 된다.

이 일을 누가 하는가? 예수님 No! 내가 한다.

렘18:3-4, 훼손된 그릇을 자기가 원하는 다른 그릇으로 만들

좋은 그릇이 되려면 순종이 필요하다(렘18:7-8절). 예레미야에서는 반대가 이루어졌다(9-10절).

하나님이 우리를 그릇으로 만들 때 우리도 거기에 참여한다.

그러므로 “왜 이렇게 나를 만들었소?” 라고 말할 그릇이 없다.

사람의 자유 의지와 하나님의 미리 아심

22절: ‘진노의 그릇들’(멸망 받을 자들)에게 긍휼을 보이심

진노: 참고 참다가 할 수 없이 결정된 최종 분노

파멸시키기에 합당한 그릇들,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예정해서 파멸시키기에 합당하게 하신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로 인해 파멸시키기에 합당하게 되었다.

매우 중요하다.

23절: ‘긍휼의 그릇들’(구원받을 자들)에게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심

이들은 이미 그분께서 미리 아심을 통해 예비하신 자들이다. 22절의 그릇들과 다르다.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 구원받을 자와 멸망 받을 자

양 민족, 34절: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

염소 민족, 41절: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

하나님은 버림받을 자들을 창세 전에 택해서 지옥에 가도록 정하지 않으셨다.

14-23절 요약:

하나님은 파라오를 왕으로 세우시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파라오에게 심판을 행하심으로써 자신의 권능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신다.

출3:17-19는 그분의 이 목적이 그분의 미리 아심에 근거를 둔 것임을 보여 준다.

하나님은 파라오에게 여러 차례 기회를 주셨으나 그는 의지적으로 거부하였다.

이에 하나님은 그를 강박하게 하시고 그를 심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 그분을 불의하다고 할 수 있느냐? No!

욥의 고백(욥42:3, 6)

24절: ‘궁핍의 그릇들’(구원받을 자들)은 누구인가?

사도 바울의 시대, 교회: 이방인과 유대인 중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구약 유대인 중심, 신약: 초기 유대인 중심, 가면서 이방인 중심

유대인들이 선민이라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대답: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신다. 하나님의 경륜의 변화

교회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없다(골3:10-11; 갈6:15)

교회 시대: 세 부류의 사람들(고전10:32-33)

25-26절: 24절의 이방인들

어떻게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호1:9-10(26절), 호2:23(25절)

호세아 시대, 북 왕국 이스라엘의 10지파,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호1:9).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호의를 입고 하나님의 아이들이 된다(천년 왕국)(호1:10; 2:23).

여기서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이 원리는 이방인에게 적용될 수 있다.

즉 하나님은 과거에 자기의 백성이 아니던 자들을 다시 자기 백성으로 만들 수 있다.

27-29절: 24절의 유대인들

“왜 유대인들은 소수만 그리스도를 믿느냐? 왜 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느냐?”

바울의 요점: 소수의 유대인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사10:22-23, 사1:9

하나님의 이스라엘(롬9:6, 11:5)

28절은 하나님의 대환난 심판을 가리킨다(사10:23). 목적은 유대인들의 남은 자만 구원하는 것, 하나님이 그 일을 끝내신다. 그것도 의로움 속에서 신속히 끝내신다(더 이상 참지 않는다).

야곱의 고난의 때(렘30:7), 삼분의 이가 죽음(슥13:8)

29절은 소수의 남은 자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여 준다. 소돔에서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다(룻은 소돔 사람이 아니다).

요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것은 이미 예언된 것을 성취하려는 것이다.

30-31절: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차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을 얻었다(롬

3:22-24; 4:5; 5:1).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따랐으나 율법으로 얻으려 하였으므로 얻지 못하였다(롬10:3).

은혜에 의한 의와 법에 의한 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자기들 수준으로 와야 구원을 받을 줄로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이방인들의 수준으로 내려가야 했다(롬3:22-23).

유대인들의 모든 특권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대체해 버렸다.

인천에서 런던으로 가려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자.

많은 이들이 인천 부두에서 점프해서 가려고 노력한다. 100% 실패

어떤 사람(이방인)은 거기서 이들(유대인)을 바라보다가 우연히 거기 정박된 배에 올라간다.

그런데 그 배가 떠나 런던으로 간다. 그는 배 때문에 가게 되었다. 점프가 아니라 이 배가 그리스도이다.

32-33절: 믿음이 차이를 만든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잘못된 방법으로 의를 구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하였다.

사8:14; 28:16

배를 다시 보자. 점프 하고 있는데 배가 오자 이들은 배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배척하였다.

사실 그들은 단순히 배에 들어가고 배가 그들을 런던으로 옮겼어야 했다.

배는 그리스도, 배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 점프는 행위

마21:42-44

돌(그리스도)에 대한 사람들의 세 가지 반응,

1. 돌에 걸려 넘어지는 것(벧전2:8)
2. 돌이 떨어져서 거기에 깔리는 것
3. 그 돌 위에 확고하게 서는 것

내가 선택받았는지 여부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전도할 때도 고민한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선택하는 자가 선택받은 자이다.

결론: 로마서 9장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따른 하나님의 주권, 10장은 사람의 책임(특히 유대인들의 책임)

로마서 강해 제26과

로마서 10장

로마서 9장은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 준다.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신다(11). 선택하신다(11). 부르신다(11). 긍휼을 보이신다(15-16). 강퍽하게 하신다(18).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서 교회를 부르신다(24).

10장은 사람의 책임을 보여 준다.

기도해야 한다(1). 복종해야 한다(3). 믿어야 한다(4).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야 한다(9-10).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12-13).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한다(14-17).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사람은 믿어야 한다(행16:31; 요3:16).

9-11장은 이스라엘을 다룸. 그러므로 10장도 이스라엘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함.

1절: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함. 롬9:1-4의 반복,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다. 그래서 유대인 개개인 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기도가 하나님의 주권과 대립되면 어찌지 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 사람 편에서는 누구라도 언제나 기도해야 한다.

사람이 구원받으면 반드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생긴다.★★★

특히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대한 관심과 걱정이 생긴다.

2절: 이스라엘이 열심은 있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이에 대해 증언함(갈1:14; 빌3:6, 9-10).

열심이 있되 지식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호4:6-7). 축구 선수가 볼을 받아 치고 나가는데 나중에 보니 반대편으로 몰고 가는 것과 같다.

3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다.

9:31-32가 주석이다. 율법의 행위로 되는 줄 알고 자기 의를 세우며 구했다(사1:10-15). 시내 산에서 구하는가? 갈보리 산에서 구하는가?

이런 사람들의 특징: 진리를 보여 줘도 꿈쩍하지 않는다. 교단과 목사와 전통과 혈통을 성경보다 위에 놓는다. 지금까지 쌓아놓은 탑을 무너뜨리려 하지 않는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므로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요14:6; 16-17). 그러므로 성도는 구원받은 뒤에 진리를 아는 정도가 계속해서 진보해야 한다.

4절: 그리스도의 율법의 끝마침이다.

그리스도께로 오면 율법을 통해 의를 얻으려는 시도에 마침표를 찍는 것이다.

이것은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이 된다. 불신자는 3절에 있다.

율법은 우리의 불의를 보여 주지만 의를 주지는 못한다(갈2:21).

빌3:9

‘Do 종교’와 ‘Done’ 복음

이 세상의 많은 일은 구분이 어렵다. 그런데 종교와 복음은 확실히 구분된다.

점다, 거무스름하다, 거무튀튀하다. 노랗다, 누렇다, 노르스름하다 등 언제부터 저녁이냐? 6시, 7시, 확실하지 않다.

“아침에 있어났는가? 점심을 먹었는가? 오전 예배를 드렸는가?” 확실하다.

종교는 계속 진행형이다(개역성경의 벵전2:2). “갓난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복음은 이미 끝난 것을 믿는 것이다(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요19:30).

끝은 곧 끝이다. 더 이상 구원을 위해 할 것이 없다.

히브리서 10:11-14, 구약시대 제사장들과 예수 그리스도 비교
 누가 이미 다 이룬 것을 믿지 않고 내가 또 하면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단번 속죄에 무언가를 더하지 말라. 끝이 났다. 천주교의 미사

5절: 율법의 복음은 사실 사망 선고이다.

레18:5 인용, 율법을 다 지키면 가능하다.

율법: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복음: 믿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롬8:3-4

율법	은혜
거룩함을 요구한다.	거룩함을 준다.
양이 목자를 위해 죽는다.	목자가 양을 위해 죽는다.
네가 사랑하라(마22:37).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다(요일4:10).
수많은 희생 예물(히10:1)	단 하나의 영원한 희생 예물(히10:12-14)
다 저주 아래 있다(갈3:10).	용서받는다(롬4:7-8).
심판을 받는다(롬2:12).	정죄가 없다(롬8:1).

6-7절: 믿음에서 난 의(신30:11-14)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힘으로 내리고 오려 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신다(요3:16; 딤후1:15).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힘으로 살려내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신다(행13:30; 갈1:1; 엡1:20; 골2:12).

지금 또 다시 그분을 내려오게 하거나 살리려고 하지 말라. 이미 그 일은 끝났다(요19:30; 롬10:9).

8-9절: 믿음의 말씀이 가까이 있다.

예수님이 멀리 있지 않다. 가까이 있다. “배 이야기로 하면 배가 가까이 있다. 믿고 올라타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입에 있고 마음(가슴)에 있다.

그런데 가까이 있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

항상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주님을 확실히 믿어야 한다.

십자가 옆의 강도: 가까이 있었다. 처음에는 부인하였으나 회개하고는 입으로 시인하고 믿었다(막15:32; 눅23:39-43).

8절의 ‘믿음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나? 9절이다. ‘시인한다’는 말은 동의해서 같은 것을 말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말은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임을 믿고 그대로 말한다는 뜻이다(요5:9-12). 마17:5를 따라 요일4:15처럼 해야 한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요1:14) 죄 많은 사람을 위해 죽으셨으므로(딤후1:15),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이 사실에 동의해야 한다(요일4:2-3).

즉 그분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믿어야 한다(요1:41; 4:25-26, 42).

하나님/사람(사7:14), 강하신 하나님(사9:6), 죄인들의 대속 헌물(사53:4), 영원한 왕(미5:2), 주 우리의 의(렘23:5-6)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데는 희생이 따른다(요9:22; 12:42). 사람들의 영광 No!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그분을 시인하자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다(마10:32; 눅12:8).

시인의 반대는 부인이다(요1:20; 요일2:22-23).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딤후1:16; 딤후2:19; 요일2:3-4).

디모데 같은 사람이 되자(딤후6:12).

로마서 강해 제2과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롬4:3, 5)

믿는 것: 내적, 시인(고백): 외적

믿음은 반드시 선한 행위를 동반한다(엡2:8-10; 약2:14-26, 26절).

시인(Confession)은 믿는 것을 소리 내어 보여 주는 것이다. confess: 시인, 작백(요일1:9)

믿음은 안 보인다. 행위와 시인으로 인해 믿음이 드러난다.

시인의 반대는 부인이다(요1:19-20; 요일2:22-23).

믿으면 말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시인이 구원은 아니다. 시인은 구원의 결과이다.

믿음이 뿌리이고 시인이 열매이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마10:32; 롬10:9).

그러나 그리스도를 시인하다고 다 주님의 사람은 아니다(마7:21-23; 딤텔1:16).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딤후2:19; 요일2:3-4).

모든 음식물 깡통에는 내용물이 적혀 있다. 내용물: 믿음, 그 적힌 것: 시인

11절: 10절에 대한 설명

믿는 자는 시인해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어찌 그분의 은혜를 말하지 않을 수 있는가?(행4:18-19)

12절: 동일한 주께서 그분의 이름을 부른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

롬3:22-23, 하나님의 의에 차별이 없다. 죄인이라는 점에서 차별이 없다.

그런데 구원받으면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두 한 주님을 섬기고 고백한다(행10:34-36).

주님의 선하심은 맛 본 자만 안다(시34:8; 뵤전2:3).

주님의 부요함(엡1:3, 7; 고전2:9), 물질적인 부요함을 약속하지 않았다.

13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골2:32). 유대인 문맥

사람은 불려야 한다. 주님은 구원하신다(렘33:3의 오용).

골2:33는 여호와와 이름, 행2:21과 롬10:13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은 여호와이시다.

그래서 신구약 모두 '주'로 번역해야 한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 자들: 세리(눅18:10-14, 13), 강도(눅23:39-43, 42)

14-15절: 선교 구절

순서: 파송, 복음 선포, 복음 들음, 주님을 믿음, 그분을 부름

구원받은 이들은 듣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의 빛을 지고 있다(롬1:15-16).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내적 믿음의 표현이다.

부르기 전에 먼저 믿어야 한다(17절).

믿기 전에 들어야 한다(요9:35-38): 그리스도가 누구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음을 성경을 통해 들어야 한다(고전15장의 복음).

듣기 전에 복음이 선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복음 선포자가 있어야 한다.

천사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한다.

선포하기 전에 하나님에 의해 보내어져야 한다. 복음 선포자는 하나님이 보내신다.

우리는 기도한다(마9:36-38, 38). 내가 하고 싶다고 되지 않는다(행13:1-3).

선포자가 없이는 복음 메시지가 없고 믿음도 구원도 없다. 성도들의 책임
이사야서 말씀(사52:7)

거짓 대언자들(렘14:14-15; 23:21, 32; 갈1:8-9)

선교사의 간증: 사람들이 외모로 인해 조롱할 때, 아름다운 발

16절: 거부하는 자들이 많다(요일3:23).

하나님의 화평, 용서, 부요함, 의

사53:1, 메시아 예언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숨겨졌다(고후4:3).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어리석음이다(고전1:18). 우리에게는 권능이다(24).

사실 사53:1은 요12:37-38의 성취이다.

17절: 들음, 하나님의 말씀

여기의 '들음'(hearing)은 16절의 '전한 것'(report)과 동일하다.

복음 선포자가 전한 것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전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권능(히4:12), 효력(살전2:13), 생기(요6:63, 68; 히4:12), 침투(히4:12;
엡6:17), 지혜(딤후3:15)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의 사실들에 고정되어야 하고 이 사실들은 말씀 속에 있다.

성경으로 불신자의 가슴을 찢어야 한다(성령님의 겹).

성경을 변호하거나 증명하려 할 필요가 없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나머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신다(사55:10-11).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의 사람이어야 한다.

18절: 왜 믿지 않는가?

듣지 못해서가 아니다. 특히 유대인들

듣고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19:3-4, 온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계시를 안다. 롬1

그 결과 그들은 변명할 수 없다(롬1:20).

선포자가 없이는 복음을 들을 수 없다(롬10:14). 그래서 교회는 모든 창조물에게 선포자를
보낼 책임이 있다(막16:15; 마28:19-20). 그런데 실제로 선포자를 보내는 분은 하나님이
다(롬10:15; 마9:38). 그래서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적절한 사람을 적절한 곳에 보내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들었다.

그러나 죄로 인해 그 메시지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내버렸다(롬1:21-23, 28).

19절: 이스라엘은 알았다.

모세의 말(신32:21, 15-20). 백성이 신이 아닌 것들로 하나님을 자극하자 하나님은 백성이
아닌 자들로 그들을 자극함. 그들이 다른 신을 택하자 하나님은 다른 백성을 택하려 하심.

어리석은 민족(이방인들)이 복음을 믿음. 성경도 있고 지혜도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림.

20-21절: 이스라엘의 불순종(사65:1-2)

하나님을 찾지 않던 자들이 그분을 찾음(롬9:30; 눅19:10). 구원의 배가 오자 그들은 그냥
믿고 올라탐. 하나님은 종일 손을 내밀어 거역하는 백성을 부른다(잠1:24; 사65:2). 특히
이스라엘 백성을(마23:37).

로마서 강해 제28과

로마서 11장

1절: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셨는가?(롬10:21), No!

이번 장의 두 가지 요점

(1) 온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한 것은 아니다. 바울처럼 남은 자가 있다. 중요 구절 롬11:5(남은 자)

(2)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은 영구한 것이 아니라 잠정적인 것이다.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생길 때가 있다(26-27절). 25절: 눈머는 일은 부분적으로 잠정적으로 생긴다. 지금도 유대인 가운데는 눈을 뜨고 바로 보는 자들이 더러 있다. 천년왕국 바로 전에 이스라엘에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생긴다(슌12:10).

그래서 바울은 현재와 미래의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다룬다.

현재: 아직도 소수이기는 하지만 유대인 가운데 남은 자가 있다(롬11:5). 하나님의 현재 계획 안에 유대인들도 들어 있다.

미래: 회개하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롬11:6). 하나님의 미래 계획 안에 유대인들도 들어 있다.

그들의 넘어짐(fall)은 결국 그들의 충만함(fullness)으로 끝날 것이다.

그들을 '버린 것'(casting away)은 결국 그들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reception)으로 끝날 것이다(11:15).

하나님의 구원 나무에서 그들이 잘려져 나간 것은 결국 그들이 다시 접붙여짐으로 끝날 것이다(11:17, 19, 21, 24).

하나님은 약속들과 언약들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놀라운 미래가 있다. 하나님은 결코 이것을 바꾸시지 않을 것이다(11:28-29).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아니다. 그들의 불순종에도 여전히 손을 내미신다(롬10:21).

바울은 자기를 그 예로 든다(빌3:5). 교회는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 대체 신학 No! 구원받은 성도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지만 육적인 이스라엘은 아니다. 이스라엘의 보존(렘31:35-37; 33:25-26)

2-3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왕상 19장, 북 왕국 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 바알 숭배, 극심한 배도의 때, 엘리야는 자기만 혼자 남은 줄 알았다. 모두가 바알을 숭배하는 줄 알았다.

4절: 하나님의 대답(왕상19:18)

묵묵히 지내는 7,000명, 엘리야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딤후2:19).

5절: 바울의 시대에도 여전히 남은 자가 있다(유대인).

엘리야 시대 7,000명, 바울의 시대 적어도 7,000명 이상(행2:41의 3,000명; 4:4의 5,000명), 바울, 베드로, 요한, 야고보 등,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불신자, 소수만 신자. 그럼에도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선포되었고(롬1:16)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요4:22).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 '있느니라'는 완전 시제 즉 과거, 현재, 미래에도 그렇다.

'현 시대'라는 말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이 현시대에 하시는 일

1. 이방인들을 찾아가신다(행15:14).

2. 교회를 세우신다(마16:18).

3.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시킨다(고전12:13).

4. 교회에 사람들을 더하신다(행2:47).

5.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방인들 가운데서 특별한 일을 하신다(롬11:25). 다
차면 교회는 휴거가 되고 7년 환난기가 온다.

6절: 은혜와 행위는 상극으로 둘이 함께 공존할 수 없다.

구원도 100% 은혜로만 아니면 100% 행위로만 가능하다. 은혜+행위는 불가능

은혜는 하나님이 거주 주시는 선물, 행위는 사람의 노력(롬4:4-5)

엡2:5-9(5, 7, 8절의 은혜, 8의 거주 주시는 선물)

딤후3:3-8(7절의 은혜, 행위는 배제됨)

우리는 은혜로

선택받았다(롬11:5). 구원받았다(엡2:5, 8). 의롭다 함을 받았다(딤후3:7). 구속받고 용서받
았다(엡1:7). 부요하게 되었다(고후8:9). 모든 필요를 공급받는다(고후9:8). 어려움을
견뎌낸다(고후12:9). 영원한 소망과 위로를 얻는다(살후2:16). 기도 중에 하나님께 나아
간다(히4:16).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는다(딤후2:11-12).

그래서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다 은혜로 된 것이다(고전15:10).

개역성경(NIV)은 뒷부분을 삭제함.

7절: 이스라엘의 다수와 소수

다수의 이스라엘은 얻고자 한 것을 얻지 못하였다. 소수의 선택받은 자(남은 자)만 얻었다.

‘소수의 남은 자’ 외의 다른 이들은 ‘나머지’이며 이들은 눈이 멀었다.

다수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 하다가 얻지 못하였다(롬9:31-32; 10:3).

소수는 믿음으로 그것을 얻었다(롬9:32; 10:4).

‘눈멀었다’는 말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이다(11:25의 눈먼 것과 같다).

8-10절: 구약의 대언의 말씀을 통한 예

사29:10; 6:9 인용, 불신을 가지면 영적 예민함이 사라진다.

시69:22-23, 고난당하는 메시아 시편(21절 참조)

11절: 이스라엘은 넘어졌어도 영구히 넘어지지 않았다.

이들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 더 좋은 날이 온다.

그리스도의 초림: 그분을 영접하지 않음(요1:12). 재림: 영접함(마23:39)

지금은 눈멀었으나 나중에는 보게 된다(슌12:10):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의 영광 간구하는
영을 부어 주신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그들에게는 현재 저주이지만 이방인들에게는 복이 되었다.

지금 교회에는 대부분이 이방인이다. 요1:11-12를 보라.

이스라엘의 넘어짐에도 목적이 있다: 이방인들을 구원하려는 것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저들이 보고 질투하도록(행10:34-36, 11:8의 고넬료 사건)

로마서 강해 제2과

로마서 11장

12절: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쇠퇴함의 결과

그들의 넘어짐이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었다(엡1:7; 고후8:9).

그들의 쇠퇴함의 예: 행2장부터 9장까지는 100% 유대인들의 교회, 이제는 거의 이방인들의 교회, 지금은 이방인들이 충만하게 되는 때, 나중에 이스라엘이 충만하게 되는 때가 온다.

	유대인들이 가진 것 혹은 약속 받은 것	대다수의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가 누리는 것
구원	유대인에게서 남(요4:22)	유대인의 넘어짐으로 교회에 구원이 옴(롬11:11; 행28:28)
복	아브라함(창12:2) 유대인(민6:27)	하늘의 영적인 모든 복(엡1:3; 갈3:14)
특별한 백성	출19:5-6	딤후2:14; 벧전2:9
택한 백성	신7:6-7	엡1:4; 살후2:13
구속 받음	대상17:21	엡1:7; 고전6:20
안식	사28:12; 30:15	마11:28-29
왕국	렘23:5-6; 눅1:32-33	골1:13; 롬14:17
하나님께 가까이 나감	신4:7	엡2:13
거룩한 말씀을 소유함	신4:8	요17:8, 14
용서의 복	시32:1; 렘31:31, 34	엡1:7; 히10:17
성령님의 약속	겔36:26-27	고전6:19; 롬8:9
지성소에 나감	대제사장만(히9:7)	모든 신자(히10:19-22; 4:16)
아브라함의 자손	요8:37, 39; 마3:9	갈3:7, 9, 29; 롬4:11

13-14절: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

행9:15; 갈2:7-8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역자지만 유대인들을 잊지 않았다. 자극해서 구원하려고(롬9:3; 10:1).

15절: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것이다.

여기의 '버리는 것'은 -잠정적인 것- 1절의 '버리는 것' - 영구한 것 - 과 다르다.

지금 하나님의 호의를 받지 못하는 것을 '버리는 것'으로 표현함.

12절과 평행 구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실 때가 있다(슌12:9-11; 마23:37-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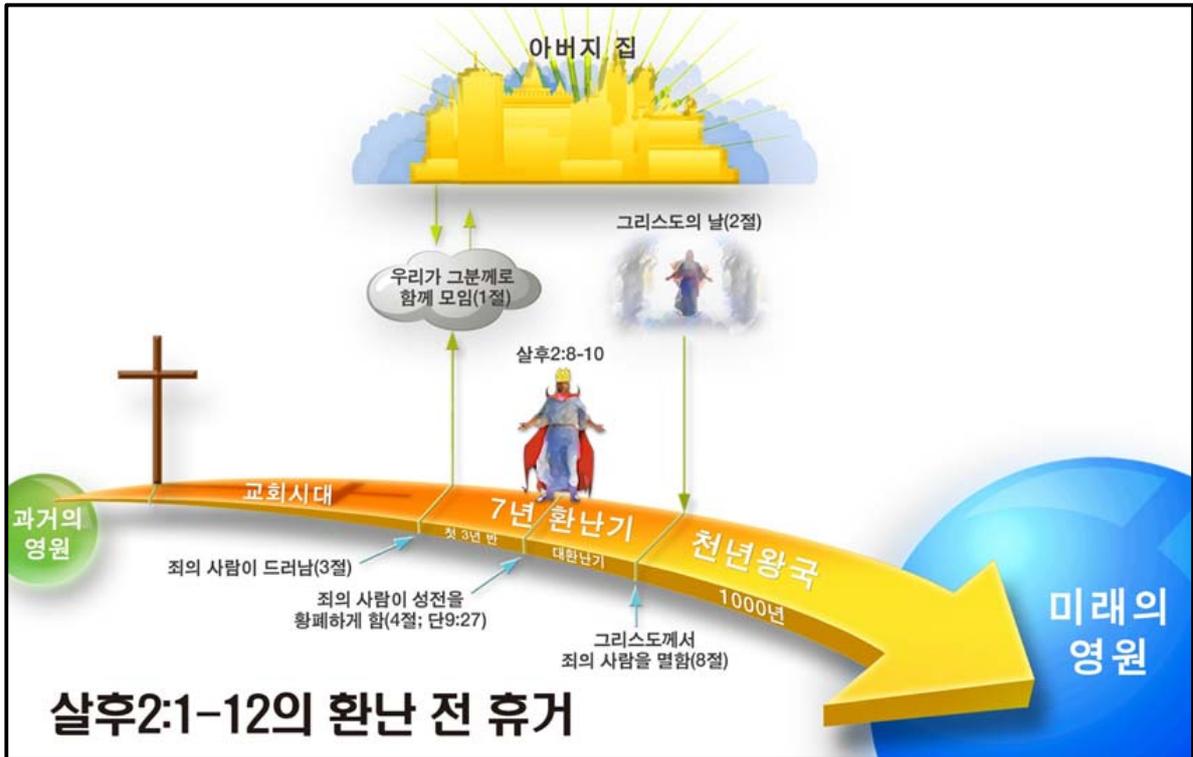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것: '새로운 시대', '다시 나게 하는 때'(사11:9; 마19:28; 행3:19)

천년왕국(Millennium) 계20:1-6에 기록된 대로 땅에서 1000년 동안 지속되는 그리스도의 왕국. 구약의 대언자들은 즐기치게 이 기간이 온 우주가 의로 치리를 받으며 온 땅이 복을 받는 때라고 묘사했다. 천년왕국을 믿지 않는 자들

시2:8-9; 계12:5; 사11:9-10

이런 구절의 왕국은 결코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앞으로 주님의 재림 이후에 1000년 동안 문자 그대로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첫 아담은 죄를 지어 땅에 의의 왕국을 세우려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지 못하였으나 둘째 아담 예수님은 죄를 없애고 의와 평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왕좌를 둔 채 온 땅을 통치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실 것이다(단7:14;

계19:15; 시72). 그 이후에 지금의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온 우주에 가득하게 되어 다시는 반역과 죄가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된다.



살후2:1-12의 환난 전 휴거

이때에 이스라엘은 자기 땅으로 돌아온다(렘30:3; 31:8-9; 겔39:25-29; 암9:11-15). 새로 부활된 다윗의 왕국의 백성이 된다(사9:6-7; 33:17; 44:6; 렘23:5; 미4:2-3, 7). 특별한 복을 받아 민족들 중에 으뜸이 된다(민23:9; 사14:1-2; 49:22-23; 60:14-17). 또 영적으로 부흥할 것이다(렘23:3-6; 겔36:25-26; 슥13:9; 말3:2-3).

경배의 장소로 천년왕국 성전이 지어지고(겔40-48) 제사장들이 실제적으로 희생 예물을 바친다. 이것은 결코 속죄를 위한 예물이 아니고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의 사역을 기념하는 것이다. 전쟁이 없다(미4:3), 완전한 정부(사9:6-7; 33:22), 질병이 없다(사35:5-6; 33:24) 땅도 기능을 회복하여 많은 열매를 맺고(사35:1-2) 산과 골짜기가 모두 평지로 변하며 온 세상의 기후 역시 온화하게 되고(사40:3-4; 슥14:4) 예루살렘에도 큰 변화가 생기며 왕의 왕좌를 둔 곳으로 모든 곳보다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슥14:4; 10).

또 이방인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왕에게 경배하고 장막절을 지켜야 한다(슥14:16-21). 천년왕국에는 부활한 몸으로 예수님과 통치하는 사람들이 있고 부활하지 않은 몸으로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 즉 7년 환난기를 거쳐 살아남은 채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있으며 그들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그리스도 이전의 이방인과 유대인들(부활한 몸); (2) 신약 교회 시대 사람들(부활한 몸); (3) 환난기에 구원받은 유대인과 이방인들(부활한 몸); (4) 환난기를 통과하고 살아남은 유대인과 이방인들(부활하지 않은 몸); (5) 천년왕국 기간에 태어난 사람들(부활하지 않은 몸).

7년 환난기를 통과하고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양들로 묘사되어 있다. 이들 중 얼마는 길으로는 충성을 다하는 체 하지만 왕국이 끝나면서 사탄이 풀려나면 기회를 타서 속 감정을 드러내며 반역을 일으키고 결국 사탄과 함께 멸망하게 된다(계20:7-10). 이때에는 사람의 수명이 다시 길어져서 창조의 시작 때처럼 거의 1000세까지 살며 또 죽기도 하며 짐승 세계의 변화가 생긴다(사65:19-25).

로마서 강해 제3과

로마서 11장

16절: 그 이유(For로 시작함)

민15:17-21, 가나안에서의 거제 헌물, 빵 반죽의 처음 것으로 만든 납작한 빵으로 거제 헌물 그것이 거룩하면 반죽 전체도 거룩하다. 여기서 17-24절의 올리브 나무로 옮겨간다. 뿌리가 거룩하면 열매도 거룩하다. 첫 열매와 뿌리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다(롬11:28).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그들은 거룩하다.

17절: 유대인들의 일부가 꺾이고 이방인들이 접붙여짐

나무에는 뿌리와 함께 가지들이 있어야 한다. 불신 유대인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전혀 닮지 않았다. 원래의 가지들은 유대인, 야생 가지는 이방인, 재배되는 올리브 나무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장소, 야생 올리브는 복의 장소가 아니다(엡2:11-13). 그런데 야생 가지들이 재배되는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져서 그 나무의 뿌리와 기름짐에 참여하게 되었다(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해 롬9:30-32). 그래서 믿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의와 영을 누리게 되었다(갈3:14). 원래의 가지들은 대부분 잘려나갔다. 불신으로 인해(20절).

18절: 이방인들을 향한 강한 경고, 아브라함이 뿌리이다.

나무에는 뿌리와 함께 가지들이 있어야 한다. 불신 유대인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전혀

19-20절: 그들이 잘려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은 두려워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생긴 공백을 채우는 자는 교만하지 않을까 늘 염려해야 한다. 이방인들은 배가 오자 탄 것뿐이 없다.

잘려나가고 접붙여진 것의 원인: 불신과 믿음, 이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21절: 원 가지가 잘려나간다면 접붙여진 가지는 얼마나 더 쉽게 잘릴 수 있을까!(구원 문제가 아니라 복의 문제이다).

22절: 엄하심과 선하심

엄하심: 불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 복의 자리에서 잘려나감

선하심: 믿는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 그런데 꾸준히 거해야(continue) 복이 임한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엄하심은 영원토록 지속되지 않는다(23절).

-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한다. 이것은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을 말하는 구절이 아니다. 여기서는 개개인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그룹을 다룬다. 하나님의 경륜이 바뀐 것을 다룬다. 즉 복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간 것과 접붙여진 것을 다룬다. 결코 구원 받은 사람(개인)이 구원을 잃고 지옥에 가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준 자들은 결코 상실되지 않는다(요6:37-40; 10:27-30). 하나님이 지키신다.
- 참된 신자는 결코 구원을 잃지 않는다(눅22:31-32; 뎀전1:5). 징계는 받을 수 있다. 바울과 함께 배에 탄 사람들은 생명이 보장되었다(행27:22, 24-25). 그런데 그들의 생명이 보장되는 길은 배 안에 있는 것이었다(31절). 그들은 경고를 받았다.
- 성도들의 안전 보장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믿음의 배로 보장되었다(요10:27-30). 그런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배를 떠나지 말라고 지속적으로 경고하는 것이다. 이런 경고들은(골1:23; 행13:43; 14:22) 우리를 지켜준다. 그래서 배 안에서 넘어질 수는 있으나 배 밖으로 나가는 신자는 있을 수 없다.

23-24절: 유대인들에게 미래가 있다

유대인들이 불신 가운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밝은 미래가 있다. 다시 원래의 나무 즉 복 받는 장소에 접붙여질 수 있다. 야생 가지들로 붙이는데 원 가지야 얼마나 쉬운가? 야생 가지들을 붙이는 것은 '본성에 역행하는 일'이다(24).

대부분의 접붙이는 방법: 야생 나무에 좋은 가지를 접붙인다.

그런데 바울은 좋은 나무에 야생 가지를 접붙이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이 이것을 모르실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한 복의 장소에 붙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본성에 역행하며'라는 말을 사용한다. 자연적인 방법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25절: 현 시대 유대인들의 대부분이 불신 가운데 있는 이 신비를 알려주기 원했다.

성경의 '신비'는 과거에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은 것을 뜻한다(엡3:4-5, 9; 롬16:26).

이스라엘의 불신의 신비는 과거에 알려지지 않았다(다윗, 모세, 로마 성도들 다 모름).

지금 바울은 현 시대에 하나님이 하고 있는 특별한 일에 대해 말한다(행15:14).

이 현 시대는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이고 이때에 대부분의 이스라엘은 눈이 멀(고후3:14-16).

유대인 개개인의 수건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 치워질 수 있다. 그러나 민족에게서 치워지는 일은 환난기가 끝날 때 이루어진다(고후3:16; 롬11:26). 이방인들이 자만해서는 안 된다.

(1) 유대인들의 눈 먼 것은 일부분에게만 해당된다.

(2) 이 눈먼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정적인 것이다.

(3) 이스라엘의 충만함(12절)은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루어진 뒤에 임한다. 현재 주님은 교회를 세우신다. 교회가 충만하게 될 때까지 이 일이 이루어지고 교회는 휴거된다.

이방인들의 충만함은 현 시대 교회와 상관이 있다(오순절부터 휴거까지).

눅21:24의 이방인들의 때는 이스라엘 민족과 상관이 있다: 바빌론 왕국으로부터 시작되어 이방인 권력이 모두 무너지는 때까지(느부갓네살로부터 지상 강림까지, 단2:34-35, 44)

26절: 이스라엘의 충만함

'믿음을 가진'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음(마23:37-39; 24:13-14, 15-22, 29).

은성경의 '신비'는 과거에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은 것을 뜻한다(엡3:4-5, 9; 롬16:26).

이스라엘의 불신의 신비는 과거에 알려지지 않았다(다윗, 모세, 로마 성도들 다 모름).

구출자(사59:20; 63:1-6).

27절: 이스라엘과의 언약에 따른 죄의 제거

어떤 언약인가? 새 언약이다(렘31:31-34). 새 언약이 히브리서에도 기록되어 있지만(히 8:7-12) 1차적으로 이것은 유대인들을 향한 약속이다.

28절: 유대인들의 위치

복음에 관하여는 원수(살전2:14-16)

이들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한다. 유대인들에 대해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민23:19-20).

29절: 28절의 이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할 수 없는 것이다.

30-32절: 믿지 않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은 진노의 대상인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분이시다.

33-36절: 하나님 찬양

롬9:19-20에 대한 답변, 하나님은 심판자(33), 교사(33): 하나님의 길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주시는 분(35; 고전4:7)

하나님은 모든 것의 원천(of Him), 통로(through Him), 목표(to Him)

로마서 강해 제3과

로마서 12장

바울 서신의 특징: 앞부분은 교리(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뒷부분은 성화(우리가 할 것)

로마서: 1-11장, 12-16장, 에베소서: 1-3장, 4-6장

성도들의 성화(행위)의 근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행하신 일

1절: '그러므로'는 1-11장의 모든 내용에 근거해서(죄, 죄인, 심판, 은혜, 칭의, 성화, 영화, 교회와 이스라엘, 롬8:28-30)

형제들: 성화의 대상은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심

간청한다: 율법은 명령하지만 은혜는 간청한다. 율법의 순종은 두려움에서, 은혜의 순종은 사랑에서 나온다(고후5:14).

몸을 드러라: '드린다'는 '내주다'(yield, 롬6:13)와 같은 말이다. 몸(고전6:19-20)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몸(우리 자신)을 드러야 한다.

희생물: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는 제사장이다. '자기 몸을, 자기 자신을 드리는 제사장'

살아 있는: 그런데 그 희생물은 구약의 제물과 달리 살아 있다.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드러야 한다(롬6:13).

거룩하다: 하나님을 위해 용도가 구별되었다.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희생물

합당한: 논리적이다. 그 이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물이 되셨으므로 우리는 드리는 것은 논리적으로 합당하다.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곧 우리의 섬김이다

마케도니아의 성도들(고후8:5)

성도들은 항상 롬12:1을 유심히 보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고전6:19-20).

우리 몸을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

2절: 두 개의 명령(앞의 부정적 명령과 뒤의 긍정적 명령)

이 세상, 요일2:15-17

사탄은 이 세상의 신이다(고후4:4; 갈1:4).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배도하였다(골4:14; 딤후4:10).

딤후2:12의 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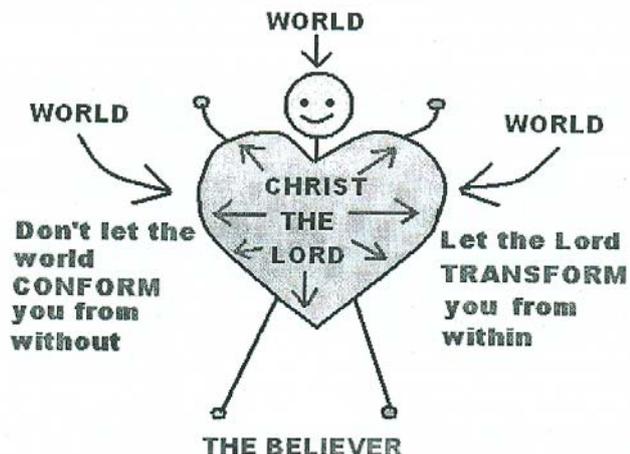
동화되다(conformed): '형태가 같게 되다', 세상이 비집고 들어와 우리를 세상과 똑같이 만들지 못하게 하라.

변화를 받다(transformed):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마17:2), 주님의 내적 영광이 겉으로 드러남.

여기와 고후3:18에서 이 단어는 성도들이 주님과 닮아가는 것을 뜻한다.

고후3:18에서는 성령님의 사역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에 동화되어야 한다(롬8:29). 이 일을 꾸준히 계속해서 해야 한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까지(요일3:2),



그런데 이런 변화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

그러면 이런 변화는 어떻게 가능한가?: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도덕적/영적 비전과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게 바꾸는 것
하나님의 생각 자체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면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만 한다.

이렇게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언인지 입증하려고 노력한다.

입증하다: 시험해서 찾아내는 것, 예언 기도로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나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을 원한다.”고 말한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인도〉 피터 블룸필드, 성서유니온

하나님의 뜻: 구원받은 성도가 기도로 로그인하면 하나님이 매번 이메일을 보내시는가?

뜻을 알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가? 기도 시간 늘리기, 금식 기도, 영험한 사람 만나기
웃, 직업, 배우자, 학교, 교회 등

1. 잘못된 관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하나님의 인도 혹은 뜻이란 그런 계획을 찾아내는 일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 가지 일만 일어나야 한다.

결혼: 내게 단 한 사람의 배우자가 내정되어 있고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찾는 게임을 시작해야

한다. 모두가 형사처럼 눈이 별장게 되어 ‘하나님의 뜻 발견하기’ 수수께끼 게임 시작

문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은 없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신발, 아침 식사, 입을 말씀, 휴가지, 자가용으로 가나, 버스(지하철)로 가나?

불가능하므로 모든 사람은 상식, 기호에 의거하여 자유롭게 선택한다.

종교적인 사람만 “이렇게 하도록 인도를 받았다. 그래서 평안하다”고 주장한다.

2. 올바른 관점: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는다. 계시된 뜻, 숨겨진 뜻

하나님의 뜻	
드러난(계시된) 뜻	숨겨진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획
도덕적 뜻	주권적 뜻
교훈(마땅히 일어날 일)	섭리(앞으로 일어날 일)

드러난 뜻: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신 것, 우리의 생각과 언행의 기준이 되는 모든 윤리적인 원칙들, 성경 66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지 알려줌.

숨겨진 뜻: 주권적 뜻, 하나님이 영원토록 정하신 뜻, 역사 속에서 일어나야 할 일들의 청사진

1. 사건이 일어난 후에야 이 뜻을 알 수 있다.

내일 아침에 있을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내일 오후에 알 수 있다.

이런 뜻은 우리가 알아야 알 수 없다. 우리의 인생 지도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수십억 개의 주권적 뜻 가운데 한 개다. 하나님은 이런 뜻을 알려주시지 않는다.

신29:29, 감추어진 뜻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에 다 있다.

성경에 따라 행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2. 그 뜻을 알아도 소용이 없다.

안다 해도 그 뜻을 바꾸지 못한다. 심지어 죄와 실수도 다 그 안에 들어 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 심판받을 존재는 단 하나도 없다. 심지어 마귀도 이 뜻을 거스를 수 없다. 우리는 명백히 드러난 뜻에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

심판을 받는다.

아담과 이브 이야기: 저녁 식사 준비, 이브는 하나님의 완벽한 뜻을 거스르고 싶지 않았다. 그 많은 과일 중에서 무엇을 먹을까?, 하나님께 여쭙어도 대답이 없다. 아담이 여쭙어도 대답이 없다. “계시가 없으니 어찌지?” 이들에게는 단 하나의 드러난 명령이 있었다(창 2:16-17).

사과가 먹고 싶은 아담은 “사과를 먹는 것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니 그렇게 합시다.” 이브에게는 평안이 없다. 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사과 요리 방법: 으깬까요, 파이 안에 넣을까요? 그냥 껍질을 까서 먹을까요? 사과 파이는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아담의 기도: 아무 응답이 없다. “원하는 대로 먹읍시다. 우리가 결정하라고 하시는가 봅니다.”

이브의 걱정: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거스르는 것 아닌가요?

두 사람의 합의 내용: 금지된 열매 외에는 다 먹어도 된다. 우리는 폭넓은 선택의 폭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범위 안에서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브의 문제: 단 하나의 완벽한 뜻을 찾으려는 것, 그러나 그런 것은 없다. ★★★

우리는 의사를 결정할 때 ‘드러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면 된다.

“하나님의 뜻은 동그라미 안에 찍혀 있는 자그마한 점이 아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가 가능한 거대한 강과도 같다.

그 가능성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수백 혹은 수천 가지의 대안적 선택들이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무엇을 보려고 하는 것은 불신이다(고후5:7).

문제: 성도들은 폭넓은 자유보다 끝도 없는 규칙들을 편안하게 여긴다. 자유를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도록 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알려고 노력하지 말고 드러난 뜻을 알고 우리의 자유 의지를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는 것이다.

종교적 언어를 사용하지 말라.

“내게 비전이 생겼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 문제를 두셨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한다.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도록 나를 인도하셨다.”

이것은 틀린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메일을 주시지 않는다(전11:5-6).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했다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확실하게 그것이 틀렸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히11:6, 8

로마서 강해 제3과

로마서 12장

2절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기도, 성경이라는 명백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데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성경의 충분성을(딤후3:16-17) 인정하지 않는 기도는 오히려 해가 된다(잠28:9). 새 계시 요구

1. 성경의 바른 해석을 위해서 기도한다. 문맥에 맞게 볼 수 있도록(딤후2:15)
2. 결정을 내릴 상황을 바르게 분석할 수 있도록, 어떤 결정이 가장 좋을지 분석하기 위해서
3. 성경에 복종할 수 있는 겸손과 영적 훈련을 위해서, 성경이 내 소욕과 부딪힐 때 자기 부인
4. 하나님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할 수 있도록(잠3:5-6)

3절: 2절에서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동화되는 것은 먼저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다.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다.

내게 주신 은혜(딤후1:12-16)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위치가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 자신의 영적 선물과 사역이 무엇인지 바르게 평가해야 한다. 자기의 선물을 평가하고 인식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자신을 잘못 평가하는 것은 모두에게 해롭다. 과대평가와 과소평가 모두 해롭다. 둘 다 교만의 결과, 모세의 예(출4:1-13)

나 자신에 대해 위치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갈6:3). 우리가 무(無, nothing)라는 것을 알면 하나님께서 nothing에서 something을 만들어 내신다. 6일 창조도 nothing에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사6:1, 5; 뱀전5:5).

‘믿음의 분량’의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사용하기 위한 믿음이다. 개개인이 자신의 선물들을 알고 믿음으로 그것들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신다.

4-5절: 몸의 지체가 다 다른 직무를 수행한다.

고전12:12-31, 지역 교회의 모든 성도가 건강해야 몸이 활력을 얻는다.

지체(member)

6-8절: 영적 선물, charisma(은혜 선물), charis(은혜), 모두에게 은혜를 주기 위한 선물 선물들(은사들): 고전12-14(고전12:1, 7-11), 엡4(엡4:11-12), 믿음의 분량, 대언하는 자는 자기의 믿음의 분량만큼 한다. 영적 선물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며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

(1) 대언: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이다. 성경이 없을 때에만 존재하던 잠정적인 선물이다. 엡2:19-20의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는 잠시 있는 것이다.

대언자(The prophet):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표한 사람

- a. 과거의 일을 안다(Hindsight): 모세의 경우 창조부터 2500년 동안의 일을 계시로 알았다.
- b. 현재의 일을 안다(Insight): 이사야, 아모스, 요엘 등은 그들의 시대의 필요와 죄를 알고 대언하였다.
- c. 미래의 일을 안다(Foresight): 다니엘의 70이레, 세상 왕국 변천, 에스겔의 천년왕국
- d. 이 중요한 단어를 선지자로 바꾸면 문제가 된다. ‘prophecy’ 혹은 ‘prophet’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500회 이상 나오며 성경 기록 그 자체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현대 영어사전을 살펴보면 이 단어의 주된 의미가 ‘예언하다’이므로 개역성경의 번역자들은 이것들을 앞날을 예견하는 ‘예언’, ‘선지자’ 등으로 번역했다. 그러나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남의 말을 대신 전한다’는 ‘대언’(代言)이며 성경의 용례 역시 전적으로 이것을 가리킨다. 그래서 심지어 개역성경도 출애굽기 7장 1절, 에스겔 37장 4절, 계시록 19장 10절 등 10 구절에서는 부득이 대언으로 바르게 번역했다.

e. 고전14장에서도 개역성경은 이를 ‘예언’이라 번역하여 문제를 일으킨다.

f. 첫째 대언자는 아벨이다(눅11:51)

g. 지금은 직통 계시를 받는 대언자가 없다.

(2) 섬김: 말 그대로 겸손히 섬기는 선물이다. 집사(deacon)가 여기서 나온다. 막10:45

(3) 가르침: 성령님에 의해 교리를 주입하는 것, 직통 계시를 받는 대언자와 달리 교사는 성령님의 조명 하에서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여 가르친다. 교사의 가르침은 사람의 말이므로 조심해야 한다.

(4) 권면: 위로, 격려, 도움(히3:13; 10:25)

(5) 주는 것: 다른 이들의 필요를 위해, 단순하게

(6) 치리: 교회의 리더십(살전5:12; 딤후3:4-5; 5:17), 부지런히

(7) 공물을 베푸는 기쁨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

(1)을 제외하고는 교회 시대에 항상 존재하는 선물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명 자체(요일5:11-12; 요6:47).

(8) 한 가지 선물만을 강조하면 교회가 균형을 잃는다(고전12:29-30). 고전12:7 강조

(9) 선물들은 세워 주기 위한 도구이다. 그것들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 성령님의 선물들은 있으나 성령님의 열매가 없으면 유익이 없다(갈5:22-23).

로마서 강해 제3과

로마서 12장

- 9절: 9-16절은 영적 선물들(대언, 사역(섬기는 것), 가르치는 것, 권면하는 것, 주는 것, 다스리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등 6-8절)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한 것이다.
사랑, 남을 위해 내 것을 내놓는 것, 꾸밈: 위선, 사랑하는 척 하지 말라.
영적 선물(은사)들을 사용할 때 사랑의 순환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
위선적 사랑(약2:14-16; 요일3:16-18)
꾸밈없는 사랑이 롬12장에서 두루 나타난다. 또 하나의 고전13장
- 10절: 9절의 예, 요일3:14
- 11절: 부지런히 일하라(살후3:11-12)
뜨겁다(끓어오른다, 계3:16, 19). 딛2:14, 열병을 앓는 사람처럼(행18:25)
- 12절: 그리스도를 섬기면 박해가 온다(딤후3:12),
소망 중에 기도, 소망(부활과 휴거와 영화의 소망, 롬8)
환난: 체질하는 고통(살전1:3), 소망은 인내를 낳는다.
절박하게 기도, 꾸준히 기도, 기도는 쉽지 않고 더욱이 절박한 기도는 더더욱 쉽지 않다.
- 13절: 나누어준다. 다른 성도들의 필요에 예민한가? 손님 대접(창18:1-6; 히13:2), 아브라함
- 14절: 참으로 어려운 과업(마5:44)
- 15절: 함께하라(고전12:25-26). 함께 기뻐하는 것이 더 어려울 때도 있다.
- 16절: 같은 생각(빌4:2; 고후13:11), 교회에서 서로 목적이 달라서는 안 된다.
키포인트 빌2:5, 높은 것들에 눈을 두지 말라(시131:1)
스스로 지혜로운 자(잠3:7; 사5:21)
- 17절: 17-21절은 원수들에 대한 태도, 사역에서는 반드시 원수들이 생긴다(갈5:11; 6:12-15).
이것과 나 스스로 지혜롭지 못하게 원수를 만드는 것과는 다르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살전5:15; 뱀전3:9).
구약의 보복의 원리(창9:6; 출21:24), 구약의 비보복의 원리(잠20:22; 25:21-22), 롬
12:7의 비보복의 원리, 롬13:1-4의 보복의 원리, 잠26:4-5
요약: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부당한 일을 심판하도록 하자.
정직한 일들: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하고는 '정직한'이라는 말이 없다(총 7회 눅8:15; 행6:3;
롬12:17; 고후8:21; 고후13:7; 빌4:8; 뱀전2:12).
- 18절: '가능하다면'은 이것이 언제나 가능성을 뜻하지 않는다. 화평은 쌍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인이 먼저 화평을 깨서는 안 된다(히12:14; 뱀전3:11).
- 19절: '가능하다면' 하나님께 맡기라(엡4:27).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원수 갚는 일(신32:35; 히10:30), 하나님은 신약에서도 원수를 갚는 분으로 나온다(히
10:31).
- 20절: 원수에 대한 사랑(마5:44-48; 잠25:21-22).
원수를 미워할지라도 그의 필요를 채워 주라.
그리하면 그의 이마에 타는 숫을 쌓는 것이다. 선으로 악을 갚는다. 상대방은 뜨거운 사랑으로
인해 오히려 고통스러워할 것이다.
- 21절: 악에게 지지 말라. 20절 설명
- 12장의 요점: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13장은 하나님께서 정부를 통해 그런 일을 하심을 보여 주신다.

로마서 13장

하나님께서 진노와 심판과 원수 갚는 일을 집행하시는 방법 중 하나는 인간 정부를 사용하는 것이다. 노아의 홍수 이후 인간 정부 등장, 사형제도(창9:6), 12장 끝과 13장 초반부는 서로 연결됨

1절: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하라(군대 용어). 단4:17, 25, 32, 마22:21

2,3절: 공권력에 대항하지 말라(벧전2:13-17, 19-20).

4절: 치리자들은 하나님의 종이다(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등). 악한 자를 처벌한다는 의미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 선과 악을 구분해서 처리하는 것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는데(롬12:9) 하나님은 이 일을 정부를 통해 하신다.
정부에게 칼을 주셨다(사형제도). 침례자 요한, 야고보, 바울 등도 참수됨
사형제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1. 사형제도는 하나님의 규례이다(창9:6; 출21:23-24).
2. “너는 살인하지 말라.”(출20:13)의 위배가 아니다: 군인, 경찰, 아내 보호, 자식 보호
3. 출21에는 살인, 유괴 납치, 부모 저주 등에 대해 사형을 집행함
4. 롬13:4는 하나님께서 정부에 사형제도 집행 권한을 주셨음을 가르친다.
5. 가장 효과적인 범죄 예방책(전8:11)
6. 살인자를 죽이는 것은 잔인하지 않은가? No. 그는 대가를 받을 뿐이다.
7. 바울의 증언(행25:11)
8. 미개인들도 이것을 알고 있다(행28:1-4).
9. 강도의 증언(눅23:40-41; 참조 롬1:29-32)
10. 무죄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지 않은가? Yes. 하늘의 심판자께서 바르게 보신다. 예수님

5절: 진노와 양심 때문에 복종해야 한다.

진노: 두려움(선한 두려움), 양심: 하나님의 규정, 불복종의 두 예

1. 다니엘(단6:2),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기도함
2. 초대 그리스도인들(행5),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불순종한 것(행5:29)
3. 이 외에도 히브리 산파들(출1:15-17), 동방의 지혜자들(마2:8, 12, 16)

6절: 세금을 바친다. 정부가 원활히 활동하도록, 시민의 의무(마17:24-27; 눅20:21-26)

7절: 마땅히 줄 것을 주어야 한다. 공세, 관세, 두려움, 존경

목사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존경은 Yes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복종을 강요하는 것은 성경에 없다.

존 비비어의 순종(두란노): 이브의 불순종, 타락, 아담의 불순종, 무조건 순종해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목사들이 불의해도 다윗처럼 참아라. 목사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아보니 문제가 풀린다.

사울과 다윗: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신정 정치, 사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명백히 보였다),

다윗의 장인, 다윗은 그를 대적하지 않았다. 이것을 교회에 적용하는 것 No.

예수님은 한 번도 복종을 강요하지 않았다. 강단에서 내려치지 않았다(마20:28).

“하나님의 종을 언급하며 섬겨라” 하는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고후1:24; 살전2:6-8).

배우자, 직장, 이사, 자녀 교육까지 간섭하는 목사에게서 떠나라. 그런 권한이 없다.

목사의 불의와 불법(권징 마18:15-17), 벧전4:17

로마서 강해 제3과

로마서 13장

9-10절: 십계명에서 사람들에게 대한 우리의 태도(6-10번 명령, 출20:13-17). 요약 레19:18 예수님 마22:37-39,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10절).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613개의 율법, 10개의 명령(창20, 신5), 2개의 명령(마22:36-40), 하나의 단어 사랑으로 요약됨 어떻게 사랑하느냐? 갈5:16, 22, 고전13

11-14절: 하나님의 기상나팔, 더 이상 잠에 취해서는 안 된다.

1. 엡5:8, 14, 빛의 자녀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영적 죽음에서 깨어 일어나야 한다. 이 땅에서 우리의 과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는 것(고후4:10-11), 이래야 갈2:20이 성취된다. 이 일을 위해서는 엡5:18의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2. 고전15:32-34, 부활의 문제, 교리는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악한 사귀는 선한 습성을 망친다. 그래서 올바른 사람들과 사귀어야 한다(잠13:20; 시119:63). 34절에서 바울은 깨라고 말한다.
3. 살전5:4-9, 불신자들에게는 종말이 갑자기 다가온다(살전5:2-3). 그러나 성도에게는 아무 문제 없다(4-5). 여기서는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하신다(6). 낮의 자녀들에게는 자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4. 롬13:11-14

11절: 빨리 깨라.

여기의 구원은 우리 몸이 구속되는 마지막을 이야기함(엡4:30; 롬8:23). 부활과 휴거가 이루어지는 때, 믿은 지 30년 되었으면 처음 믿었을 때보다 그만큼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온 것이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온다. 속히 오고 있다(히10:25).

우리 삶의 날에는 한계가 있다. 주님을 섬길 날이 얼마 안 남았다.

12절: 밤이 거의 다 지났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있다(딤후2:13).

빛의 갑옷을 입자(엡6:10-18). 지금 전쟁 중이다.

13절: 정직하게 걷자.

어둠의 일들 (1) 흥청대는 것(파티), 갈5:21, 뻔전4:3, (2) 술 취하는 것(눅21:34), (3) 음행하는 것(히13:4), (4) 방탕하는 것, 무절제한 것(갈5:19), (5) 다투고 시기하는 것

14절: 12절의 빛의 갑옷은 곧 그리스도이다.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자. 우리가 허락하므로 죄가 생긴다. 육신(죄성)은 개혁, 향상, 변화, 미화가 불가능하다. 십자가 처형(죽여야 한다, 갈5:24).

그리스도를 입는다. 옷은 보인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야 한다. 고후5:15

“고릴라 옷을 입으면 고릴라처럼 행한다.”

a. 이미 입었다(갈3:27)

입어라(롬3:14), 하나님 앞에서의 위치와 지금의 상태를 말한다.

b. 새사람을 입었다(골3:9-10)

입어라(엡4:22-24)

위치(事實)이고 상태는 믿음(faith)을 요구한다. 즉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사실을 우리는 믿고 행해야 한다.

로마서 14장

성도들의 불일치는 언제나 문제이다. 이스라엘의 불평, 고라의 반역(민16장), 아론과 미리암의

대적(민12장), 요셉과 그의 형들의 문제(창세기)

신약 교회에도 모든 교회에 이 문제가 있었다. 고린도 교회: 지도자 추종, 법정 싸움(고전1:10-13; 6:1-8), 갈라디아 성도들의 혈투는 일(갈5:15),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의 일치에 대해 가르침을 줌(엡4:1-4; 골2:1-2), 빌립보 교회의 두 여인(빌4:1-3), 바울과 바나바(행 15:36-41), 시133:1이 필요한 시대이다.

명백한 부분은 문제가 없지만 확실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교회 안에는 비본질적인 요소들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있을 수 있다.

먹는 것, 날을 지키는 것 등, 특히 믿음이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 사이의 갈등

1절: 믿음이 약한 자

성도, 교리가 부족함, 혹은 교리를 배우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알지 못함(벧후3:18;

고전3:1-3), 이 사람은 지금 죄 가운데 있지는 않음.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알지 못함 이런 성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받아들여야 한다. 그 이유는 3절에 있다.

그런데 의심에 찬 논쟁은 삼가야 한다.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맞지 않음

2절: 음식 문제, 특히 유대인들의 음식 문제(레11), 사도행전의 음식 문제(행15:29)

이제는 시대가 변해서 무엇이든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딤후4:4-5).

채식, 육식(창9), 과도한 규제는 문제다. 뉴에이지, 안식교의 무리한 채식 강조 No!

제사, 고사 음식(고전8, 4절과 13절)

3절: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문제, 업신여기는 것과 판단하는 것

하나님은 이 둘을 다 받아주셨다.

1절에는 약한 자가 구체적으로 나오지만 강한 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 이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다 약할 수밖에 없다. 또 남을 업신여기는 죄를 지을 수 있고 교만하게 될 수 있다(고전8:1).

4절: 음식 문제로 판단하지 말라.

여기의 종은 집주인의 종이다. 판단하는 자는 종이 아니다. 동료 종에 지나지 않는다.

그 종의 주인은 그리스도이고 그는 그분에게만 보고한다(9-10).

주인이신 그리스도는 자기의 종이 넘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서로 세워주어야 한다(고전14:26).

5절: 음식에서 날로 옮겨간다.

갈4:10-11

여기서는 유대인들의 안식일과 관련이 있다. 예배로 모이는 날과 주일

사람마다 자기 마음에서 확신을 가져야 한다.

6절: 방종이 아니라 주께 하듯 해야 한다. 5-9절에만 '주'가 8회 나온다. 우리가 주님 노릇을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주님을 섬긴다(골3:23-24). 원칙은 항상 고전10:31을 따르는 것이다.

로마서 강해 제35과

로마서 14장

6절: 방종이 아니라 주께 하듯 해야 한다. 5-9절에만 '주'가 8회 나온다. 우리가 주님 노릇을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주님을 섬긴다(골3:23-24). 원칙은 항상 고전10:31을 따르는 것이다.

현금 문제, 옷 문제, 예배 참여 횟수 문제

베드로의 문제 요21:15-25

7-9절: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원리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고후5:14-15).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존귀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순종한다.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다 그분의 손 안에 있다. 심지어 죽는 것도 복이다(빌1:20-23). 그분은 우리가 살아서도 주님이요, 죽어서도 주님이다. 죽음이 바꾸지 못한다.

10-12절: 그리스도의 심판석

10절의 판단은 3절과 연결되어 있다. 10절의 '우리'는 바울은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미래에 있다.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다(11절). 개역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석'으로 바꿈.

심판석은 '베마'이다. 선수들만 참여한다. 이기는 자는 보상을 받고 저도 쫓겨나지 않는다.

고전3:11-15

고후5:10

11절은 사45:23 인용, 그 뒤 22절은 스펀전 회심 구절

22절: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23절: 누구나 회계보고 한다(12절).



롬8:1의 심판과 롬14:10의 심판은 다르다(둘 다 성도들에게 적용되지만).

구원	보상
거저, 무료(엡2:8-9)	섬김에 의해서(골3:22-24)
우리는 자격이 없다(시130:3)	우리는 자격이 있다(눅19:16-17)
행위에 근거하지 않는다(딤후1:9; 딤텔3:5)	구원 이후의 행위에 근거한다(마16:27; 계22:12)
구원은 현재 소유이다(요5:24).	보상은 미래 소유이다(눅14:14).
구원은 결코 상실되지 않는다(요10:27-28)	보상은 상실될 수 있다(계3:11; 요이8; 고전3:14-15)
구원의 초점은 죄이다(마1:21).	보상의 초점은 섬김이다(엡6:7-8).
구원은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다(요일5:12)	보상은 왕관을 소유하는 것이다(고전9:24-25).
주님의 말씀, 다 이루었다(요19:30).	주님의 말씀, 잘 하였다(마25:23).
구원은 초림 때에 성취되었다(딤텔1:15)	보상은 재림 때에 주어진다(딤후4:8)
구원은 한순간에 거저 받는다(요5:24).	보상은 성도의 전 인생의 기간을 통해 얻는다(고후5:10).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근거한다(롬3:24).	보상은 구원 이후 성도 각자가 한 일에 근거한다(고후5:10).
사람이 할 일: 믿음(행16:31)	사람이 할 일: 신실함(눅16:10-12)
그리스도를 믿었느냐?(고전1:21)	그리스도 안에 거하였느냐?(요일2:28)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승인(엡1:6)	하나님이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전3:14-15).
모든 성도가 같은 구원 소유(히2:3; 엡1:3)	모든 성도가 다른 보상 소유(마20:21, 23)
나에 대한 심판은 언제 이루어졌는가? 이미 갈보리 십자가에서(사53:6; 벧전3:18)	나에 대한 보상은 언제 어디서 이루어질 것인가? 미래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고후5:10; 롬14:10)
무료(사55:1)	평생의 섬김(마5:10, 12)
칭의와 함께 주어진다(처음에).	영화와 함께 주어진다(마지막에).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신실하게 섬긴다(롬12:1-2).	보상에 대한 감사로 우리는 왕관을 주님 앞에 던진다(계4:10-11).

13절: 이런 문제에서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걸림돌을 두지 말라.

교리 문제 등은 판단해야 한다. 안 그러면 분열이 생긴다.

14절: 여전히 음식 문제,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다. 주님이 주시는 확신이다(딤텔4:4-5).

유대인 형제, 돼지고기, 율법의 규례를 생각하며 먹으면 죄가 된다(롬14:22-23).

고사 떡, 제사 음식 등

15절: 음식으로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전8:10-13).

유대인 형제, 돼지고기, 율법의 규례를 생각하며 먹으면 죄가 된다(롬14:22-23).

16절: 선한 것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 고전8:1을 항상 기억하라.

17절: 햄버거를 먹느냐 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기쁨과 화평이 있느냐가 중요하다.

먹는 문제로 의를 잃어버리면 큰 손해다.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열매가 문제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 여기서는 의와 화평과 기쁨이 특징이다.

18절: 의와 화평과 기쁨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겨라.

의로운 삶(벧전2:24), 하나님의 화평(요14:27), 하나님의 기쁨(요15:11).

성도들이 성령님의 열매를 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엡5:18).

19절: 화평을 이루라(엡4:3). 세워 주는 일을(edification) 해라. 고전14장의 선물

20절: 음식물로 인해 하나님의 일(세워 주는 것)을 망치지 말라. 고전8:12-13

21절: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총결론

22절: 강한 자에게 주는 교훈(고전10:31-32)

23절: 약한 자에게 주는 교훈

무언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일을 하는 것은 죄다(목사들의 죄, 교회의 죄).

그러나 무언가가 옳다고 생각하고는 하지만 그것이 다 옳지 않은 경우가 있다(요16:2).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참 믿음은 내 확신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롬14:7-9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낭독

로마서 강해 제36과

로마서 15장

1절: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도와야 한다. ‘우리 강한 자들은’: 바울 포함, 목사, 집사, 리더들
바울은 자신을 강한 자로 분류하였다. 약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롬13:8).

1.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약한 자들을 받아들인다(롬14:1,3).
2. 약한 자들을 멸시하지 않는다(롬14:2).
3. 그들의 길에 실족하게 하는 것을 두지 않는다(롬14:13, 20).
4. 사랑으로 걸어야 한다(롬14:15).
5. 우리의 권리와 자유를 희생할 각오를 해야 한다(롬14:15).
6.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화평을 추구해야 한다(롬14:17, 19).
7. 약한 자들을 세워 주어야 한다(롬14:19).
8. 약한 자들 앞에서 믿음을 과시해서는 안 된다(롬14:22).
9.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참고 인내해 주어야 한다(롬15:1).
10.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해서 안 된다(롬15:1). 대단히 힘든 요구 사항

2절: 모든 신자는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자기가 아니라 남을 배려하는 마음(고전10:33; 13:5)

3절: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예

시69:9 인용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그리 해야 한다(히11:26).

자기의 기쁨과 영광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생기면 곧바로 갈보리 십자가를 봐야 한다.

막10:42-45를 읽어야 함: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도 자기를 위한 적이 없다(단9:26).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힘의 원천

놀랍게도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서 성공하느냐 여부는 오직 한 가지 요소에 달렸다. 엄청난 재력, 정치 권력, 복잡한 기술, 탁월한 조직, 뛰어난 설교, 대중을 동원하는 능력, 웅장한 건물, 창의적인 프로그램 따위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 구성원들끼리 서로 공유하는 사랑이 그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나누는 관계의 특성이야말로 교회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해 주는 핵심 요소이다.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형성되면 울타리 밖에 있는 이들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교회에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워서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를 향해 가지고 있는 사랑뿐만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그 내면에 품고 계신 사랑을 못사람들이 보고 경험할 수 있게 하라고 명령하셨다. 제랄드 스티치의 <사랑의 집>에서

4절: 강한 자들이 이렇게 하면 곧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진 것이다. 그 생각은 성경에서 온다.
전에 기록된 것들에서 온다.

요20:31

요일5:13

고전10:11

딤후3:16

성경기록들은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를 주며 결국 소망을 준다.

인내: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참고 견디는 것, 모세, 다윗, 다니엘

위로: 성도들의 위로, 요셉, 엘리야

그 결과 소망을 갖는다. 재림과 휴거와 부활의 소망

마라톤 경주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삶 비교(히12:1-2; 고전9:24; 딤후4:7).

달리는 동안 장애물, 날씨, 야유하는 사람, 건강, 반대가 많다. 그래도 달려야 한다(인내, 히 12:1). 끝까지 가야 한다. 그러는 가운데 위로와 격려도 받는다. 시원한 물도 받는다.

시원한 바람도 있다. 그러면서 끝까지 달릴 소망을 갖는다. 그리고 완주한다(히12:2).

5절: 4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내와 위로, 5절은 하나님이 인내와 위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인내와 위로를 얻는다(요15:7).

하나님이 같은 마음(생각)을 주신다.

1미터 길이: 어떻게 정할 것인가? 사람마다 다르다. 그런데 국제 표준이 있어서 다행이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생각도 다 다르다. 그러므로 표준이 필요하다,

그 표준은 곧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의 생각(마음: 빌2:2, 5),

우리의 생각은 그리스도의 생각과 같아야 하고 그것은 성경에 있다.

내 생각, 네 생각이 다 그리스도의 생각이 되어야 일치가 이루어진다.

아침에 예배드리러 왔다. “찬송합시다.”하고 장을 가르쳐 주미 않으면 어떻게 될까?

모두 다른 페이지를 펴다. 큰 혼동이 생긴다. 하나님이 지휘자이시면 해결이 된다.

6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한다.

우리는 많은 마음(생각)이 있다. 그러나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많은 입이 있다. 그러나 한 입이 되어야 한다.

초대 교회가 이런 모습이였다(행1:14; 2:1, 46; 4:24; 5:12; 15:25).

그 결과가 하나님 찬양으로 나타나야 한다.

7절: 서로를 수용해야 하는 이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수용하셨으므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한다(요13:34).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한다(엡4:32).

그리스도께서 참으신 것처럼 참는다(골3:13).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신 것처럼 받아준다(롬15:7).

8-9a절: 그리스도의 사명

할례자들의 사역자(minister), 마20:28

이스라엘의 집의 잃어버린 양들(마15:24)

자기 백성에게 오심(요1:11)

조상들(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에게 하신 약속들의 확증, 하나님의 진리로

그분께서 오셔서 메시아 약속을 친히 확증하셨다.

그분께서 오셔서 왕국 약속을 친히 확증하셨다(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예, 아멘’이 된다(고후1:20).

유대인들은 이런 약속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대로 이루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약속들은 이방인과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이렇게 간구할 수 없다.
이방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하여 그분께 간청할 수 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2중 사역을 명확히 밝힌다.

9b-12절: 이방인들의 사도인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 주는 구약 성경을 인용한다. 사도 바울의 포인트는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자라는 것이다(롬3:29).

9b: 시18:49(삼하22:50), 다윗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려 함.

10: 신32:43, 모세의 노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기뻐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원수들을 무찌르는 문맥,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민족들은 저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민족들에게는 복을 준다.

11: 시117:1, 가장 짧은 시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함

12: 사11:10, 천년왕국 구절, 메시아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다스림.

로마서 강해 제3과

로마서 15장

9b-12절: 이방인들의 사도인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 주는 구약 성경을 인용한다. 사도 바울의 포인트는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자라는 것이다(롬3:29).

13절: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곧 소망의 하나님이다(시62:5).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기쁨과 평강으로 채우신다.

기쁨과 평강은 예수님께서 민족들을 다스리는 천년왕국을 특징짓는 단어들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도들 안에서 다스리시면 역시 기쁨과 평강이 넘친다(갈5:22; 요14:27; 살전5:16).

믿음을 떠나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이 없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에게도 참된 기쁨과 평강이 없다.

내 기쁨(요15:11) ≡ 내 기쁨, 내 평안(요14:27)

넘친다(abound).

내적으로 넘치는 것	1. 소망(롬15:13)
	2. 위로(고후1:5)
	3. 은혜(고후9:8)
	4. 기쁨(빌1:26)
외적으로 넘치는 것	1. 주님의 일(고전15:58)
	2. 그리스도를 위한 수고(고전15:10)
	3. 선한 행위(고후9:8)
	4.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빌1:9; 살전3:12; 4:9-10)
	5. 주님을 기쁘게 하며 동행하는 것(살전4:1)

한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 소망이 없이 살던 자들이었다(엡2:12).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셨다(딤후1:2).

그 결과 성도들에게는 1)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감이 넘친다(롬8:28-29).

2)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넘친다(빌1:20).

3)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넘친다(요일3:2-3).

14절: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 대한 바울의 세 가지 확신

1. 그들은 선함으로 찬탄하다(갈5:22; 엡5:9). 선함은 성령의 열매, 하나님 한 분만 선택시다(마19:16-17). 그러므로 로마의 성도들은 선택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찬탄하였다.

2. 그들은 모든 지식으로 찬탄하였다. 그분과 그분의 뜻을 아는 것, 왜 그들은 지식이 찬탄한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진 예수님이(골2:3)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분의 생각을 가졌다(고전2:16).

3. 그들은 서로를 훈계할 수 있었다. 훈계와 경고는 같은 단어, 바울은 3년이나 에베소 성도들에게 훈계를 주었다(행20:31). 교회의 지도자들은 경고/훈계 사역에 신경을 써야 한다(살전5:12). 무질서한 자들에게 경고해야 한다(살전5:14; 살후3:15). 경고/훈계는 진정한 사람에서 나온다. 경고/훈계는 쉽지 않지만 반드시 필요하다. 경고하지 않는 이유: 1. 사랑

부족, 위험 인식 부족(겔33:6; 행20:26-27), 경고 의식의 부족(행20:29-30). 그러나 경고는 항상 세워주고 격려해 주려는 목적으로 해야 한다. 로마 성도들은 서로에게 훈계할 수 있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이다.

15-16절: 바울은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행20:20, 27). 그는 그들이 알고 있는 진리들을 기억하도록 애를 썼다. 우리 역시 이미 알고 있는 진리들을 늘 같고 다듬어야 한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섬기는 일을 하였지만 항상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를 의식하였다(고전15:10; 딤후1:12-14).

은혜로 섬겨야 한다(히12:28).

그는 이방인들을 향한 사역자였다.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이 중심이었다(롬11:13).

갈2:6-8과 비교(베드로는 할례자들, 바울은 이방인들), 그는 유대인들의 회당에 먼저 들어갔지만 주요 대상은 언제나 이방인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장의 사역을 수행하였다(행15:14).

이 시대에는 유대인/이방인 구분 없이 거룩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드려진다(엡2:13-17).

17-19절: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 자랑하기를 원했다. 자기 자랑은 무익하지만 주님 안에서의 바른 자랑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전1:29-31 설명).

그는 절대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들만 자랑하려 하였다.

붓과 화가, 바이올린과 연주자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한 것을 자랑하겠다.” No!

“나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자랑하겠다.” Yes!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려는 것은 이방인들이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다.

복음에 불순종하는 것의 예(살후1:8-9)

바울의 말과 행위로 이런 순종이 일어났다.

주님은 지금도 성도들의 말과 행위를 통해 이방인들의 순종을 이끌어내신다.

주님은 바울을 통해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셨다(고후12:11-12).

이런 것들은 사도의 표적들이며 목적은 히2:3-4에 있다.

지금은 이런 표적들이 없다.

행13:6-12, 마법사 엘루마의 눈이 멀.

행14:1-3, 이고니움에서 주님께서 표적들과 이적들을 주심

행14:8-10, 나면서부터 불구인 사람을 고침

행16:16-18, 빌립보 소녀

행16:25, 감옥에서 구출됨

행19:11-16, 많은 사람이 낮고 마귀들이 쫓겨 나감

표적의 결과: 행13:12; 19:17, 20, 에베소에서 마술 책들을 불태워버림

하나님 중심의 선교는 항상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슌4:6; 시127:1).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마케도니아와 아가야의 북쪽과 동쪽), 직선거리 2,300킬로미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히 선포하였음.

그래서 이제는 로마에까지 가려고 한다(23절).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고(행20:24),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렸다(행20:27).

주님의 명령: 모든 것을 가르치라(마28:20).

그의 사역은 또한 매우 효과적이었다. 3차 선교 여행, 에베소에서 장기적으로 머물.

그 결과(행19:10; 19:20)

20-21절: 바울은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곳에만 갔다(고후10:14-16).

이미 복음적인 교회가 있는 곳에는 가지 않는다. 여중, 신천지, 안식교 No!

사52:15, 사53 바로 전 구절

22-24절: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 하에 로마에 가지 못했다(롬1:13). 그러나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통해 해야 할 일을 마치고 로마에 가고자 한다(롬1:9-13).

그의 최종 목표는 스페인이었다. 그곳에 가면서 로마를 방문하기 원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지만 그는 결국 로마에 죄수로 오게 되었다.

하나님께서서는 언제라도 우리의 계획을 수정하실 수 있다.

25-26절: 이 일을 하기 전에 바울은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을 섬겨야 했다.

그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말해 준 것을 잊지 않았다(갈2:10). 이 유대인 성도들은 핍절한

가운데 있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의 성도들이 이들을 위해 연보를 하였다(고전16:1-4;

고후8-9). 바울은 자기가 이들을 격려한 일은 말하지 않았다.

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핍절한 가운데 있었는가?

이들은 처음에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줄로 알고 자기들의 전 재산을 팔아 바쳤다(행2:44-45).

그리고 스테반 사건 이후로 핍박이 임하였다. 또 하나는 기근 때문이었다(행11:27-30).

27절: 이방인 성도들은 유대인들에게 선물 주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고후9:7).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빛 진 자들이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요4:22). 성경도 유대인에

게서 났다. 신약성경 저자들은 누가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대인, 메시아도 유대인,

영적인 복이 그들에게서 왔으므로 이방인이 육신적인 것들로 그들을 돕는 것은 마땅하다.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 기도하라(시122:6).

28-29절: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획을 밝혔다.

1. 선물 전달

2. 그리스도의 복음의 충만한 복과 함께 로마 성도들에게 감

3. 로마 성도들의 도움으로 스페인에 가서 복음 선포

여기의 열매는 사랑의 선물이다(빌4:17).

바울은 안전하게 선물을 전달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았다.

또 로마에 가되 그리스도의 복음의 충만한 복과 함께 가려 하였다.

그는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대로 살았고 복음에 잠겼으며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다(롬1:1).

바울은 곧 복음의 충만한 복이었다.

30-33절: 바울의 기도 요청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사랑으로 인해 그는 로마 성도들이 자기와 함께 기도로 고통을

나눌 것을 간청하였다.

30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언급되어 있다.

1. 불신 유대인들에게서 구출 받는 것, 어디서나 이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행21-23).

2. 잘 전달하는 것, 성도들이 받아들이는 것

3. 로마에 도착하는 것, 하나님의 뜻은 그가 죄수로 가는 것이었다(빌1:12).

그는 기쁨으로 로마로 갔다(행28:14-15).

이 세 가지 기도 요청은 다 이루어졌다.

로마서 강해 제3권과

로마서 16장

1-2절: 뵈베는 로마서를 직접 전달한 여인으로 보인다(킹제임스 성경 16장 끝 추신 참조). 1-6절에 있는 6명 중 3명이 여인들이다.

자매들은 생명의 은혜에 공동으로 참여할 자들이다(벧전3:7).

주님을 섬기는 데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따로 없다.

뵈베는 자매이며 교회의 종이었다.

여기의 종은 그리스어로 '디콘네스'인데 이를 가지고 뵈베가 여자 집사였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성경과 직접적으로 위배됨(딤후3:11-12).

뵈베는 여러 사람을 도운 구조자였다.

성도의 마땅한 도리: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는 것, 복음에 합당하게 걷는 것(여기에는 성도들을 받아들이고 대접하며 사랑하는 것이 포함됨).

3-5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1. 이들은 부지런하였다. 텐트 메이커(행18:2-3),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들을 만났으나 이들은 원래 로마 출신

2. 대접을 잘하였다(행18:3).

3. 바울로부터 잘 가르침을 받았다.

4. 성경 중심이었다(행18:24-26). 알렉사드리아의 아볼로를 데려다가 완전한 지식을 가르쳐 줌

5. 지역 교회 중심이었다(고전16:19; 롬16:5). 그들의 집 교회, 이제는 집 교회, 빌딩 교회, 단수 목사, 복수 목사 문제가 없다(요4:21-24). 무언가 하나만을 주장하면 문제가 생긴다.

6. 부부 팀

7.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을 도왔다. 바울을 도왔다. 당신은 어떤가?

8. 용감하였다(롬16:4). 아마도 브리스길라가 더 용감했을지 모른다.

9. 브리스길라는 순종하였지만 억압 받지 않았다. 이 부부의 이름 6회 언급됨. 3회는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옴. 그만큼 자매가 큰일을 하였다. 자매들이 자유롭게 말하고 일해야 한다.

10. 끝까지 신실하였다(딤후4:19). 바울의 마지막 편지, 이들을 만난 뒤 14년 이후에 기록됨. 이들에 대한 바울의 평: 끝까지 긍정적이다.

5절: 에베네도, 아가야에서의 첫 열매, 루디아, 마케도니아의 첫 열매(행16:14)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첫 열매, 킹제임스 성경의 첫 열매

6절: 마리아, 많이 수고한 여인

마리아(미리암), 1. 예수님의 어머니(마1:16), 2. 막달라 마리아(눅8:2), 3. 요한 마가의 어머니(행12:12), 4. 마르다의 동생(눅10:42), 5. 글로바의 아내(요19:25), 6. 롬16:6

7절: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유니아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른다. 어찌면 부부

1. 바울의 친족: 넓은 의미의 유대인 혹은 가까운 친족, 아마도 넓은 의미의 친족(갈6:16)

2. 바울과 함께 옥살이를 한 적이 있음

3. 사도들 가운데 주목을 받는다. 이들은 사도들이 아니다.

4.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됨(행9 이전). 교회는 행2장에서 시작됨.

8절: 암블리아

암블리아는 노예들 가운데 흔한 이름, 골3:23-24, 28

9절: 우르바노와 스다구

성도들은 같은 목표를 두고 협력하는 자들이다. 약점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랑의 말만 한다.

10절: 아벨레, 아리스도볼로의 집안

인정을 받는다. 딤후2:15

어떤 이들은 아리스도볼로가 헤롯 대왕의 손자라고 주장한다.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사실이라면 악명 높은 헤롯 가문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나온 것이다.

11절: 헤로디온, 나깃수의 집안

친족(유대인), 헤로디온은 헤롯 가문과 연관되어 있다.

나깃수는 클라우디우스 황제에게 연결된 부자, 자유인으로 보기도 한다. 어쩌면 아리스도볼로와 나깃수는 카이사르의 집안에 속한 성도들일지도 모른다(빌4:22).

12절: 드루배나, 드루보사, 버시: 수고를 많이 한 세 명의 여인, 사도 바울의 예 고전15:10

드루배나와 드루보사는 자매였을 가능성이 있다.

13절: 루포와 그의 어머니

루포는 막15:21에 나온다.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에게는 알렉산더라는 형제가 있었다.

아마도 루포의 어머니는 바울을 아들처럼 여기고 간호했을 가능성이 있다.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다(선정된 자).

14-15절: 9명의 신자들과 그들과 함께 있는 성도들

16절: 거룩한 입맞춤

초대 교회에는 거룩한 입맞춤이 있었다. Kiss 5회 언급(롬16:16; 고전16:20; 고후13:12; 살전5:26; 벧전5:14). 이마나 불에 키스하는 것(입술 No!).

현 시대에는 악수 등으로 이해하면 된다.

17-18절: 분리해야 한다.

사도는 인사를 멈추고 갑자기 경고를 한다.

거짓 교사들이 있다.

1. 분리(17), (1) 마크해야 한다(행20:29-31). 이들의 특징: 분쟁을 일으키고 실족하게 함 교리에 역행하는 자들, 교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성경, 구원, 교회, 재림

2. 그 뒤에 피해야 한다(딤후3:5; 딤후3:10; 요이10).

3. 말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야 한다. 자기들의 배를 섬긴다.

4. 이들은 빼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을 속인다(유3 이하).

5. WCC, NCC, 이스라엘 대체신학

19절: 선과 악에 대한 로마 성도들의 책임

로마 성도들은 이미 믿음으로 유명한 자들이다(롬1:8). 믿음은 순종을 낳는다.

배도를 막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로마는 제국의 중심, 그러므로 로마 성도들의 책임은 매우 컸다.

믿음대로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궁극적으로 로마 카톨릭 교회가 나왔다.

바울의 소원: 선한 것에 대해서는 지혜롭고 악한 것에 대해서는 순진하기를 원한다.

선한 것, 선한 사람, 선한 열매, 선한 모임, 선한 행위

지식과 이해에서는 어른이 되어야 하지만 악과 사악함에 대해서는 아이가 되어야 한다(고전 14:20).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음란한 영화와 드라마를 본다.” 맞는가? No! 순진하라는 말은 섞이지 말라는 말이다.

20절: 마귀의 일은 곧 끝나게 되어 있다는 소망의 말씀

평강의 하나님만이 마귀와의 전쟁을 끝내실 수 있다. 그 뒤에 화평이 온다.

창3:15

환난기 중반에 마귀는 땅으로 내쫓기고(계12:12) 환난기 이후에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혔다가 결국 불 호수로 들어간다.

십자가에서 패한 이후에, 바울이 편지를 쓰는 순간에도 여전히 마귀는 강한 원수로 일하고 있다(벧전5:8-9).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위로는 주님의 '임박한 재림'이다(딤후2:13).

21-24절: 1-20절 첫 부분은 바울의 인사, 여기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로마 성도들에게 보내는 인사

로마서는 3차 선교 여행의 말미에 고린도에서 기록되었을 것이다(추신).

1. 디모데, 믿음 안에서 그의 아들(빌2:19-20; 딤후1:2). 그는 디모데에 대해 남다른 사랑이 있었다(딤후4:9, 21).
2. 루기오는 아마도 행13:1의 인물과 같은 사람
3. 야손은 아마도 행17:5-9의 인물, 바울과 실라를 받아들였다가 군중의 침입을 받음.
4. 소시바더, 행20:4-6의 소바더? 루기오, 야손, 소시바더는 아마도 유대인(친족)
5. 더디오, 바울의 기록관(벧후1:21, 눈 문제, 예레미야와 바룩의 관계 렘36), 22절은 유일하게 더디오의 기록
6. 가이오: 접대하는 자, 아마도 고전1:14의 가이오와 동일 인물(바울이 침례를 줌) 가능성
7. 에라스도: 도시(고린도)의 재무관
8. 구아도: 그는 단순한 형제

25-27절: 축복 기도

1장: 구약의 대언자들에 의해 약속된 하나님의 복음

16장: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은밀히 감추어져 왔으나 이제는 밝히 드러난 신비

오래되고 구약에 드러난 복음

새롭고 구약에는 감추어졌으나 지금은 드러난 복음

오래된 복음 요소

복음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일에 대한 것, 대속의 죽음과 몸의 부활

고전15:1-4, '성경 기록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대속의 죽음: BC 700년경의 사53, 눅24:44-46

행8의 에티오피아 내시(행8:28-35), 사53

행2:24-32, 그리스도의 부활, 시편 16편

행4:10-11, 그리스도의 부활, 시 118편

행10:43, 모든 대언자들이 그리스도를 가리켰고 그분 안에서의 용서를 말하였다.

행13:33-37, 그리스도의 부활, 시2와 16의 성취

로마서, 믿음에 의한 칭의, 아브라함(창15:6; 롬4:1-8)

사도 바울의 복음은 구약 성경 기록에 따른 것이다(고전15:3-4). 십자가, 빈 무덤, '믿음에 의한 의'는 모두 구약에 들어 있다.

새로운 복음 요소

현 시대에는 다른 시대에는 알려지지 않은 복음의 신비가 있다(엡3:5-8).

그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의 동료가 된다는 것이다(고전12:13).

이것은 다른 시대에는 알려지지 않은 교회의 신비이다.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하나님 한 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신비의 계시에 따라 굳게 세우신다.

그러므로 교회의 신비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골1:27; 엡3:8-9).

‘나의 복음에 따라’: 나의 복음(롬2:16): 심판, 나의 복음(딤후2:8): 부활

롬1:1 하나님의 복음

1. 바울의 복음: 그에게 맡겨졌으므로(고전9:16-17)

2. 그에게 특별하게 계시되었으므로(갈1:11-12; 갈2:2)

‘그리스도를 선포함에 따라’: 그리스도가 핵심이다(롬1:1-4).

‘다른 시대에는 숨겨졌으나 이제는 계시된 것’: 교회의 신비(엡3:4-8), 휴거의 신비(고전 15:51-52) 등, 개혁주의자들은 이런 것들이 다 구약에 계시되어 있다고 말한다. No!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통해 드러나게 된 것’: 엡3:5, 여기의 대언자들은 신약시대의 대언자들이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는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고 드러내야 할 명령을 수행하는 자였다(막16:15).

‘믿음에 순종하도록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지게 된 신비’: 롬1:5와 비슷함

모든 곳의 모든 사람은 회개하고 순종하라는 명령을 받았다(행17:31).

복음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영존하는 파멸로 고통을 받는다(살후1:8-9).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로마서 중요 단어

하나님의 의, 칭의, 전가, 성화, 영화

로마서 간단 요약

I. 도입 (1:1-17)

A. 인사 (1:1-7), B. 설명 (1:8-17)

II. 죄 (1:18-3:20 - 의가 필요함)

A. 이방인들 죄 아래 있음 (1:18-32), B. 유대인들 - 도덕주의자, 종교인 - 죄 아래 있음 (2:1-3:8), C. 온 세상이 죄 아래 있음 (3:9-20)

III. 구원 (3:21-5:21 - 의가 전가됨)

A. 칭의 설명 (3:21-31), B. 칭의의 예 (4), C. 칭의의 경험 (5)

IV. 성화 (6-8 - 의가 분배됨)

A.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새 위치 (6), B. 육체 안에서 우리의 새 문제 (7)
C.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새 능력 (8)

V. 하나님의 경륜 주권 (9-11 - 의를 거부함)

A. 이스라엘의 과거: 선택 (9), B. 이스라엘의 현재: 거부 (10)
C. 이스라엘의 미래: 구속 (11)

VI. 섬김 (12:1-15:13 - 의를 실천함)

A. 하나님께 구별됨 (12), B. 권위에 순종함 (13), C. 약한 자를 고려함 (14:1-15:13)

VII. 결론 (15:14-16:27)

A. 사역에서 바울이 신실함 (15:14-21), B. 사역에서 바울의 미래 (15:22-33)
C. 사역에 동참한 바울의 친구들 (16:1-23), D. 축복 기도 (16:24-27)